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103-01



국가중요농업유산

국가 중요농업유산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백서

2015. 12.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목 차

농업유산백서(2015)



| | |
|---|----|
| ■ 1장 서론 | 1 |
| 1절 백서제작의 목적 | 3 |
| 2절 백서의 주요내용 | 5 |
| ■ 2장 농업유산제도 | 7 |
| 1절 농업유산정책의 도입배경 | 9 |
| 1. 농촌 어메니티 자원 정책 | 9 |
| 2. 농업유산 관련 연구 | 11 |
| 3.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마련을 위한 준비활동 | 13 |
| 2절 농업유산제도의 마련 | 18 |
| 1. 농업유산개념의 형성 | 18 |
| 2.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 19 |
| 3.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상의 농업유산 | 26 |
| ■ 3장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 35 |
| 1절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 | 37 |
| 1. 농업유산제도의 도입 | 37 |
| 2.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구성 | 39 |
| 2절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 2호 지정 과정 | 42 |
| 1. 농업유산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 42 |
| 2. 제1차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개최 | 44 |
| 3.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 2호 지정 공고 | 45 |
| 3절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3호, 4호 지정 과정 | 50 |
| 1. 국가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 50 |
| 2. 제2차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개최 | 51 |
| 3.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3호, 4호 지정 공고(2014.6.30) | 57 |

| | |
|--|-----|
| ■ 4장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추진과정 | 63 |
| 1절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절차 | 65 |
| 1.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준 | 65 |
| 2.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절차 | 67 |
| 2절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 69 |
| 1.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과정 | 69 |
| 2. 각 농업유산별 등재 추진과정 | 102 |
| 3. 관계기관 활동 | 128 |
| ■ 5장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 139 |
| 1절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내용 | 141 |
| 1.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도입배경 및 목적 | 141 |
| 2.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의 개념 및 내용 | 142 |
| 3.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지원내용 | 145 |
| 2절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추진과정 | 147 |
| 1. 추진경과 | 147 |
| 2.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종합계획 수립 | 149 |
| ■ 6장 농업유산제도 발전방향 | 179 |
| 1. 국가중요농업유산발굴시스템의 보완 | 181 |
| 2.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일부 지정기준의 탄력적 검토 | 182 |
| 3. 국가중요농업유산 잠재지역(Potential sites)의 도입과 운용 | 183 |
| 4. 농림어업복합형 유산의 발굴과 협력체제 | 184 |
| 5.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추가등재를 위한 노력 | 185 |
| 6. 보전과 활용을 지향하는 농촌개발정책시스템의 구축 | 186 |
| 7.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리시스템의 보완 | 187 |
| ■ 부 록 | 189 |
| ①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현황 | 191 |
| ② 농업유산 활용사례 | 198 |
|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 207 |
| ④ 농업유산 지정관리기준(고시) | 216 |
| ⑤ 제주도 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조례 | 225 |
| ⑥ 사업추진 일지 | 229 |
| ⑦ 농업유산 관련 신문기사 | 230 |
| ⑧ 상표등록 | 2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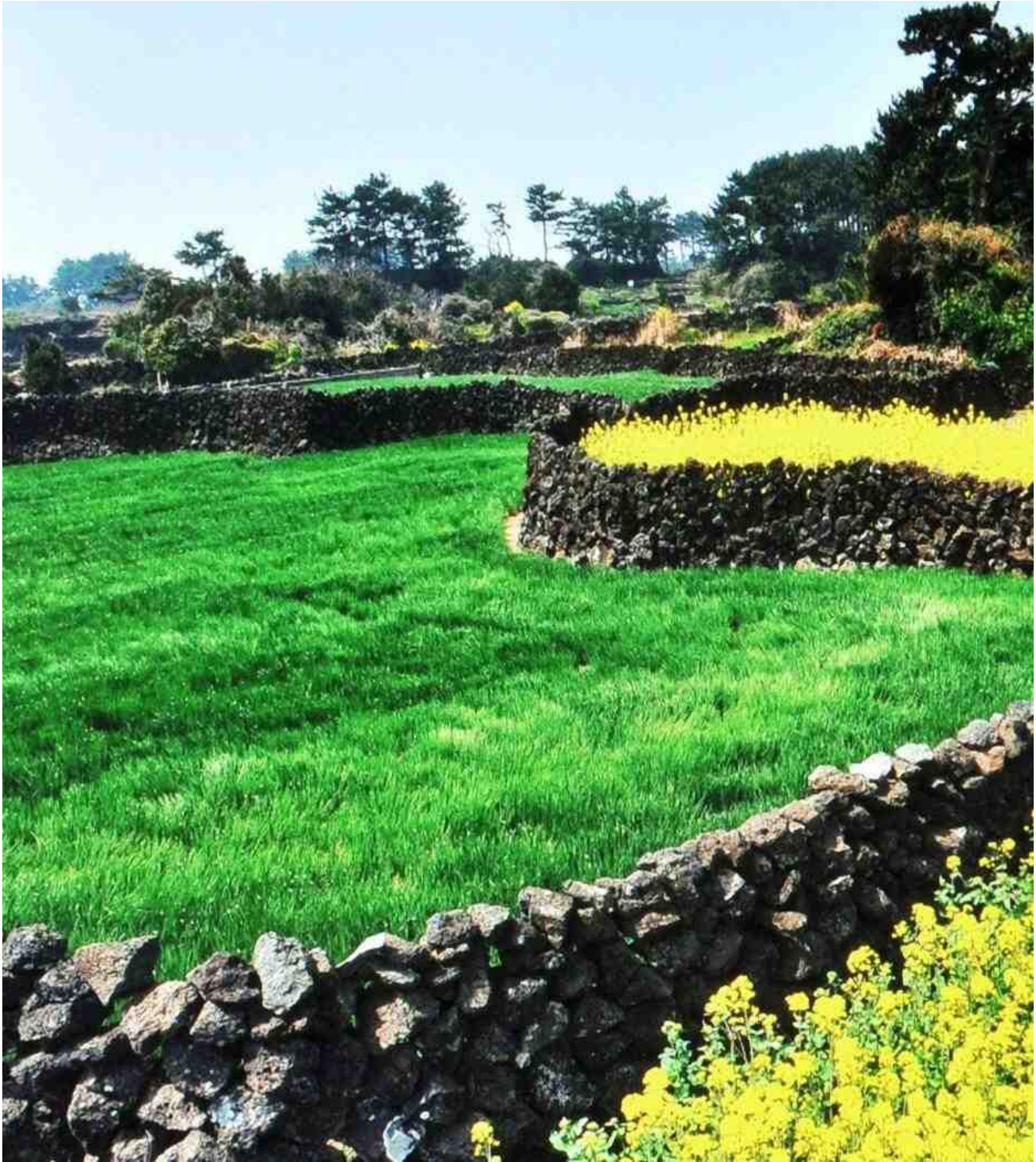
일 러 두 기

1. 본 백서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과정과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및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조명하였다.
2. 본 서의 내용 중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2014년 이전까지는 농어업 유산이었음을 밝혀두며,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농어업 유산 심의위원회」 등 법적 용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농업 유산으로 통일하였다.
3. 본 서의 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이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였음을 밝혀둔다.

|| 사진으로 보는 농업유산 ||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
(7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입선, 이상운)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2호 제주 밭담
(7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우수상, 김창덕)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3호 구례 산수유 농업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4호(담양 대나무 밭)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구성(2013.1.10)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완도현장점검(2013.1.29)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자문회의(2013.2.27)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제주도 현장점검(2013.2.27)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자문회의(2013.3.16)



FAO GIAHS 국제포럼(2013.5.29)



GIAHS 담당자 현장실사(2013.6.5)



GIAHS 담당자 현장실사(2013.6.5)



청산도 구들장 논



청산도 구들장 논 도시민 체험행사



청산도 구들장 논

■ 제주 밭돌담의 사계(四季, 서재철님 및 제주영상동인회가 사진을 제공함) ■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동필 장관 FAO 사무총장 면담(2013.6.16, 로마)



이동필 장관 FAO 총회 기조연설(2013.6.17, 로마)



농업유산제도 관련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2013.7.2)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워크숍(2013.8.25)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워크숍(2013.8.26)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워크숍 제주 발담 시찰(2013.8.26)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워크숍 청산도 구들장 논 시찰(2013.8.27)



FAO GIAHS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2013.11.13, 태국 방콕)



2차 국가 중요농업유산 심의위원회(2013.11.29)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2014.4.4)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2014.4.4,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2014.4.4, 제주 밭담 농업 시스템)



제1회 ERAHS 국제 콘퍼런스(2014.4.7, 중국 강소성 흥화시)



제2차 ERAHS 실무그룹 회의(2014.4.10)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집행위원회 연례회의(2014.4.29, 이탈리아 로마)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중간점검(2014.12.3)



구례군 산동면 일대



산동면 산수유마을



담양군 대나무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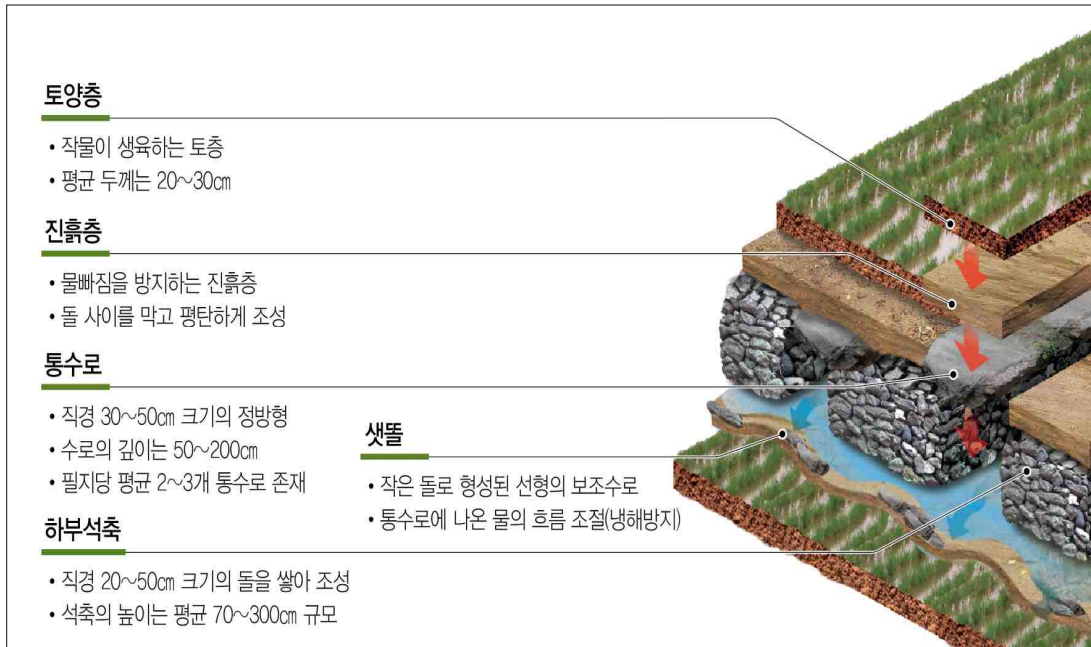
담양군 내다마을(유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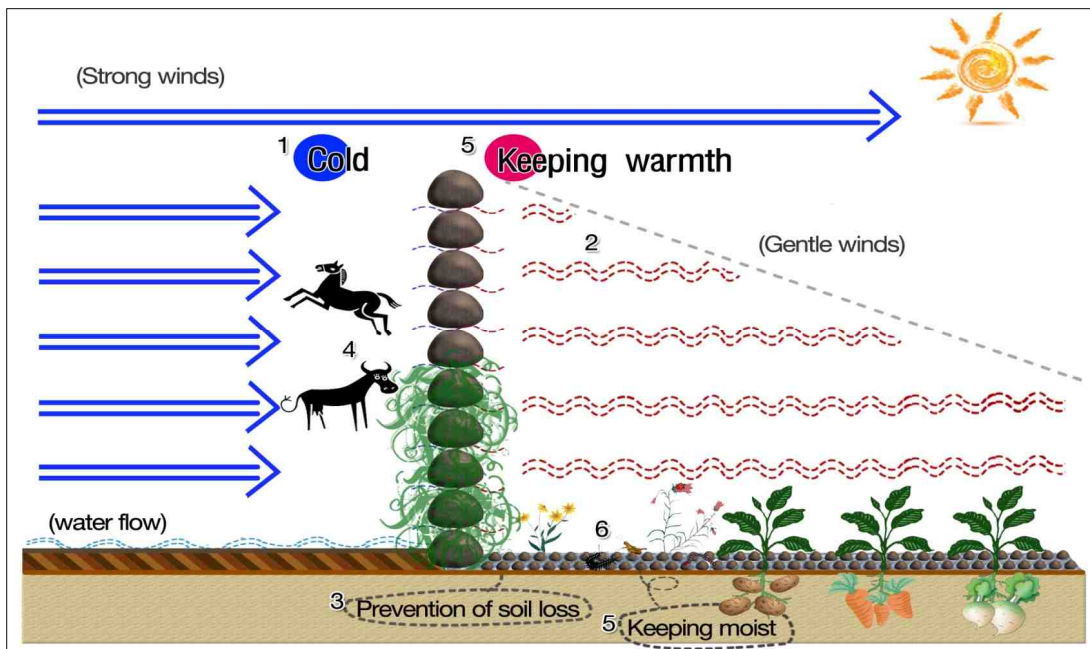
완도군 청산면 구들장 논



완도군 청산면 상서리 마을돌담



청산도 구들장 논 개념도



1. 강한바람을 걸러내는 방풍효과
2. 바람구멍으로 스며든 따뜻한 바람은 농작물 생육을 도움,
3. 바람과 비에 의한 토양유실 방지,
4. 말, 소, 노루 등 동물의 농경지 침입 방지
5. 농경지의 작은 돌들은 따뜻하게 하며 수분 보존,
6. 생물종 다양성 유지

제주 발담 개념도





제주의 미
(7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입선, 이상일)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5호 금산 인삼농업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6호 하동군 전통 차농업

1장

서론

1장

서론

1절



백서제작의 목적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2014년 4월 한국의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도의 밭담 농업시스템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였다. FAO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제도와는 별도로 차세대에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이 존재하는 농업시스템(소프트웨어)과 경관(하드웨어)을 일체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 청산도 구들장 논은 경사지의 돌밭을 논으로 바꾸기 위해 구들장과 같은 돌판을 온돌의 구들을 놓는 방식으로 깔고 그 위에 흙을 다져서 만든 논이다. 일반 다랑이 논과는 논이 하단부가 흙이 아닌 돌이라는 점이 다르다. 우리의 전통적인 온돌축조시스템과 농업토목기술을 절묘하게 융합한 독특한 구조물이다. 제주도 밭담은 화산섬의 척박한 땅을 밭으로 일구는 과정에서 생기는 돌을 토양유실과 바람을 막아내기 위해 밭의 경계선에 쌓은 담으로 화산지대 농업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농업유산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리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한 일이다.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은 바로 우리나라 농촌정책에 ‘농업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과 맥을 같이하였다. 2011년 농업유산제도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여, 2012년에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1월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이 국가 중요농업유산 1호와 2호로 지정된 지, 1여 년 만에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였다.

이번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로 농촌마을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귀중한 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재조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농업생산

성과 경제발전 등 효율성을 중시하는 농촌정책이 우선됨에 따라 농업유산이라는 개념에 익숙지 못하였고, 농촌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충분하지 못했다. 많은 농업유산들이 농촌개발의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아직까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 되는 경우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유산정책의 도입으로 농촌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농업유산은 많은 농촌계획가와 농촌마을의 리더들에게 ‘보전’과 ‘활용’이라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유산은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전략자원인 동시에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미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도시를 따라가고 다른 농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마다 다르고 특색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이른바 ‘장소지향적인 발전전략’이 대세다. 특히 농업유산정책은 전통농법과 생물다양성·문화다양성·경관 등 농업·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다원적 가치의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의 개발 중심적인 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난 편리성 위주의 개발, 정체성을 상실한 개발, 경영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 도시근교 농촌의 난개발과 같은 당면 과제들을 극복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유산과 농촌발전계획을 결합시킨 농촌 활성화 정책은 ‘한국적 정체성, 지역적 차별성, 품격 있는 농촌 공간 재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백서는 농업유산정책의 도입부터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의 추진까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또한 농업유산 발굴·지정 등 추진상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농업유산제도의 효율적 추진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백서는 향후 농업유산정책을 운영하게 될 공무원,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절

백서의 주요내용

본 백서는 서두에 농업유산 사업추진일지와 이와 관련된 사진들로 일반인들도 알기 쉬운 ‘사진으로 보는 농업유산’을 실었다. 다음 1장에는 백서발간 목적과 주요내용을 담았으며, 2장에서 농업유산의 개념과 제도의 도입과정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신규예산확보, 국가 중요농업유산 1호~4호까지 지정과정을, 4장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록하였다. 5장에서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한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기록을 남겼으며, 6장은 농업유산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부록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현황, 농업유산 활용사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유산 지정관리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조례, 사업추진일지, 농업유산 관련 신문기사목록, 국가 중요농업유산 상표등록 등을 담고 있다.

본 백서를 제작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회의자료
- ②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회의자료
- ③ 보도자료
- ④ 행정서류
- ⑤ 국내외 행사 기록
- ⑥ 해외 세미나 참가 등 출장보고서
- ⑦ 사진자료
- ⑧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관련 보고서
- ⑨ 신문기사

2장

농업유산제도

2장

농업유산제도

1절



농업유산정책의 도입배경

1. 농촌 어메니티 자원 정책

농업유산정책은 정부의 농촌정책이 변화해 온 흐름 속에서 탄생의 배경을 찾아 볼 수 있다. 농업유산정책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책적 변화는 20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1995년에 WTO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으로 우리의 농촌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정책상의 변화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나타난 대표적인 정책으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정책을 들 수 있다.

회고해 보면 2000년대 이전의 농촌정책은 주 관심사가 생산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생활관련 편의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농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농촌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시기에 도입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정책이란 이와 같이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도했던 정책이라 할 수 있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이란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생산기능 이외에 농촌의 자연환경, 지역의 문화, 유적 등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쾌적감을 주는 자원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자원은 그 이전의 정책에서는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농촌을 개발하고자 의도한 정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농촌의 환경과 문화자원을 농촌개발에 활용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비해 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정책에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그 후에 도입된 농업유산정책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농업유산제도는 농촌의 농업생산 활동과 관련된 전통적 기술 및 지식,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농촌의 경관 등을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이것을 농촌개발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정책은 모두 농촌에 있는 자원을 농촌개발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패러다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당시의 농촌정책에 도입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개념은 인간에게 편익을 주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으로 넓게 정의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개념 속에는 농업유산이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농업유산제도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개발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개념의 도입시기를 보면, 농촌정책에서 농촌 어메니티의 개념은 2000년경에 먼저 소개되었고 농업유산의 개념은 그 후 10여년이 지난 후인 2012년경에 이르러 소개되었다. 이렇게 농촌정책에 농촌 어메니티의 개념이 먼저 소개되면서 그 후에 농업유산의 개념을 농촌정책 속으로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유산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농업유산은 농촌에 있는 하나의 어메니티적 요소라는 측면에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런 점에서 두 개념 간에는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농업유산은 다른 농촌의 어메니티적 요소들과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¹⁾ 첫째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쾌적함·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지만 농업유산은 쾌적성 이외에도 농업활동으로 형성된 전통적 기술 및 지식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미칠 가치를 중시한다. 둘째는 두 정책 모두 야생 동식물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농업유산에서는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존·유지가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중시한다. 셋째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은 관광·체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하여 농업유산은 이에 더하여 식량과 생활의 안전성 확보, 지역의 정체성 확보 등을 더욱 강조한다.

1) 윤원근 외 8인(한국농어업유산학회), 농어업유산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p. 48.

농업유산은 이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히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큰 자원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메니티 자원과 별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농업유산정책을 별개의 제도로써 마련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국내에 2000년대를 전후하여 도입된 농촌 어메니티 자원 정책은 농촌의 생산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을 가진 요소들 그러니까 농촌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원 등과 같이 인간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농촌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농촌정책의 기조는 결과적으로 농업유산을 농촌정책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업유산정책이 별개로 제도화에 이르게 된 것은 이 개념이 갖는 높은 가치성과 그리고 이에 따른 보전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농업유산 관련 연구

농업유산정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12년경에 정부에 의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미 농업유산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진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연구는 농업유산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농업유산정책의 도입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선행 연구는 농업유산정책을 잉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연구과정은 의도되었건 아니면 우연이었건 간에 농업유산정책의 마련과 올바른 안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다음에서는 이상과 같이 농업유산정책의 잉태의 계기가 되었던 한국 다랑이 논 연구회의 활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 학회는 2008년도에 전국에 있는 다랑이 논이 농업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전국의 중요한 다랑이 논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학회는 청산도 구들장 논, 지리산일대의 다랑이 논 등을 탐방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내외에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청산도의 구들장 논을 탐방하게 된 것이 그 후에 농업유산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언급이 필요하다.²⁾ 2010년도의 어느 봄날에 한국다랑이 논 연구회³⁾회원들은 완도의 청산도로 향했다.

이날 모임은 연례 활동의 하나로 청산도 다랑이 논을 견학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원들은 새로운 모습의 다랑이 논을 만날 수 있다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이 그 후에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농업유산이란 용어는 학계에서조차 생소한 것이었다. 농업유산의 개념은 2000년대 접어들어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소개된 것은 이날의 모임으로 인하여 구들장 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였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농업유산이란 용어는 하나의 학술적 개념으로서 일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농업과 유산의 합성어 정도로 농촌에 있는 유산 또한 문화유산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 연구진의 이 같은 인식은 당연한 것이었다.

회원들은 먼저 청산면 상서리의 구들장 논이 있는 현장으로 갔다. 이들은 논이 하단부가 흙이 아닌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하단부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돌로 이루어져 있는 이른바 통수로로 보게 되었다. 이 같은 구조는 전통가옥의 온돌구조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늘날 대표적인 구들장 논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학회회원들은 전통농업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과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견학에서 몇 명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구들장 논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서 청산도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얻은 연구 결과물을 각종 학회와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관계자와 여러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청산도의 구들장 논이 유산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가지며 이와 같은 유산은 발굴하여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이 부분은 당시 이 학회의 학회장이던 윤원근의 기록에서 요약한 것으로서 ‘농어업유산의 이해’의 서문에 해당하는 농촌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정체성 있는 국토공간의 재창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 이 학회는 2008년 9월에 발족하였으며 그 후에 이 학회는 한국농어촌유산학회로 개명되었다.

3.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마련을 위한 준비활동

(1) 제도마련을 위한 여건의 조성

농업유산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관계자들의 농업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과 관계자들은 농업유산정책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각종 포럼이나 워크숍에서 농업유산이 발표주제의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촌관련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연구원, 농촌진흥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이들이 농업유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농업유산의 제도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와 학계의 인식이 공유됨에 따라 농업유산제도 마련을 위하여 정부와 학계의 관계자들 간에 회의가 수차례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서 청산도 현장에서 이루어진 회의에는 담당 국장, 과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학회의 주요 회원들이 참석하여 구들장 논의 현장을 답사하고 이의 보전을 위하여 농업유산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논의가 좀 더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농업유산관련 전문가, 지방공무원들과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한 수차례 걸친 회의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제도마련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2) 농어촌지역정책포럼

2011년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관광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어촌지역정책 포럼에서 주최하는 제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aT센터에서 열렸다. 이날의 정책포럼의 주제는 ‘농어촌의 자원을 말하다’였다. 모두 3개의 주제발표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농업유산과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2개의 주제는 어메니티 자원과 관련한 것이었다.

첫 번째 주제는 ‘구들장 논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연구: 완도군 청산도 사례 중심으로’이었으며⁴⁾ 이 발표는 한국 다량이 논 연구회를 대표하여 윤원근 회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산도 구들장 논의 개념과 분포, 구들장 논의 물리적 구조와 특징

4) 나머지 2개의 주제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현황과 발전방안’(정남수),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농어촌계획제도 발전방향과 과제’(성주인)이었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론으로는 구들장 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구들장 논의 보전을 위한 정책 제언이 있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⁵⁾에서는 이날 발표되었던 3개의 주제 가운데 구들장 논의 가치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이들이 우리나라에 이 같은 유형의 농업유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함과 더불어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갖게 되었다. 이때에 처음으로 농업유산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 같은 주장은 그 후에 이어진 연구에서 구체화되었다.

(3) 자체심포지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는 자체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농업유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토론을 주관한 바 있다. 2011년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는 ‘농어촌경관개선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의 주제로 충남 금산군 제월면에서 자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농업유산과 관련된 주제를 포함시켰다.⁶⁾

첫째 날 1부에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전문가 주제 발표 등이 있었다. 전문가 주제 발표 가운데 하나로 윤원근이 ‘농어업농어촌 유산지정제도 도입’의 주제를 발표하였다.⁷⁾ 여기에서 농업유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도입의 기본방향, 세부 추진방안, 지정절차, 그리고 관리 및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때에 특히 농업유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농업유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정부의 농촌지원 성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다. 이때에 나온 얘기는 주로 규제보다는 활용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대다수가 동조하였다. 또한 지원의 경우도 이것이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로써 작용되어야 하며 지역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등이 논의의 내용으로 나왔다.

5) 좌장에 한국농촌관광학회 김용근 교수, 지정 토론에는 지역개발과 윤동진 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6)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관계자, 농진청, 산림청, 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공무원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7) 윤원근·최식인(2011), ‘한국농어업 농어촌유산 제도의 정립방안’, 농어촌경관개선종합대책추진 계획(안).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4) 농업전망대회

2012년 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대회에서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발굴과 보전”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⁸⁾ 이 발표는 윤원근·최식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큰 목차는 제2장 농어업농어촌 유산지정 및 관리현황, 제3장 농어업농어촌 유산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해외제도 검토, 제4장 농어업농어촌 유산발굴사례와 관리실태, 제5장 농어업농어촌 유산 발굴 및 보전방안모색으로 구성되었다.

이 발표에서는 청산도의 사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의 농어업·농어촌 유산을 발굴하여 이를 보전하고 활용함으로써 농촌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가 처음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 농업유산을 발굴해서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5) 농어업유산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이상과 같이 농업유산의 발굴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농어촌 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연구’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위탁하였다. 이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행되었다.⁹⁾

이 연구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여기에서는 농업유산의 개념 정립, 농업유산의 실태조사 및 분석,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 설정 및 적용,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의 소개, 농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방안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의 농업유산의 개념 정립에서는 먼저 유산관련 제도들에서 유사개념들이 검토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FAO의 GIAHS,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일본의 문화적 경관, 어메니티 자원 등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농업유산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이때에 FAO의 GIAHS의 개념을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

8) 윤원근·최식인(2012),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발굴과 보전, 농업전망 2012(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이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는 책임연구원에 박윤희, 연구원에 이영이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사)도시환경연구센터가 공동연구기관이 되었는데, 여기서 책임연구원은 윤원근, 연구원으로 최식인, 유학렬, 황길식, 김진경, 이영옥, 조영재 등이 참가하였다.

제3장의 농업유산의 실태조사 및 분석에서는 국내의 유산관련정책 및 제도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기존에 시행했던 정책과 제도들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천의 의림지, 예천의 회령포, 예산의 황새마을 등에 대한 현지답사가 있었다.¹⁰⁾ 이 같은 조사연구의 결과로 전국의 농업유산관련 자원이 어떻게 관리 및 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을 설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FAO제도상의 GIAHS의 등재기준이 원용되었다. FAO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2012년 10월 이전의 것과 그 이후의 것으로 구분된다.¹¹⁾ 그래서 국가 중요농업유산이 기준을 마련함에도 이런 차이점이 참작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기준은 조정하거나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기준에 의하여 잠재유산목록(약 71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해외사례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먼저 GIAHS의 등재 절차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로부터 GIAHS의 선정심사는 2년에 1번 이루어지고 등재를 위해서는 후보지역으로 먼저 등록한 후에 다음의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인지하였다. 이 같은 정보는 후에 국가 중요농업유산을 GIAHS에 등재하는 데에 유익하게 활용되었다.

이어서 GIAHS의 유형화작업이 이루어졌다. 2012년까지 GIAHS에는 25개 지역이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유형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분류기준으로 국가별, 면적별, 그리고 유산의 가치별(경관, 생물다양성 등) 기준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일본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인 사도시(佐渡市)에 대한 사례분석이 자세히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10) 이때에 학회 측에서는 윤원근, 최식인, 김진경이 참석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하였다.

11) 처음 것은 시스템의 고유성, 정향성, 프로젝트 수행성으로 크게 분류한 후, 세분류하여 하나의 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나중의 것에서는 이전의 것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인 시스템의 고유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2012년 이후에 등재기준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선정기준이 유산의 가치 중심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FAO에서 이렇게 다시 정리한 기준은 크게 세계적 중요성, 역사적 타당성, 현재의 적용가능성의 관점에서 설정되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세계적 중요성의 기준은 농업유산이 인류의 중요한 유산으로서 갖는 가치를 대표하는데, 이것은 다시 5개의 하위지표(식량과 생활의 안전성, 생물다양성의 생태계, 지식 및 기술 체계, 문화·가치 체계와 사회조직, 경관과 수자원관리) 와 1개의 옵션지표(농업시스템관리에 따른 편익)로 세분하였다.

현지조사연구가 필요하였으며 이때는 대부분의 연구진들이 참여하였다. 사도시의 경우는 따오기가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적 농법을 실천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사례이다. 이로부터 연구진들은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부족하여도 나머지 유산의 가치, 특히 생물다양성의 조건이 잘 충족되는 경우에 GIAHS에 등재될 수 있다는 것 등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제6장에서는 농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유산의 지정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농업유산을 핵심지역, 주변지역 등으로 어떻게 그 범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다음으로 유산의 보전을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즉 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규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을 통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논의의 초점이었다. 이로부터 얻은 결론은 규제는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유산의 관리는 활용을 통한 보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로 모아졌다. 그리고 이것이 농업유산이 다른 유산, 특히 문화재관리와 구분되는 특징이라는 점으로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규제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협약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하여튼 농업유산의 관리는 활용을 통한 보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에는 당연히 정부의 지원, 전문가 집단 및 주민의 역할 등이 논의 되었다.

1. 농업유산개념의 형성

정부와 학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차의 걸친 만남과 토론을 통하여 한국의 농업유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도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유산제도의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제도에 적용할 농업유산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농업유산이 왜 가치를 갖는지에 대하여 문헌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로 근대의 대표적인 사상가 가운데 스미스(A. Smith), 마셜(A. Marshall), 러스킨(J. Ruskin) 등이 농업유산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¹²⁾. 아담 스미스의 경우는 전통적 농업활동을 오랜 세월 에 걸쳐 누적되어 온 조상들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의 결정체로서 귀중한 문화적 소산이며 이는 다른 것에 비해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였다. 마셜 역시, 농업유산은 그 독특성과 고유성으로 인하여 실제의 유용성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한 바 있다. 농업유산의 가치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깊었던 이는 러스킨이었다. 그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인간의 생명존중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가치는 농작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토지 등의 생산요소에 있음을 갈파하였다. 러스킨의 이 같은 농업활동에 대한 가치인식은 오늘날 생물다양성을 중시하는 농업유산의 가치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근대적 사상가들은 이미 농업유산이 시장의 교환가치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인식은 다음에서 설명할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과 같이 일의적이며 특별한 가치를 갖는 개념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들은 오늘날 농업유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제도 등에서 농업유산과 관련되는

12) 이와 관련하여 주로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池上淳 외(1999), 문화경제학(황현탁 역), pp.26-86. 러스킨(2013), 생명의 경제학(곽계일 역), pp. 143-217. A. Marshall(1959),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 Co., LTD., pp.353-364.

개념을 검토하였다. 이때 가장 먼저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을 검토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농업유산이란 그 특성이 구들장 논과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개념이 전통적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이며 현대적인 의미를 갖도록 정립된 매우 특별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한국의 농업유산 개념 정립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이 FAO의 농업유산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농업유산의 개념정립에 필요한 기본적 윤곽이 대체로 그려지게 되었다. 다음의 작업은 이 같은 의미의 농업유산이 그 외의 다른 제도들에 의해서 혹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제도였다. 이 제도에서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그리고 문화적 경관의 개념이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검토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개념들이 농업유산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이 다른 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차별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서 보듯이 한국의 농업유산의 개념은 첫째로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시스템의 개념이라는 국제적 표준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우리의 농업유산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킬 때에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한국의 농업유산의 개념은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고려하였다. 한국의 농업유산제도는 우리의 제도이므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적 적합성을 높이도록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농업유산의 개념은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을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일부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2.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1)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시스템의 의의

일반적으로 농업유산이란 농업과 관련하여 전승되어 온 귀중한 유·무형의 자산을 지칭한다. 이 같은 일반적인 개념이 구체성을 띠면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한 것은 2002년에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가 세계 중

요농업유산제도(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를 운영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GIAHS는 원래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기술과 생물다양성 등을 가진 세계의 농업유산을 보전하며, 이를 통하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농업유산의 발굴과 보전을 통하여 여기에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생물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향후 인류에 닥칠지도 모르는 식량위기에 대처한다는 데에 큰 목적을 두었다.

이 같은 목적은 이 제도상의 농업유산의 정의에 잘 나타나 있다. 즉 FAO에서는 농업유산시스템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와 경관’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서 보듯이 이 제도상의 농업유산은 그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한 농업유산의 개념과 달리 그 구성요소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제약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생물다양성이란 그동안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개념요소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 개념요소는 그 후 이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2) GIAHS 개념의 특징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농업유산개념은 FAO의 농업유산개념에 의해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농업유산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먼저 GIAHS의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다음은 그 과정에서 분석된 내용이다.

FAO의 정의에서 보듯이 GIAHS의 구체적인 대상은 전통적 토지이용시스템과 이로 인하여 형성된 경관을 말한다. 여기서 경관은 하드웨어적 요소이며, 경관에 구현되어 있는 토지이용시스템이란 소프트웨어적 요소이다.

먼저 이 정의에서 첫 번째 요소인 하드웨어로서의 경관은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인공적 요소에는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므로, 이 경우에서의 경관이란 자연경관이 아니라 문화경관이라는 의미가 깊다. 즉 이때의 경관이란 자연에 인공이 더하여져 만들어진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논, 밭 등이 포함된 농촌의 모습을 말한다.

다음으로 이 정의에서 두 번째 부분인 토지이용시스템이란 인간의 전통적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토지와 수자원의 이용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농업활동이란 생계농업일 것이며, 따라서 주로 소규모로 가족이나 제한된 동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전통적인 농업활동은 토지를 토대로 하며 여기에 한 공동체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축적해 온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FAO는 이와 같이 전통적 생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체계라는 무형적 요소를 농업유산 개념의 두 번째 요소로 포함하였으며 이를 특히 중시하였다.

그리고 농업유산의 개념에는 이상에서 설명한 두 부분을 수식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물 다양성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생물다양성이란 전통적 농업활동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전승되어온 다양한 생물의 품종들을 말한다. GIAHS가 다른 제도와 가장 차별되는 특징은 이 같은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FAO가 생물다양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생태시스템의 붕괴는 곧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생태계가 파괴될 경우, 식량의 안전성 뿐 만 아니라 식량공급자체에도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어족 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은 결과적으로 인류의 식량자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의 인간 역시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계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에는 지역민의 발전에 대한 열망이 강조되었다. 여기서 지역민이란 아마도 역사가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진행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토착민들을 의미할 것이다. 이들이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축적해 놓은 지식과 기술, 문화 등은 인류의 미래의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FAO에서는 농업유산을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선상에서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 그 가치성을 중시하고 있다.

(3) 다른 유산개념과의 차별성

한국의 농업유산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먼저 이상과 같이 FAO의 농업유산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FAO의 농업유산 개념은 매우 독특하며 차별적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하에 다음의 단계는 FAO의 농업유산이 다른 제도상의 유산 개념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때 대표적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개념이 검토되었으므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크게는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유산, 세계복합유산¹³⁾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특히 유네스코는 1992년에 개최된 세계유산협약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의 일종으로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여기서 문화적 경관의 개념은 기존의 문화유산개념에 자연의 개념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것은 농업유산의 개념에 더욱 근접한 개념이 되었다.

다음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의 개념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FAO의 농업유산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로 자연유산 개념을 검토하였다. 세계유산 가운데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이란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동물 및 생물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연유산은 그 대상이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이다. 그리고 이 정의에서 생물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의 자연지역 또는 자연유적지가 그 대상이 된다.

이 같이 정의된 자연유산에는 그 대상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과 다르다.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에서 보면 농업유산이란 농업활동에 의해 인공적으로 형성된 생성물이 대상이다. 그러므로 두 개념은 일치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 다만 자연유산에서도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지닌 자연지역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이 유사성이 있어 보이지만, FAO에서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반하여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에서는 그 대상이 자연 상태에서의 생물다양성이라는 점에서 역시 구별된다.

둘째로 문화유산 개념을 검토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을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로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¹⁴⁾ 그리고 이 정의에서 문화유산의 대상으로서의 기념물,

13) 이외에 인류의 무형유산(2003), 세계의 기록유산(1997)이 다시 추가되었다. 복합유산은 자연유산의 등재조건과 문화유산의 등재조건을 동시에 하나씩 만족시키는 유산이다. 유네스코는 1972년에 세계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유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협약문에 나타나 있듯이, 국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산을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보호하자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다.

14) 문화유산의 개념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로 세분화하여 정의된다. 기념물에는 건축물, 기념적인 의미를 갖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하게 세계적 가치를 갖는 유산이 포함된다.

건조물, 또는 유적지는 인류의 문화와 관련되어 인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자연유산이 자연의 소산이라면 문화유산은 인공의 소산이거나,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

문화유산은 사람에 의한 생성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결합에 의한 생성물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견 FAO의 농업유산에 근접한 개념이다. 특히 문화유산의 분류 가운데 세 번째 대상인 유적지에는 농업과 관련된 구조물, 유적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에서 말하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이란 단순한 유적지를 말한다는 점에서 FAO의 농업유산 개념과 다르다. 문화유산으로서의 유적지에는 인류 생활의 흔적으로, 무덤, 주거지, 농경지 등과 같은 유적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장소를 말한다. 하지만 FAO의 농업유산이란 이에 더하여 여기에서 현재에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량의 공급기능과 생물다양성의 증진 등의 기능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보듯이 농업유산은 자연과 인공의 소산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중복해서 등재된 것이 다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유산이 곧 농업유산이 될 수는 없다. 즉 문화유산의 개념에는 FAO의 농업유산에는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관점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이라는 관점이 결여되어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보완하여 다음에서 설명할 복합유산의 개념과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추가하게 되었다.

셋째로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복합유산의 개념이 검토되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공적인 유산은 문화유산으로, 그리고 자연적인 생성물은 자연유산으로 이분하여 지정하였다. 복합유산의 개념은 이와 같은 이분법적 지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러므로 복합유산제도는 하나의 공간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산을 지정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복합유산이란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유산을 말한다. 16)

건조물군에는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것의 건축성, 균질성, 입지성으로부터 역사적, 미술적으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이 포함된다. 그리고 유적지에는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들이 포함된다.

15) 윤원근 외 8인(농어업유산학회), 농어업유산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p36,

16) 세계유산 중 복합유산은 하나의 공간 안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조건을 적어도 한가지씩은 부합하는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에는 등재조건이 총 10개 항목이 있는데, 이 중 1번~6번은 문화유산의 조건이고 7번~10번은 자연유산의 조건이다. 10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그러나 실제적으로 2012년 현재 이 제도에 의해서 지정된 세계복합유산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¹⁷⁾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산과 염전이 이에 등록을 위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복합유산 개념은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유산의 개념에 더욱 근접하였다. 더욱이 이 개념에는 생물다양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¹⁸⁾ 그러나 이 개념 역시 농업유산 개념에 들어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의미, 즉 현재 작동하고 있는 전통농업시스템이라는 개념요소를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복합유산이 곧 농업유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업유산은 복합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예컨대 지리산 일대는 복합유산으로서 등재가능성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로 문화적 경관 개념이 검토되었다. 유네스코는 1994년에 문화유산의 카테고리에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 개념을 추가하였는데, 이 개념은 복합유산 개념보다도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에 더욱 근접하였다. 즉 복합유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문화적 경관의 개념이다. 위에서 설명한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별도로 분류되는 세계유산이다. 하지만 문화적 경관은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문화적 경관은 자연적 요소에 인공적 행위가 가해져서 만들어진 경관을 의미하여 순수한 자연적 측면보다는 인공이 가해진 문화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경관은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둘째영역은 현재까지 남아 있으면서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이다.¹⁹⁾ 이 개념은 FAO의 농업유산 개념과 연관성이 크다. 그러나 문화적 경관 개념 역시 이 안에 FAO의 농업유산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즉 FAO의 농업유산은 경관과 전통농업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여야 하지만 문화적 경관은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

세계유산이 되지만 복합유산의 경우는 1번~6번 중 1가지 이상, 그리고 7번~10번 중 1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한국농어촌유산학회, 농어업유산의 이해,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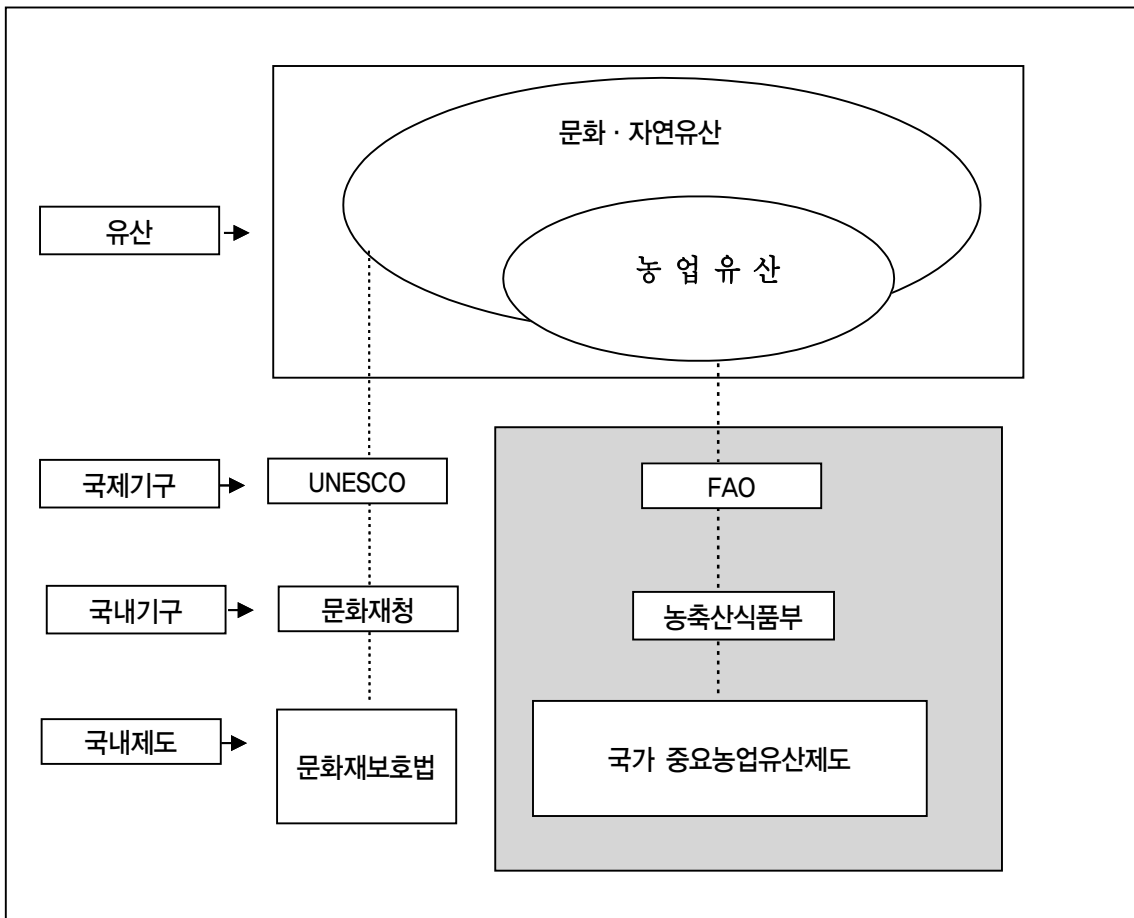
17) 2012년 현재 23건이 복합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18) 복합유산의 등재조건 가운데 9~10번째 조건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것이다.

19) 문화적 경관은 첫째는 정원 및 공원 등과 같이 인간의 설계의도에 의하여 창조된 경관으로 이를 의장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이라고 한다. 둘째는 현재까지 남아 있으면서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이며, 셋째는 관련된 경관(associative landscape)으로 여기에는 신앙 및 종교, 문학 등 예술 활동과 관련된 경관이 포함한다(오만근, 앞의 글, pp.98-99).

러므로 문화적 경관이 모두 농업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연구자들은 FAO의 농업유산 개념이 유네스코의 유산개념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제도에서는 주로 하드웨어적 요소를 보존의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FAO는 농업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별성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히 다른 제도에서 간과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농업유산관련 제도의 비교²⁰⁾

20) 윤원근 외 8인(농어업유산학회), 농어업유산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p.202에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3.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상의 농업유산

(1) 국가 중요농업유산개념의 의의

한국의 농업유산개념은 이상과 같이 FAO의 농업유산개념, 유네스코의 유산개념 등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립되었다. 즉 한국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란 ‘농림어업인²¹⁾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농업적, 또는 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과정을 통해서 진화해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촌의 경관’으로 정의된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개념은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서 정립되었다. 먼저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개념요소를 선정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에는 이 기본 개념요소를 설명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요소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먼저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개념요소는 FAO GIAHS의 개념에서 추출되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FAO의 농업유산의 개념은 토지이용시스템과 경관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본적 개념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에서도 그와 같이 두 개념요소를 기본적 개념요소로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요소인 토지이용시스템의 개념은 전통농업시스템으로 대체하였으며, 두 번째 요소인 경관은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렇게 토지이용시스템을 전통농업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농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일반인들이 토지이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전통농업이라는 개념에 더 익숙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렇게 선정된 기본개념요소인 전통농업시스템과 경관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었다. 이때에 가치평가는 전통성, 지역성, 유익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핵심적 기본개념의 가치에 대한 설명은 전통성, 지역성, 유익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1) ‘농림(어)업인’의 용어 대신 ‘농어촌주민’을 생각해 보았으나 여기에서는 농어촌유산이 아니라 농업유산의 개념에 대한 정의이니 만큼 농업유산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분명한 ‘농림어업인’의 용어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은 전통적이며 친환경적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농업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통농업시스템이란 전통적 토지이용시스템 및 수자원이용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농업기술체계 등을 말한다. 이 외에도 전통농업과 관련된 축제, 풍습 등의 문화적 체계와 같은 무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전통농업시스템에서 ‘전통적’이란 상당한 역사를 가지며 시대적 고유성을 가진 것으로서 현재에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희소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 특히 역사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그 기준이 몇 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당시의 정황은 다음 절에서 다시 하기로 한다. 그리고 고유성이란 기술, 환경, 문화 등이 현재의 것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전통농업시스템은 현 시대를 앞서 살아간 조상들이 그들이 처한 열악한 자연조건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고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조상의 지혜, 지식, 풍습 등과 같은 시대적 고유성이 역사성과 함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농업시스템은 전통적인 동시에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친환경적 시스템이란 전통농업의 경우, 대부분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설명은 동어반복일 수 있겠으나 FAO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농업시스템이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말은 현재에 농업생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곳은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조건은 매우 강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농업유산이 다른 제도와 달리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이로 인해 농업유산제도가 자연유산, 문화유산, 문화적 경관 등의 제도와 구분되며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농업과 관련하여 유적지만 남아 있고 현재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현재 전통적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농업유산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생산물의 공급, 지역사회의 유지, 생물다양성의 보존, 지역사회의 문화형성 등에 기여하는 기능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산은 지역사회에 유익함을 제공하는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²⁾

22) 농업유산에서 생물다양성의 개념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전통적 농업시스템에 가치를 부여하는 충분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이와 같이 농업유산에서 현재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너무 강한 것으로 농촌에 존재하는 많은 유산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좀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둘째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은 전통농업 시스템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하고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에는 유형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때의 경관은 농업생산지역과 인근의 생물서식지를 포함하도록 정의하였다.

그런데 경관의 미적인 수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관의 미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업유산에서의 경관은 다른 유산과 달리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지 및 수자원이용 시스템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의 모습이 일반적인 농촌의 모습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지므로 이러한 점을 미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자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이 한국의 농업유산의 개념은 유형의 하드웨어적 요소와 무형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도록 정립되었다. 그러므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은 그 대상으로 경관이라는 유형의 장소가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무형적 요소로서의 전통농업시스템, 생태시스템, 문화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²³⁾

다시 말해서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개념은 무형적 요소로서의 시스템과 유형적 요소로서의 경관의 복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무형적인 소프트웨어적 요소에는 토지이용시스템, 수자원이용시스템, 생태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의 농어업관련지식 및 기술체계 등과 지역공동체의 농어업 생활과 관련된 축제, 풍습 등의 문화체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유형적 요소로서의 경관에는 농업관련 경관, 축산관련 경관, 임업관련 경관 등이 이에 포함된다.

23) 무형적 요소는 단독으로 농업유산이 될 수 없다. 농업유산에서 무형적 요소는 유형의 경관에 복합된 형태로 포함된다. 예컨대 농업관련 지식 및 기술체계, 축제, 풍습, 또는 장소에 얽힌 이야기 등이 농업유산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의 의미를 갖지만 단독으로는 유산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것은 농업유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유산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작용을 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무형적 요소가 없는 경관만으로도 농업유산이 될 수 없다. 문화적 경관이 농업유산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같은 이유이다. 문화재 가운데 명승이 곧 농업유산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이다.

【국가 중요농업유산 개념의 구성요소²⁴⁾】

| 시스템(소프트웨어) | 경관 및 시설물(하드웨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시스템 - 토지,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체계 - 공동체의 지식 및 기술 체계 - 축제, 풍습 등 문화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임업관련 경관 - 축산관련 경관 - 수자원관련 경관 |

(2)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범위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에는 무형적 요소와 유형적 요소를 하나씩 별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일체로 지정한다. 이러한 점이 무형요소와 유형요소를 별개로 지정하는 세계유산제도와의 차별성이다.

실제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정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었다. 농업유산의 개념은 전통농업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경관의 하드웨어적 요소로 구성된 복합체이지만, 실제 지정은 지역이라는 면적인 요소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후자인 경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전자인 전통농업시스템은 경관위에 구현되므로 경관에 체화되어 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에서 대상지역은 크게 생산지역(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등 생산지역)과 인근 주변지역으로 나뉘었다. 작물생산지역에서 논의 경우 다랑이 논, 구들장 논, 각종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친환경 논 등이 대상이며, 여기에 논농사와 관련된 둠벙, 어도, 수로, 저수지, 저장시설 등이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밭의 경우는 친환경 밭, 계단식 밭, 특종작물재배 밭 등이 대상지역이며, 여기에는 돌담, 담배건조장 등의 시설물로 포함된다. 축산의 경우는 생산지역에 방목지, 채초지, 토종가축사육지 등이 포함되며, 임업에는 생산림, 방풍림, 마을림 등이 생산지역으로 포함된다.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범위를 정할 때 이상의 생산지역은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핵심지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은 생산지역과 이에 인접한 지역을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인접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인접지역은 핵심지역에서 작동하는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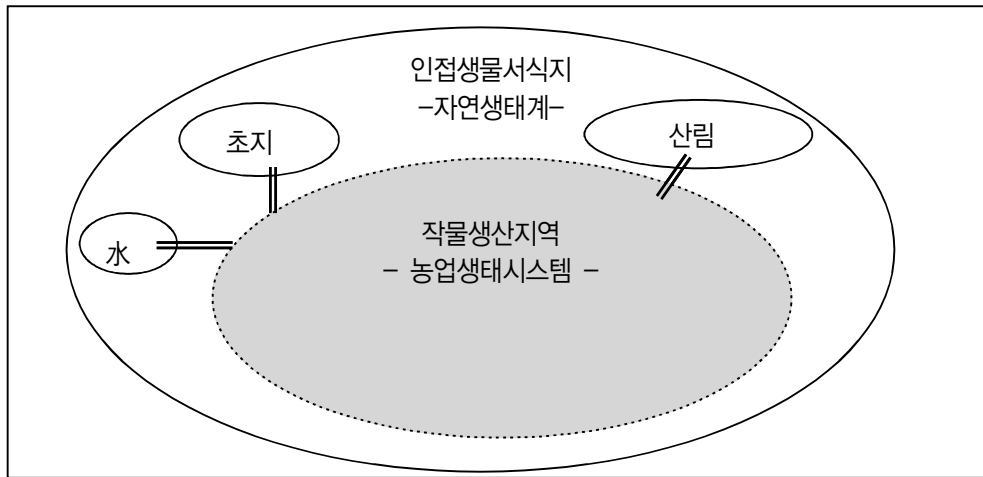
24) 윤원근 외 8인(농어업유산학회), 농어업유산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p.62

농업시스템, 생태시스템, 문화시스템 등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예컨대 구들장 논의 경우에 구들장 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핵심지역이며, 이때 인접지역이란 구들장 논이 생산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만약 그 영향권이 청산도 전체라고 한다면 청산도 전체가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가 중요농업유산을 구들장 논 지역과 근접해 있으며 친환경 생산이 이루어지는 인근의 다랑이 논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또는 구들장 논이 생산 지역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정범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농업유산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의 크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의 결론은 지정범위는 유산의 성격, 그리고 중요도 등에 따라 달라야 하므로 이는 지정주체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에 성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유산이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예컨대 다랑이 논과 인근에 목축을 위한 목초지, 또는 인근의 방풍림 등이 각각 유산적 가치를 가질 경우이다. 이때는 이들을 각각 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한 지역에 인접해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들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농업유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랑이논과 염전, 갯벌, 마을로 구성된 경관은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어도 이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²⁵⁾. 다른 예로 저수지는 이와 연계된 수원지, 친환경 논, 마을 등을 함께 묶어서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다.²⁶⁾

25) 현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유산과 해양수산부의 어업유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26) 윤원근 외 8인(농어업유산학회), 농어업유산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pp. 53-63.



【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범위(예시)²⁷⁾ 】

(3)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

한국 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국제적 기준인 FAO GIAHS를 참고하여 설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한국적인 정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현실 적합성과 국내적인 유산의 파악, 기준정립이라는 정책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일부 기준은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해서 FAO의 지정기준에 바탕을 두되, 한국의 농업유산의 제도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일부 기준을 조정하고, 한국적인 정책적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큰 범주는 가치성의 기준이다. 이 부분은 유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 관점이 고려되었다. 유산의 가치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부분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되, 일부의 내용을 조정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는 FAO의 기준에서 정황성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성을 유산의 가치성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의 도입은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에 우리나라의 유산을 등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농업유산이 아니더라도 국내적인 관점에서 유산으로서 적합하고 보존·활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유산의 가치성에 문화·가치체계 및 사회조직을 추가하였다.

27) 윤원근 외 8인(농어업유산학회), 농어업유산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p.64

이 기준은 2012년 10월 이후에 FAO에서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등재기준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파트너십의 기준이다. FAO의 기준은 이 자리에 원래 정황성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국내적인 제도의 운용의 측면에서는 이 기준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책의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의 기준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파트너십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해당 지역의 NPO 등과 같은 단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세 번째는 효과성의 기준이다. FAO의 기준에서는 세 번째로 프로젝트 수행성을 제시하였는데 국가 중요농업유산에서는 이 기준을 효과성의 기준으로 대체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기존의 유사관련제도가 보전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업유산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업유산이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농촌개발의 방향성인 생물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새로운 농촌개발의 방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첫 번째 기준인 유산의 가치성 가운데 역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몇 년을 지나야 역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성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으려면, 최소 단위를 60년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왜냐하면 60년 전인 1950년대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으며, 빈곤국에 속했다는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을 의미하고, 그 당시의 유산은 과거의 전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역사성이라는 항목이 유산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었다. 왜냐하면 비록 역사성은 60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미래의 유산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농업유산인 노토반도와 사도섬의 경우 역사성보다는 생물다양성이라는 항목에 무게를 두고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측면이 크게 고려되었다. FAO는 역사성이라는 항목을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성과 관련하여 지침을 마련할 때는 그 기준을 100년으로 설정하였다.

■ 농업유산 지정기준 ■

| 구 분 | 항목(배점) | 내 용 |
|------------|-------------|--|
| 유산의 가치성 | 역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년 이상 전부터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
| | 대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 경관(어메니티)이 수려하여 관광·휴양 상품성이 있을 것 |
| | 특 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해당되는 1~2항목)에 독특하고 현저한 특징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농어업 지식체계와 기술 -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 토지·수자원이용 형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
| 파트너십 | 협력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 관리 계획이 있을 것 |
| | 참여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NGO 포함)의 자발적 활동 및 참여가 있을 것 |
| 효과성 | 브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
| |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 | 또는 생물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특징적인 작물이 서식할 것 |

전경수(서울대 교수,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위원장)

농업유산이란 어떤 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문화나 전통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며,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영글어진 삶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해서 국가차원으로 또는 세계적 안목의 차원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떤 지역이나,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가 문헌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유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삶이 그대로 재현된 농업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유산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하고 문자로 남아있지 못한 지역문화의 의미를 구현해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유산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오랜시간 동안 그렇게 까지 어려운 삶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중한 삶의 흔적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업유산의 지정은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로 이어지는 소통에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3장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3장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1절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

1. 농업유산제도의 도입

(1) 농어업유산자원 지정관리 기준 제정 및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한국 다랑이 논 연구회 전문가 등의 노력이 합쳐져 2012년 말 경에 이르러 한국의 농업유산제도를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도입방법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농업유산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발의 하자는 안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단일법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단일법보다는 일단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도 도입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침이 2012년 3월 3일에 내려졌으며, 방침에 따른 첫 움직임은 농어업유산자원 지정관리에 관한 연구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어업유산자원 지정관리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회원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9월 18일 고시 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년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후 같은 해 12월 6일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이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85호) 되었다. 고시에는 농어업유산 지정 대상과 기준,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신청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²⁸⁾

결과적으로 농업유산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이 고시로 2012년에 공포됨으로써 그 탄생하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이때에 이르러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성과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러므로 2012년은 농업유산정책의 도입과 시작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해이다.

(2) 농업유산 신규예산 확보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신규 예산 1,150백만 원이 2013년 1월 2일에 편성되어 향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지역에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으로 배분되었다. 이 예산은 농촌의 전통농법·경관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하고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예산확보를 위한 과정은 녹록치 않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오감경관종합대책에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위한 농업유산제도 도입(2011년 12월)을 시작으로 농촌의 다원적 가치 보전형성사업 계획수립(2012년 3월), 농업유산자원 발굴 실시(2012년 6월),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담당자 이해 설득(2012년 6월~8월) 등의 과정을 걸쳐 2012년 9월에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다.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은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3년간 15억 원이 지원(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 관리·평가를 맡고 있다. 향후 7년간 25개소에 총사업비 287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유산자원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세부설계, 활용방향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농업유산의 복원이나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농업유산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환경정비도 가능하며, 가치제고를 위하여 방문객들의 휴식과 관광에 필요한 친환경적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과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의 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8) 부록 4번 참조

(3) 국가 중요농업유산 CI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부각되고 일반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상징이미지를 마련하여 그 명예를 표상하고 국가유산의 홍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5월 2일에 국가 중요농업유산 심볼(Symbol), 로고(Logo), 시그니처(Signature)를 지정하였다. CI는 극동대학교 정고암 교수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심볼은 농업의 필수요소인 자연환경과 경작(쟁기질), 전통문화(농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의미와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 CI기본 시그니처 ■

2.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제12조에 의거 농어업유산 후보 자원들을 평가하고 심의하기 위해 2012년 12월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과 관계 공무원 3명 등 총 16명으로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관련분야 전문가에는 전통문화 분야에 4명, 경관 분야에 2명, 생태환경 분야 3명, 지역개발 분야에 2명, 관광 분야에 2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심의위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장을 위촉하였으며, 1대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대 전경수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과 취소, 지정기준과 절차의 제정·변경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농업유산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2012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는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신청을 위한 지침을 마련,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2012년 8월까지 접수한 결과 총 36개 시·군에서 64개소를 신청하였다. 총 64개소를 분야별로 보면 농업분야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분야 16건, 생활·경관분야 7건, 기타분야 4건 순이었다.

2012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64개의 신청 지역 가운데 현지 조사 대상지 20개소를 선정하였다. 현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강원 강릉(안반데기), 충북 제천(의림지), 충남 당진(합덕제 및 연호방죽), 충남 홍성(광천토굴), 충남 태안(독살), 전남 완도(청산도 구들장 논), 전남 신안(갯벌), 전남 보성(계단식 차밭), 전남 담양(대나무숲), 전남 장흥(개매기어장), 경북 포항(장기목장성), 경북 상주(공검지), 경북 의성(문의점 면작지), 경남 남해(죽방렴), 경남 함양(마천다락 논), 경남 하동(녹차시배지), 경남 산청(차황다랭이 논), 제주(밭담), 제주(구엄 돌염전), 제주(나잠어업)이다.

20개소에 대한 현지 조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로 총 4팀으로 구성, 2012년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팀별로 실시하였다. 강원·충북·충남지역은 최식인 협성대학교 교수(팀장),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 민흥기 한국농어촌공사 팀장, 전남·경남 일부지역은 박윤희 농어촌연구원 박사(팀장), 강연실 전남대학교 교수,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계장, 경북·경남 일부지역은 유학열 충남발전연구원 박사(팀장), 황길식 명소IMC 대표, 김현숙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제주 지역은 김상범 농촌진흥청 박사(팀장), 최성에 해양수산개발원 박사, 김경두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이 담당하였다.

현지 조사의 목적은 20개의 국가 중요농업유산 후보 자원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여부 확인, 지역주민들의 반응 등을 알아보는 것이며, 조사 결과는 추후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심의회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4개 팀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은 현장에 가서 담당지역 공무원으로부터 농업유산 후보 자원에 대한 설명 청취와 조사단의 질의에 관련자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업유산 후보 자원의 보전 상태와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농어업유산 현장실사대상지(20개소)

| | 시군 | 유형 | 유산자원 명칭 | 위 치 | 면적 |
|----|-----------|----|------------|---------------------------|------------------------|
| 1 | 강원 강릉 | 밭 | 안반데기 | 왕산면 대기4리 안반데기 2214번지 일원 | 200ha |
| 2 | 충북 제천 | 수 | 의림지 |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 136,397m ² |
| 3 | 충남 당진 | 수 | 합덕제 및 연호방죽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 395번지 일원 | |
| 4 | 충남 홍성 | 기타 | 광천토굴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용암리 일대 | 2,832km ² |
| 5 | 충남 태안 | 바다 | 독살 | 충남 태안군 남면 지내 | |
| 6 | 전남 완도 | 논 | 청산도 구들장 논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부흥리 외 2개리 | 약65,068m ² |
| 7 | 전남 신안 | 바다 | 신안군 갯벌 | 신안군 | 573.12km ² |
| 8 | 전남 보성 | 밭 | 계단식 차밭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회천면 영천리 | 1,864.9km ² |
| 9 | 전남 담양 | 산림 | 대나무숲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 15ha |
| 10 | 전남 장흥 | 어벌 | 개매기 어장 |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리 | 33ha |
| 11 | 경북 포항 | 초지 | 장기 목장성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일원 | |
| 12 | 경북 상주 | 수 | 공검지 | 경북 상주군 공검면 양정리 | |
| 13 | 경북 의성 | 밭 | 문익점 면작지 |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 |
| 14 | 경남 남해 | 바다 | 죽방렴(대나무어살) | 경남 남해군 삼동 창선면 지족해협 | 537.2ha |
| 15 | 경남 함양 | 논 | 마천 다락논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 | 25.3ha |
| 16 | 경남 하동 | 밭 | 녹차 시배지 | 화개면 운수리 산 127 외 2필지 | 23,211m ² |
| | | | 최고(最古) 차나무 | 화개면 정금리 산 74 | |
| 17 | 경남 산청 | 논 | 차황다랭이논 | 차황면 범평리 만암, 신촌마을 | |
| 18 | 제주 제주 | 밭 | 밭돌담 | 제주도 일원 | |
| 19 | 제주 제주 | 바다 | 구엄 돌염전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608-1지선 | 500m ² |
| 20 | 제주 제주 서귀포 | 바다 | 나잠어업 | 제주시 애월읍, 구좌읍,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 |

현지 조사를 마친 후에는 팀장 책임 하에 팀별 유산자원조사서 및 세부 조사보고서를 2012년 11월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로 제출하였으며,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회의실에서 가졌다.



경북·경남지역 현장실사(2012.11.21~22)

2. 제1차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가 2013년 1월 10일(목) 정부세종청사 5동 342호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서울대 전경수 교수,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등 16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정희 과장, 김경두 사무관, 김현숙 주무관, 한국농어촌공사 백승석 계장, 이두형 계장이 배석하였다.

심의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한 64개소 가운데 서류조사를 통해 2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심의는 13개소(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자체로부터 PPT 설명 청취와 심의위원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충북 제천 의림지를 시작으로 담양 대나무밭, 제주 밭담, 제주 구엄 돌염전, 제주 해녀, 보성 계단식 차밭, 상주 공검지, 태안 독살, 하동 녹차, 신안 갯벌·염전, 남해 죽방렴, 장흥 개매기 어장, 완도 구들장 논 순으로 심의하였다.

설명청취와 질의응답을 마친 후 심의위원 간 선정 논의가 있었고, 세계 중요농업유산 신청,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본 심의에서는 2개소를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모았다. 2개소 선정 방법은 심의위원 한명당 2개소를 추천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상위 2개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역사적·생태적 가치성, 지역사회 파트너십,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 효과성 등의 3개 분야 9개 항목을 심의한 결과,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제1호)과 제주 밭담(제2호)이 선정되었다. 본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11곳에 대해서는 추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며 심의위원회를 마쳤다.

3.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 2호 지정 공고

2013년 1월 10일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2호 제주 밭담²⁹⁾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2014년 1월 14일 관보에 게재하였고 보도자료도 배포하였다.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은 전통온돌과 유사한 구들장을 통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바닥 밑에 설치하고 그 위에 진흙으로 틈새를 메워 만든 논이다. 구들장 논은 경지면적이 작고 돌이 많아 물 빠짐이 심한 청산도의 열악한 논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제주 밭담은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든 약 2만 2천km에 달하는 밭 주변의 담으로서 고려시대 고종 때부터 형성되어 역사성이 있고, 제주도의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제주 농업인의 개척정신과 지혜가 돋보여 농업유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29) 제주 밭담을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2호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주 밭담의 국가 중요농업유산 명칭이 ‘제주 돌담 밭’으로 지정되는데, 이는 밭담 자체가 농업유산의 명칭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논의를 거친 끝에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준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논의한 끝에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이란 이름으로 통일하되 경우에 따라 ‘제주 밭담’이라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완도(청산도) 구들장 논

| | | | |
|---|-------------------------------------|-------|------|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부흥리 외 2개리 | | |
| 면적(수량) | 5.ha | 가구/마을 | 99/3 |
| 대상 자원 | 구들장 논, (관련자원)긴꼬리투구새우, 초분, 고인돌, 돌담 등 | | |
| 주 요 특 징 | | | |
| <p><개 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도의 토양은 크고 작은 돌이 많아 물 빠짐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을 논바닥 밑에 설치하여 논의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관개 구조물 <p><가 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다랑이논과는 달리 논외 내부가 구들장으로 축조되어 있고, 논외 상하부에 통수로 및 배수통로를 통해 물관리를 할 수 있음 ○ 경작지로서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의 높이, 경사도, 수자원 등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산 중턱이나 산동성이 밀 까지 기존의 자연지형을 변형하여 조성한 독특한 구조물임 <p><역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7세기 입도조(入島祖)의 이주정착 이후부터 조성되기 시작함. 최소 250년에서 최대 400년의 역사를 보유함 <p><대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들장 논은 현재 청산도 일부에서만 발견되고 있을 뿐 타 지역의 분포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 | | |

〈청산도 구들장 논 구조 및 전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1.21)

제주 돌담 밭

| | | | |
|---|----------------------|------|----------|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 |
| 면적(수량) | 542ha(담 길이 22,108km) | 가구 수 | 224,713호 |
| 대상 자원 | 돌담 밭 | | |
| 주 요 특 징 | | | |
| <p><개 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든 밭 주변의 담으로서 돌담 길이는 22,108km임 <p><가 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돌담 밭은 제주인이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삶의 역정을 보여주는 유산이며, 현재도 마소로부터 농작물 보호, 밭의 경계구분, 방풍을 위한 축조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음 ○ 경관이 뛰어나고 규모가 커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p><역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돌담은 고려 고종 21년부터 고종 27년까지 재임했던 김 구 제주관관 때부터 축조 <p><대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형태는 외담, 집담, 잣백담, 잣굽담이 있으며,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 ○ 2006년 문화관광부 선정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제주 돌담이 한옥, 온돌, 초가집과 더불어 선정됨 | | | |

<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 구조 및 전경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1.21)

1. 국가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의 내용과 절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2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한국농업연수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정희 과장을 비롯하여 시·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정책강의, 사례발표, 특별강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정책강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경두 사무관의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의 정책추진 방향’ 과 농어촌연구원 박윤희 박사의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절차와 동향’ 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사례발표는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2호로 지정된 제주 밭담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김상범 박사의 ‘농업농촌 다원적 자원의 가치제고 및 활용방안’ 에 대한 특별강의가 있었다. 워크숍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농업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에 있는 농업유산 자원 발굴에 관심을 갖게 하는 성과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2013.7.2)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2013.7.2)

2. 제2차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개최

(1) 2013.8.26-27 회의

2013년 1월 10일에 열렸던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의 농업유산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농업유산 현장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워크숍과 연계하여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가 2013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심의위원 12명(4명 불참)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정희 과장, 김경두 사무관, 김현숙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백승석 계장, 이두형 계장, 지자체 공무원 6명이 배석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제이드룸에서 열린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 워크숍에 참관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랜드호텔 사파이어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경과보고, 농어업유산 지정관리기준 고시 개정안, 농업유산제도 발전방안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경두 사무관으로부터 농어업유산 지정관리 기준 제정·고시(12년 12월 6일),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설치(12년 12월 31일),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발달담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13년 1월 16일), 국가 중요농업유산 CI 제작(13년 5월 2일), FAO 사무국에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 접수(13년 5월)에 관한 내용으로

경과보고가 있었다. 다음으로 농어업유산 지정관리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심의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주로 농업유산에 대한 개념, 지정기준, 지정절차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또한 향후의 추진계획과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논의의 핵심은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사항, 농어업유산 지정관리기준 고시 개정,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확대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농업유산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 있었는데, 지방유산 지정제 도입, 향토유산 등록제 도입, 해설사·전승자 제도 도입, 향토유산을 소재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내용이었다. 다음날인 8월 27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밭담 밭을 비롯하여 해녀박물관, 구엄 돌염전 등 농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견학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제2차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2013.8.26)

(2) 2013.11.29 회의

제2차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예비 심사단계로 11개 후보지역에 대한 심의가 2013년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 5동 428호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전경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심의위원 12명(4명 불참)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정희 과장, 김경두 사무관, 김현숙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백승석 계장, 이두형 계장이 배석하였다.

이번 심의는 예비 심사격으로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심사 대상은 총 18개소로 지난 1차 국가 중요농업유산 심의시 보류되었던 곳 중 7곳이 재신청하였

으며 신규로 11개소가 신청하였다. 그러나 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신청서류작성내용이 매우 미흡하거나 농업유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7곳을 제외하고 본회의에서는 11곳에 대해서만 심의하였다. 심의 방법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7분 동안 발표하고 3분 동안 심의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 2차 국가농어업유산 현장 심사 대상지역(6개소) ■

| 발표 순서 | 지 역 | 유산자원 | 특 징 |
|----------|-------|---------|--|
| 1 | 전남 신안 | 갯벌, 염전 | ▶ 전국 갯벌 면적의 15%를 차지하는 섬 갯벌(450ha)과 국내 최초 천일염 생산 염전(41.6ha) ▶ 훼손되지 않은 갯벌, 전통방식의 토관염 생산 |
| 2 | 전남 보성 | 계단식 차밭 | ▶ 계단식 차밭의 독특한 경관 연출, 경관가치 우수 ▶ 생명역동농법, 왕겨, 우렁이 농법 등 자연농법 사용 |
| 3 | 전남 구례 | 산수유 시목지 | ▶ 산수유 꽃 군락지와 낮은 돌담 등 경관 우수 |
| 4 | 전남 담양 | 대나무밭 | ▶ 전국 죽림면적의 26% 차지, 경관수려, 온실가스 흡수하여 환경보호 등 자원보전 필요성 큼 |
| 5 | 경남 남해 | 죽방렴 | ▶ 대나무 및 말뚝 등을 사용, 조류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원시어업(23개소) |
| 6 | 충북 제천 | 의림지 | ▶ 삼한시대에 축조한 농경문화의 발상지를 알려주는 저수지 (560ha) |

전남 신안의 갯벌·염전을 시작으로 보성 계단식차밭, 무안 회산백련지, 구례 산수유 시목지, 영광 염전, 화순 다랑이논과 붓도랑, 담양 대나무밭, 남해 죽방렴, 김제 벽골제, 순창 고뱅이어살, 제천 의림지 순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발표심사 후 심의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남해 죽방렴, 제천 의림지, 보성 계단식차밭, 구례 산수유 시목지, 담양 대나무밭, 신안 갯벌 총 6곳을 현지 실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제2차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2013.11.29)

심의를 마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민동명 사무관으로부터 세계 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과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보완 설명이 있었다. 농어업유산 지정관리기준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은 지정대상, 지정기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었다.

(3) 현장실사(2013.12.26-12.27, 2014.1.6-1.8)

지난 심의 결과에 따라 심사 대상 6곳에 대한 현장실사를 2013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1차), 2014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2차)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현장실사 위원단은 전경수 서울대 교수, 유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최종희 배재대학교 교수, 정기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학열 충남발전연구원 박사, 방미영 (사)한아연 부대표 총6명으로 구성하였다. 현장실사는 12월 26일에 경남 남해 죽방렴, 12월 27일에 충북 제천 의림지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장 확인과 담당 공무원, 해당 지역주민 및 농업유산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실사단과 면담 형태로 진행되었다. 2차 현장실사 위원단은 전경수 서울대 교수, 유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최종희 배재대학교 교수, 정기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 방미영 (사)한아연 부대표 6명으로 구성하였다. 현장실사는 2014년 1월 6일 전남 담양, 1월 7일 전남 구례·보성, 1월 8일 전남 신안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실사는 상기의 1차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현장조사 때,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 문제점이 나타났다. 어떤 지역은 주민들이 문화재지정으로 오해하여 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곳도 나타나, 앞으로 농업유산은 문화재와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장실사를 마친 후 조사에 참가한 심의위원들은 각각 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장실사단의 의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지역에 보완 조치를 요구하였다.

(4) 2014.2.13 회의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 실시한 농업유산 후보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심의가 2014년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5동 468호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심의위원 14명(2명 불참)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박선우 과장, 김경두 사무관, 김현숙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백승석 계장, 이두형 계장이 배석하였다.

전경수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하였기에 윤원근 부위원장의 주재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심의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차 국가 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동명 사무관의 추진 상황 보고와 심의 진행 방법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지정 신청을 포기한 충북 제천 의림지를 제외한 5곳에 대해서만 심의하기로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있어 국가 중요농업유산 선정 심의는 다음 심의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는 5개의 후보지에 대해서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의 적합성 여부만을 판단하였다. 남해 죽방렴을 시작으로 현장심사 종합의견서, 현장조사위원 보충 설명, 심의위원 질의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를 마쳤다.



제2차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2014.2.13.)

(5) 2014.6.10 회의

지난 2014년 2월 13일 심의위원회에서는 후보지역의 국가 중요농업유산이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 2014년 6월 10일 정부세종청사 5동 468호 회의실에서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참석자는 심의위원 12명(농촌진흥청 이상범 부장 대리, 안옥선 과장 참석)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박선우 과장, 김경두 사무관, 김현숙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백승석 계장, 이두형 계장이 배석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민동명 사무관으로부터 그동안 추진 경과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 심의가 진행되었다.

본 심의에 앞서 농업유산과 어업유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장 정리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박선우 지역개발과장의 설명이 있었다. 박선우 지역개발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의를 통해 농업·어업유산의 지정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아직 완전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며 해양수산부가 추후 어업유산 지정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한 상태” 라 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제도적 틀이 완성되면 어업유산은 그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심의에서는 전남 신안의 갯벌·염전과 경남 남해의 죽방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심의 진행은 전경수 위원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윤원근 부위원장이 맡게 되었다. 전술되었듯이 어업유산에 대한 심의가 보류되는 탓에 전남 보성 계단식차밭, 구례 산수유 시목지, 담양 대나무밭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여부가 논의되었다. 심의위원들은 3개 후보지역에 대해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보전·계승 가능성 등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타당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하였다.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후 심의위원 각자가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심의가 이어져 갔으며 참석한 모든 심의위원의 소견을 듣고 윤원근 부위원장의 주재로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결정을 위한 마지막 논의를 하였다. 심의위원들 간 약간의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심의 결과 전남 구례 산수유시목지와 담양 대나무밭 2곳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단 구례 산수유 시목지는 구례 ‘산수유 농업’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정하였다.



제3차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2014.6.10)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결정이 이루어진 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추진 가능한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대다수의 심의위원이 현재의 심의자료만으로는 세계 중요농업유산 신청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본 심의에서 나온 보완 요구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신청 후보지 결정에 대한 심의를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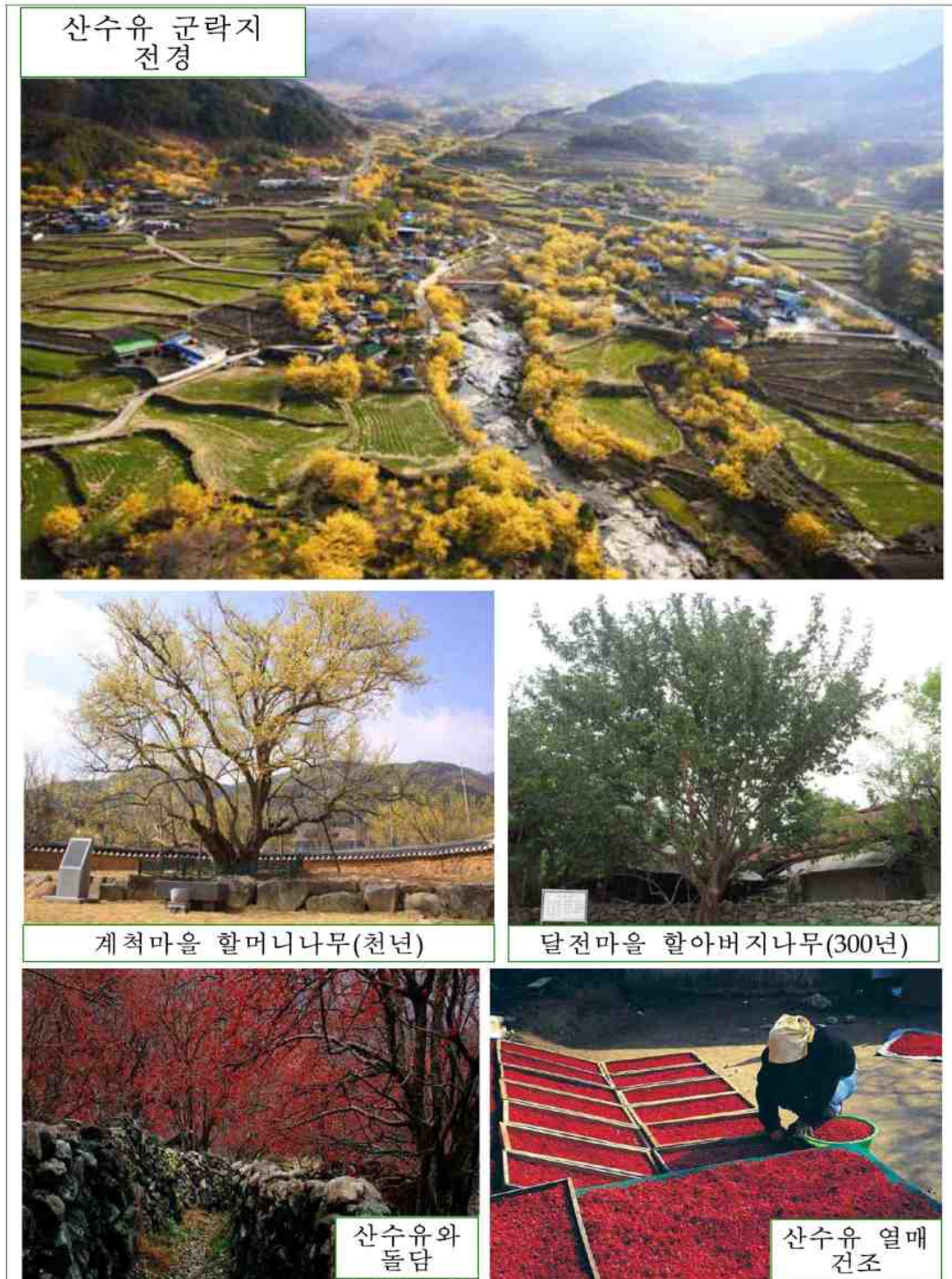
3.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3호, 4호 지정 공고(2014.6.3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4년 6월 30일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 제7조에 따라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3호 구례 산수유 농업, 제4호 담양 대나무밭을 지정 공고하였다. 구례 산수유 농업은 농경지와 마을 주변에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산수유를 재배하여 마을과 산수유가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산수유 군락지는 주변생태계를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돌담과 함께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담양 대나무밭은 마을 주변에 대나무 밭을 조성하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를 농기구나 생활용품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대나무 못자리, 시설하우스 등 대나무가 다양한 농기구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농업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구례 산수유 농업

| | | | |
|--|---------------------|-------|--------|
| 위 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일대 | | |
| 면적(수량) | 228ha | 가구/마을 | 952/48 |
| 대상 자원 | 산수유 군락지, 돌담, 전통농법 등 | | |
| 주 요 특 징 | | | |
| <p><개 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지가 부족한 지리산의 산간지역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재배한 산수유가 돌담과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 및 전통문화를 형성 ○ 산수유 열매는 약재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있으며, 경관가치가 뛰어나 축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p><가 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8ha에 달하는 면적에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조성된 산수유 군락지는 주택,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 ○ 산수유 군락지와 돌담은 생태계 다양성을 형성하며, 시비법, 수확 및 씨 제거방법 등 고유의 전통농법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 <p><역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8년 구례에 산수유조합 창립(동아일보 1938.9.30) ○ 수령 100년 이상 된 산수유 1,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 <p><대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년 이상 된 산수유나무 천여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산수유의 대표적인 생산지임.(전국 생산량의 53% : '12년) | | | |

< 구례군 산수유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6.15)

담양 대나무 밭

| | | | |
|--|---------------------------|-------|------|
|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향교리 일원 | | |
| 면적(수량) | 36.2ha | 가구/마을 | 83/2 |
| 대상 자원 | 대나무 밭, 농사도구 등 죽제품, 전통음식 등 | | |
| 주 요 특 징 | | | |
| <p><개 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나무 재배면적의 26%가 담양지역에 분포하며, 대부분의 농경지주변에 식재되어 생물다양성 및 독특한 경관을 형성 ○ 대나무와 죽순은 농기구,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었으며, 대나무와 관련된 문화를 형성 <p><가 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농기구와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로 이용되어 농업에 널리 활용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 계곡하부에 형성, 물을 함유하여 갈수기에 수자원으로 이용되었으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경관 형성함 ○ 죽초액과 대숯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와 토양개량 등 전통농사기술 <p><역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실록지리지에 담양 지역의 산업으로 왕대·오죽·화살대 등이 공물로 기록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대나무가 재배되었음을 확인 ○ 대나무로 다양한 죽제품이 생산되어 조선시대부터 전국 유일의 죽물시장이 조성되었음 <p><대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대나무밭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전국 면적의 26%), 국내 죽순의 최대 생산지임 ○ 대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재배기술, 농기구, 생활용품, 문화가 존재함. 무형문화재로 채상장, 참빗장이 죽세공의 명맥을 유지 | | | |

< 담양군 대나무 밭 >



삼다리 내다마을 대나무밭



대나무 이용 농작업



대나무를 이용한 농기구 정리



대나무밭 죽순



대나무밭 죽녹차 수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6.15)

4장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추진과정



4장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추진과정

1절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절차

1.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준

GIAHS 등재기준은 2010년 기존의 3가지 기준(시스템의 고유특성, 정황성, 프로젝트 수행성)에서 변경되어 5가지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

1. 식량·생계수단의 확보(Food and livelihood security)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
3. 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Knowledge systems and adapted technologies)
4. 사회제도·문화 습관(Cultures,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Agri-Culture))
5. 현저한 경관, 토지이용, 수자원 관리(Remarkable landscapes,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features)



Food security



Biodiversity

Knowledge
systems

Agri-culture

Remarkable
landscapes

2010년 GIAHS 등재기준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현재의 5가지 기준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세계 중요농업유산이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단순하면서 명확한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5가지의 등재기준은 당초의 등재기준에 포함되

었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시한 것이며, FAO와 GIAHS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등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재기준이 다소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기준은 아직은 다소 융통성이 있게 적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등재기준의 추가적인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준(당초)】

| 구 분 | 기 준 | 내 용 |
|---|---|--|
| I. 시스템의 고유특성 (systems criteria) | 1. 현저한 특징 (outstanding characteristics) |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 경관, 토지, 수자원의 관리 - 식량안전과 생계유지 - 사회조직과 문화 - 지식체계와 농가 단위의 기술 - 기타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된 재화와 용역 |
| | 2. 지속성의 역사 (proved history of sustainability) | - 경제적 활력 및 지속가능성 - 적응능력 - 인간 생태적 지속가능성 |
| | 3. 세계적 중요성 (global significance) | - 공공성 - 부가가치 |
| II. 정황성 (contextual criteria) | 1. 대표성 (representation) | - 지리적, 생태적, 제도적 대표성 및 영향력 - 전시효과 - 현저한 대표성 |
| | 2. 외부의 위협 (external threat) | - 외부적 위협의 존재 |
| | 3. 정책 및 개발 적용성 (policy and development relevance) | - 정책의 적용가능성 |
| III. 프로젝트 수행성 (project implementation criteria) | 1. 프로젝트 통합성 (project integration) | - 파트너십 |
| | 2. 공동 펀드의 능력 (co-finance potential) | - 공동 펀드 가능성 |
| | 3. 프로젝트 접근성 (project approach) | - 국제협약 - 프로그램적 접근 - 생태계적 접근 - 지역사회의 권한 - 분권화 |

2.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절차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받기 위한 절차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비해서는 복잡하지 않다. 2010년 이전 시범사업기간까지는 등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지만, 세계 중요농업유산 제도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에는 등재절차가 명확해지고 비교적 단시간에 등재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여전히 제도의 초기단계이므로 등재절차의 엄격성은 심하지 않은 편이며 FAO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13년 GIAHS 코디네이터(Coordinator)의 교체이후 등재절차를 다소 변경하려고 하고 있으나, 2013년 6월의 노토선언 이후 GIAHS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재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해당국가의 승인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해당국가의 승인절차 없이 개인(또는 단체, 기관)이 직접 FAO에 제출하는 것(선택 1)과 반드시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은 후 FAO에 제출하는 것(선택 2)으로 구분되어 있다.

(1) GIAHS 신청 및 등재절차

GIAHS 등재는 ① GIAHS로서의 잠재적 특징 파악, ② 제안서 작성(동태적 보전계획³⁰⁾ 포함), ③ FAO에 제안서 제출(1안 또는 2안), ④ 제안서 검토 및 현장 실사(필요할 경우), ⑤ GIAHS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

(2) 등재절차(1안)

1안은 해당국가 승인 없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를 FAO에 직접 제출하는 절차이다.

- 해당지역의 농업생물 다양성, 수준 높은 전통농업시스템 보유, 아름다운 농업경관 보유, 전통적 토지와 수자원 관리 지식, 기술 보유 등 잠재적 특징 조사, 파악

30) GIAHS Dynamic Conservation Plan

- GIAHS 동태적 보전계획을 포함한 제안서 작성
- 해당 국가 관련 부처를 통해 GIAHS 제안서를 FAO에 제출
- GIAHS 동태적 보전 계획을 위한 포괄적인 실행계획 수행

(3) 등재절차(2안)

2안은 우선적으로 해당국가 승인을 거쳐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를 FAO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절차이다

- 1안처럼 GIAHS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이 농업생물 다양성, 수준 높은 전통농업 시스템 보유, 아름다운 농업경관 보유, 전통적 토지와 수자원 관리 지식, 기술 보유 등 잠재적 특징을 조사 하고 GIAHS 동태적 보전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
- 해당지역의 원주민과의 갈등, 소유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가 필요
- 해당국가에서 GIAHS 동태적 보전 계획과 제안을 공증
- 해당국가의 담당기관이 공증된 제안서를 FAO에 제출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절차 ■

2절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1.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과정

(1)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가. 등재 준비위원회 추진 배경과 목적

2013년 1월 국가 중요농업유산이 선정된 직후,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추진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실무위원회 성격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제1호와 제2호 국가 중요농업유산이 선정된 2주 후에 바로 첫 번째 등재 준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공식적인 등재절차는 2년마다 개최되는 FAO GIAHS 국제포럼을 통해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되고 등재 인증서의 수여식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3년 1월에 GIAHS 등재 준비를 시작한 우리나라로서는 2013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개최되는 FAO GIAHS 국제포럼에 참여해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등재를 추진한 경험도 없었고 등재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 등재 준비위원회의 주요 활동

① 제1차 등재준비위원회 회의(2013.1.21)

1차 회의³¹⁾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등재준비위원회의 활동방향, 역할분담과 FAO 본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채널 결정 등 전반적인 등재 추진과정에서 해야 할 업무와 주요 일정계획 등을 협의·결정하였다. 1차 회의를 통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과정의 채널을 등재 준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완도와 제주도 유산의

31) 1차 회의는 2013년 1월 21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준비위원회 참석자는 윤원근 교수(위원장/ 협성대), 김정희 과장, 김경두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박윤희 박사(농어촌연구원), 김상범 박사(농진청), 윤철원 주무관(제주도), 황길식 대표(명소 IMC), 노정호 단장, 백승석 계장, 이두형계장(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하였다.

특성을 고려하여 농토목, 생태, 문화유산 등재 경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보강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3월까지 등재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5월에는 FAO GIAHS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발표함과 동시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년 말까지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여 향후 준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1차 회의(2013.1.21)

② 제2차 등재 준비위원회 회의(2013.1.29)

2차 회의³²⁾는 준비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원들의 현장 확인을 겸하여 청산도 현지에서 개최되었다. 등재 준비위원회의 2차 회의는 준비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완도와 제주 두 지역의 등재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자체 TFT 관계자 등도 참여함에 따라 대규모 자문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추진일정에 따라 청산도 구들장 논 등재신청서 초안이 발표되었고, 제주 밭돌담은 등재신청서 작성 준비 계획이 발표되었다. 1차 회의에서 지적되었던 농토목, 생태, 세계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로

32) 2차 회의는 2013년 1월 29일(화), 완도군 청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준비위원회 참석자는 윤원근 위원장(협성대), 김정희 과장, 김경두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김선주 교수(건국대), 오충형 교수(동국대), 최종희 교수(배재대), 박윤희 박사(농어촌연구원), 김상범 박사(농촌진흥청), 강승진 박사(제주발전연구원), 황길식 대표(명소 IMC), 백승석 계장, 이두형 계장(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국장과 농촌진흥청, 제주도청, 완도군청, 완도팀과 제주팀 자체 TFT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위촉된 위원들이 참여하여 각 전문분야별 검토회의를 거쳤다. 그후에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종합토론을 통해 완도와 제주 두 지역의 등재신청서의 작성방향과 보완 필요사항 등 세부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2차 회의를 통해 청산도 구들장 논의 경우 핵심자원과 주변자원의 연계방안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제주 밭돌담의 경우, 문화유산에 가까운 등재신청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밭돌담과 농업시스템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준에 맞는 등재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상서리와 부흥리 지역의 청산도 구들장 논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구들장 논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등재신청서 작성의 세부적인 전략과 등재신청서의 공간적, 내용적 범위 등이 검토되었다.



청산도 구들장 논 현장답사(2013.1.29)

③ 제3차 등재 준비위원회 회의(2013.2.7)

3차 회의³³⁾는 2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완도 구들장 논에 집중하여 준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구들장 논의 등재신청서, 영문 명칭과 등재신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구들장 논의 고유명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공간적 범위도 청산도 전체로 설정하여 구들장 논을 중심으로 주변 연계자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구들장

33) 3차 회의는 2013년 2월 7일(목),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준비위원회 참석자는 윤원근 위원장(협성대), 김정희 과장, 김경두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김선주 교수(건국대), 오충형 교수(동국대), 최종희 교수(배재대), 박윤희 박사(농어촌연구원), 김상범 박사(농촌진흥청), 강승진 박사(제주발전연구원), 황길식 대표(명소 IMC), 김창균 계장(완도군), 윤철원 주무관(제주도), 백승석 계장, 이두형 계장(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하였다.

논의 독특한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등재신청서 준비를 진행하였다. 또한 여전히 미흡한 종다양성 및 생물다양성의 설명부분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등재신청서의 목차와 세부내용, 전개 순서, 표현기법에 이르기까지 등재신청서의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등재신청서 외에도 2013년 5월 FAO GIAHS 국제포럼에서 발표하게 될 청산도 구들장논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포맷과 세부적인 구성체계 및 CG활용, 표현기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가 진행되었다.

④ 제4차 등재 준비위원회 회의(2013.2.27-28)

4차 회의³⁴⁾는 2차 회의와 유사한 형식으로 제주 밭 돌담 현장 확인을 위해 제주도에 서 개최하였다. 4차 회의는 현장 확인과 함께 일본 유엔대학과 일본 농림성 등에서 많은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일본에서 참석한 외부 전문가로는 일본 유엔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and Peace (UNU-ISP)) 코디네이터(Coordinator)인 나가타 아키라(Nagata Akira), Liang Luohui, Evonine Yiu와 일본 농림성의 Kenta Suzuki 과장보 그리고 사가대학의 이응철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유엔대학의 전문가들은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기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들이다. 이번 회의는 이들과의 세미나 형태로 추진되어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완도와 제주 두 지역의 등재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제주와 완도 두 지역의 등재신청서에 대해 먼저 발표하고 이어 일본에서 방문한 전문가들로부터 일본과 중국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경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제주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에 가까운 형태로 등재신청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지적받고,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농업시스템이 부각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34) 4차 회의는 2013년 2월 27일(수)과 28일(목) 2일간 제주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준비위원회 참석자는 윤원근 위원장(협성대), 김경두 사무관, 김현숙 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 김선주 교수(건국대), 오충형 교수(동국대), 최종희 교수(배재대), 박윤희 박사(농어촌연구원), 김상범 박사(농촌진흥청), 강승진 박사(제주발전연구원), 황길식 대표(명소 IMC), 백승석 계장, 이두형 계장(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박병수 과장, 김창균 계장, 김란 주무관(완도군), 고복수 국장, 김충의 과장, 조영필 계장, 윤철원 주무관(제주도) 등 제주와 완도의 행정공무원들과 노정호 단장(농어촌공사), 양영오 원장(제주발전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외부 관계자 포함하여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제주 밭돌담의 특성상 등재 신청의 공간적 범위를 핵심 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청산도 구들장 논에 대해서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검토하였다.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절차와 FAO GIAHS 국제포럼 등의 일정을 감안해서 이후 등재신청서 내용을 축약하여 일본에서 개최되는 FAO GIAHS 국제포럼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파일작업에 집중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다음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제주 밭담 현장답사(2013. 2.27)

⑤ 제5차 등재 준비위원회 회의(2013.3.16)

5차 회의³⁵⁾는 먼저 2013년 5월 FAO GIAHS 국제포럼에서 발표할 완도와 제주 2개 지역의 영문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한 시연이 있었다. 발표 이후 최종 등재 신청 명칭

35) 5차 회의는 2013년 3월 16일(토) 한국농어촌공사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준비위원회 참석자는 윤원근 위원장(협성대), 김정희 과장, 김경두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김선주 교수(건국대), 오충형 교수(동국대), 최종희 교수(배재대), 박윤희 박사(농어촌연구원), 김상범 박사(농촌진흥청), 강승진 박사(제주발전연구원), 황길식 대표(명소 IMC), 백승석 계장, 이두형 계장(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전경수 교수(서울대)도 참석하여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와 연계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해당 지자체에서 김충의 과장, 김기택 주무관(제주도), 김창균 계장(완도군)도 참석하였다.

의 선정과 프레젠테이션 파일내용에 대한 수정방향부터 세부적인 문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FAO GIAHS 국제포럼에서 발표하기위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출하고, 4월말까지 등재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완도와 제주가 이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FAO GIAHS 국제포럼이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개최되므로 FAO GIAHS 국제포럼 전후로 FAO 담당자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검토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문요청 계획도 검토하였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5차 회의(2013.3.16)

다. 등재 준비위원회의 성과와 시사점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추진과정에서 등재 준비위원회는 한시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처음으로 추진하는 완도와 제주도 두 지역의 실무팀을 지원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5차례에 걸친 회의 과정에서 등재신청서의 세부 문구부터 FAO GIAHS 국제포럼 발표 자료의 세부 내용 검토에 이르기까지 국가 중요농업유산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능을 담당하였다. 시간적인 제약과 효율적인 등재 추진을 위해 당초 위촉된 등재 준비위원회의 위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로 국가 중요농업유산 심의위원회의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도 위촉해 등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

력으로 짧은 시간동안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를 돕는 실무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준비위원회가 활동한 3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청산도와 제주도 2개 지역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와 FAO GIAHS 국제포럼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FAO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할 수 있었다. 단기간의 괄목한 만한 성과와 성장이었다. 특히 청산도에 비해 준비가 늦었던 제주도의 경우, 시간적 제약 등으로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당초의 우려를 뛰어넘었다. 청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행사례를 빠르게 학습하며 준비위원회의 자문, 검토 등을 통해 세계 중요농업유산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되며 준비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완도팀과 제주도팀의 TFT 등 각 지자체 내부의 역동적이고 순발력 있는 대처 능력도 뛰어났지만, 등재 준비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돌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가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2) 외국 전문가들과의 협력 및 교류, 국제회의 참석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추진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등 외국 전문가들과의 협력 및 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미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을 통해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추진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추진절차 및 등재신청서의 작성방법과 등재신청서의 세부내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 학술회의와 개별적인 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였다.

가. 일본 유엔대학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2013.2.27~28, 한국 제주도, 완도)

2013년 2월 일본 유엔대학 관계자들의 방문계획과 맞추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4차 회의)를 겸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일본 유엔대학은 일본이 2011년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연구진들로 일본의 노토(能登)지역과 사도시(佐渡市)의 등재 준비부터 등재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FAO 본부의 GIAHS 담당자들과도 교류와 협력도 빈번한 상황이었다. 또한 유엔대학의 다케우치 교수는 GIAHS 학술위원회의 주요 인사이기도 하여 유엔대학 전문가들이 FAO의 GIAHS 등재기준 개정작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엔대학

전문가들의 한국 방문은 GIAHS 등재신청서를 준비 중이었던 완도와 제주도로서는 적절한 시기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본 유엔대학 관계자들은 일본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농업유산 관련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2년 3월 우리나라가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를 만든 과정부터 한국의 농업유산 관련 정책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고, 이번 방문도 유엔대학에서 추진 중인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제주도와 청산도의 현황을 시찰하기 위한 성격의 방문이었다. 유엔대학 관계자들로서는 농업유산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한국방문이었다. 2012년부터 유엔대학과 교류가 있었던 관계로 사전에 방문정보를 입수하여 방문일정에 맞추어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청산도와 제주도의 GIAHS 등재신청서에 대한 검토와 수정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GIAHS 등재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세미나 이후에는 제주도와 청산도 농업유산 현장 견학을 통해 실제 농업유산의 생생한 실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 제1호와 제2호 국가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현장견학 전후로 일본 유엔대학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조언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 유엔대학 관계자들과의 상호협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이후 INWEPF 농업유산 국제세미나,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워크숍, ERAHS 결성 등으로 이어지면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과정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나. FAO GIAHS 국제포럼(2013.5.29~5.31, 일본 이시카와현)

2013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 일원에서 2013년 FAO GIAHS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청산도와 제주도의 사례발표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 완도군, 농진청, 농어촌공사, 한라일보 등 관계공무원, 전문가, 언론,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17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FAO GIAHS 국제포럼에 참여하였다.

FAO GIAHS 국제포럼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 : 1명
 - 김경두(지역개발과 사무관)
- 한국농어촌공사 : 3명
 - 백승석(지역개발지원단 계장)
 - 임상봉(농어촌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윤희(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립농업과학원: 1명
 - 김상범(국립농업과학원 책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 6명
 - 김충의(친환경농정과 과장), 윤철원(친환경농정과 주무관)
 - 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유원희(제주 e-국제교류센터 원장), 강시영(한라일보 국장), 김지택(문화기획 폐송 대표)
- 완도군 : 6명
 - 김종식(군수)
 - 한희석(비서실장), 박병수(친환경농업과 과장), 김창균(친환경농업과 계장)
 - 황길식(명소 IMC 대표), 이용성(명소 IMC 과장)

2년마다 개최되는 FAO GIAHS 국제포럼은 세계 각국의 농업유산 지지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만나서 농업유산의 역동적 보존 방법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인류의 보편적 유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영역의 주요 활동가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파트너십의 증진” 이란 주제 아래 보전노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환경 문제 및 의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물론, 소규모 가족농과 과학계 사이의 대화 증진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 FAO GIAHS 국제포럼과 병행해서 GIAHS 집행위원회가 개최되고 이 집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인정을 추인하고 인증서를 전달하게 된다. 2013년 이시카와현에서 개최된 FAO GIAHS 국제포럼에서는 주최국인 일본의 3개 지역과 중국의 2개 지역, 인도의 1개 지역이 새롭게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되어 등재 지정서를 받게 되었다.

FAO에서도 우리나라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FAO GIAHS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사례발표를 하는 것이 등재과정에 유리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므로 조속한 등재를 추진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로서는 FAO GIAHS 국제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특히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은 김종식 전(前)완도군수가 직접 포럼에 참석하여 청산도 구들장 논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였고, 제주도 밭돌담은 제주 대표단의 일원인 제주 e-국제교류센터 유원희 원장이 사례발표를 담당하였다. 두 지역 모두 구두발표 외에도 포스터 발표를 통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참석한 각국의 대표단들에게 우리나라 제1호와 제2호 국가 중요농업유산을 홍보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다. 처음으로 참석한 FAO GIAHS 국제포럼 기간 중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전문가와 교류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이미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의 경험과 보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며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유일하게 국가단위의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KIAHS)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가차원의 농업유산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포럼기간 동안 KIAHS 홍보 브로셔를 비롯한 청산도와 제주도의 홍보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GIAHS 관련 첫 국제무대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고, 참석한 FAO 및 각 국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마치게 된다.

완도와 제주도 참가자 모두 일본과 중국 및 FAO 담당자와 개별 접촉을 통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다각도의 협력과 조언을 받는 등 포럼기간 내내 분주한 시간이었으며, 청산도와 제주도 모두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손색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FAO 실무 담당자들에게서도 연내 등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대표단은 조속한 등재를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 FAO 본부측에서는 이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우리나라 두 지역의 등재신청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으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등재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약간의 혼선은 있었으나, 연내 등재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분위기였다.



FAO GIAHS 국제포럼(2013.5.29)



FAO GIAHS 국제포럼(2013.5.29)



FAO GIAHS 국제포럼 노도반도 견학(2013.5.31)

다. INWEPF 농업유산 국제세미나(2013.6.19~20,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INWEPF³⁶⁾ 국제워크숍이 2013년 6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농어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INWEPF 농업유산 국제세미나는 “아시아의 논농업과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의 연계방안(International workshop on GIAHS of paddy farming in Asia)”이란 주제로 한국과 일본, 태국, 방글라데시 4개국 50여 명의 국내외 농업·농촌 전문가 및 정부 정책담당자, 그리고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논농업과 관련된 농업유산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논농업 분야에서 농업유산제도를 활용하여 논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논농업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을 찾아보기위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36)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Water & Ecosystem in Paddy Fields)의 약자로서 제3차 세계물포럼(2003년 3월, 일본 교토) “농업장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의 후속조치로 일본에서 아시아 몬순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정책수행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하여 일본과 한국 주도의 “논 농사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2월 설립되었다. 또한 아시아 논 농업국가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으로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필리핀, 이집트, 스리랑카, 파키스탄의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NWEPF 한국위원회가 Working Group 2³⁷⁾(WG-2)의 의장국으로서 제3기(2013-2015) 출범과 함께 3년간 활동계획으로 세계 중요농업유산과 연계하여 논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농업유산으로서의 논농업”에 대한 국가별 사례보고서 발간을 제안하여 제9차 INWEPF 운영위원회(미얀마)에서 채택되었다. 2012년 11월 이후 각 회원국의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국가별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3년 동안 관련국들의 협력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계 물포럼(World Water Forum) 등에 그 결과를 홍보하기로 하는 장기 플랜의 첫 번째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KIAHS)의 도입과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청산도와 제주도 및 후보지역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와 추진성과 등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을 홍보하여 각 국가의 참여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논농업과 관련된 세계 중요농업유산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논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유산의 보전 필요성을 국내,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INWEPF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아시아지역 확대를 위해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간 협의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세미나 다음 날에는 청산도를 방문하여 제1호 국가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도 활용하였다.

37) 기구의 효율적인 활동과 성과도출을 위해 3개의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WG1은 말레이시아, WG3은 일본이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INWEPF 농업유산 국제세미나 프로그램

| 일시 | 프로그램 |
|-------------|---|
| 14:00~14:20 | ○ 개회행사 사회 : 이성희 박사 |
| | 개회사 - 농림축산식품부 |
| | 환영사 - 농어촌연구원 |
| 14:20~15:40 | ○ 발표 1 : 논농업 보전과 GIHAS 활용 |
| | 1-1 우리나라의 농업유산제도 (농어촌연구원, 박윤희 박사) |
| | 1-2 일본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록 제도 및 사례(유엔대학교, 나가타 교수) |
| 15:40~16:00 | ○ 휴식 |
| 16:00~17:20 | ○ 발표 2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유산 |
| | 2-1 태국에서 농업유산으로서 논농업 (태국왕립관개청, 바손 위원장) |
| | 2-2 방글라데시의 농업유산과 식량생산의 지속가능성 (방글라데시 미작연구소, 몰라 박사) |
| 17:20~18:00 | ○ 토론 : GIAHS를 활용한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 방안 협성대 윤원근 교수 일본 농림성 와다나베 과장보, 태국 왕립관개청 폰사콘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경두 사무관 |

라. FAO GIAHS 담당자의 방문 및 현장실사(2013.6.2~6.6, 한국 제주도, 완도)

2013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FAO GIAHS 국제포럼을 마치고 이 행사에 참여했던 FAO GIAHS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청산도와 제주도의 현장을 확인시키고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검토를 위해 초청하였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 지자체가 공동으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였다.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FAO 학술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등재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당초 4월에 FAO 담당자에게 청산도와 제주도의 등재신청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했으나, FAO 담당자의 혼선으로 공식적인 접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월말에 공문과 함께 국제우편을 통해 다시 제출하였다. 당초에는 가볍게 FAO의 공식적인 현장실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본에서 귀국하는 편에 FAO GIAHS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설명 형식으로 추진하였으나, FAO 담당자 코하프칸 의장(Koohafkan Parviz), 메리 제인(Mary Jane Ramos dela Cruz) 기술담당관(Technical officer)들은 이번 방문이 FAO의 공식적인 현장실사로 생각하고 있

었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 실사가 현장실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공식적인 등재신청서 제출보다 앞서 현장실사를 먼저 받게 되는 해프닝이기도 하였다. FAO의 GIAHS 인정을 위한 체계적이지 못한 등재 과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였다.

현장실사 참석자

- FAO GIAHS 담당자 : 2명
 - Mr Koohafkan(의장), Ms MaryJane(기술담당관)
- 농림축산식품부 : 2명
 - 김정희(지역개발과 과장), 김경두(지역개발과 사무관)
- 한국농어촌공사 : 3명
 - 백승석(지역개발지원단 계장)
 - 임상봉(농어촌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윤희(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 9명
 - 김충의(친환경농정과 과장), 조영필(친환경농정과 계장), 윤철원(친환경농정과 주무관)
 - 양영오(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유원희(제주 e-국제교류센터 원장), 강시영(한라일보 국장), 김지택(문화기획 메송 대표), 김환철(사진작가)
- 완도군 : 8명
 - 서은수(전남도청 농업정책과 과장), 김민준(전남도청 농업정책과 주무관)
 - 박병수(친환경농업과 과장), 김창균(친환경농업과 계장), 김란(친환경농업과 주무관)
 - 황길식(명소 IMC 대표), 이용성(명소 IMC 과장), 정재훈(명소 IMC 대리)

FAO의 현장실사 과정이 전문적인 분야별 심사라기보다는 FAO 담당자들의 현장 확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보다 먼저 GIAHS 등재를 추진했던 일본의 현장실사에 대해 추후 문의해 본 결과, 우리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실사에서는 세부적인 검토보다는 FAO 담당자들이 유산 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등재조건을 재확인 하는 수준으로 현장실사가 진행되었다.

제주도 현장심사 둘째 날 국내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등재가능성이 높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FAO GIAHS 담당자들로부터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계획(Conservation Action Plan)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주도 현장심사를 마친 후, 배편으로 완도로 이동하여 다음날 청산도 구들장

논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었다. 청산도 구들장 논인 경우, 등재신청서가 기술적·공학적 측면에 치중된 점을 지적하고 청산도가 가진 사회·문화적 특성이 구들장 논과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FAO 담당자들로부터 제주도와 청산도 모두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과의 협의에서도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이 타 국가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과 제도마련에 의미를 부여하고, 청산도와 제주도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가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³⁸⁾. 조속한 등재를 위해 FAO 주관 GIAHS 관련 세미나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받았고 이와 함께 한국정부에서 차기 FAO GIAHS 국제포럼의 개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FAO GIAHS 담당자들의 방한기간 중 3일간의 짧은 시간동안 제주도와 청산도 두 후보지역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FAO의 현장실사를 받게 되었지만, 정부 대표와의 면담도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현장실사의 과정을 마쳤다.



GIAHS 담당자 현장실사(2013.6.3~6.5)

38) 이 당시까지만 해도 2013년 8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FAO 주관 GIAHS 세미나가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세미나와 연계해서 GIAHS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확정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세미나가 취소되고, FAO GIAHS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당초 목표였던 2013년 연내 등재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마.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 워크숍(2013.8.25~28, 한국 제주도, 완도)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개최되었던 FAO GIAHS 국제포럼에서 한·중·일 3국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3년 8월 25일(일)부터 8월 28일(수)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제주도와 완도에서 개최하였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등재준비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등재를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중국과 일본의 관련 전문가들에게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관련 정보와 등재신청서 작성 등에 많은 도움을 받는 등 일본 유엔대학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중·일 워크숍 발표자 및 주요 참석자(2013.8.25)

국제 워크숍은 일본 유엔대학 다케우치 부학장의 아시아에서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발 전방안에 대한 기초연설과 이미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에 대한 소개와 보전관리계획에 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뒤를 이어 한·중·일 3국간의 농업유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3국의 농업유산 실태에 대한 상호학습의 장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관계 전문가들 중 중국의 리웬화(Li Wenhua) FAO GIAHS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학술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 5월 FAO GIAHS 국제포럼에서의 발표에 이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 전문가들에게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발돌담의 현장을 확인시키고, 두 지역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점검과 검토를 받고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과정에 지원을 받기 위한 워크숍이었다.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워크숍 개최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농업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우수성을 중국과 일본의 관계 전문가들에게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한 행사였다.

학술세미나를 마치고 한·중·일 전문가 그룹은 만찬을 한 후 광주공항을 경유하여 완도로 가서 숙박을 하였다. 행사 셋째날인 8월 27일에는 완도항에서 선박편으로 청산도에 입도한 후, 오전에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구들장 논 지역을 견학하였으며 오후에는 유엔대학의 다케우치 부학장의 특강과 지역주민들과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청산도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완도로 돌아와 전라남도 부지사 및 완도 군수 등이 참석한 만찬에 참석하였다. 청산도에서 구들장 논 의 현장견학을 통해 제1호 국가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호평과 함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날인 8월 28일에는 이른 아침 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여 해녀박물관, 성읍민속마을 등 제주 문화관광지를 둘러 본 후 제주공항에서 각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한·중·일 농업유산 워크숍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중·일 국제 워크숍은 농업유산과 관련된 3국간의 공식적인 협력의 장이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 8월 27일 청산도에서의 현장견학을 마치고 완도에서 개최된 국제워크숍의 마지막 만찬을 겸한 의견교환회 행사에서 ‘청산도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청산도 선언’은 농업유산과 관련된 한·중·일 3국의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교류를 위해 연구협의회인 ERAHS(East Asia Research association for the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발족을 담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연구협의회에 대한 의견은 8월 25일 국제 워크숍 첫날 종합토론에서 중국 과학원의 민칭웬(Min Qingwen)교수가 제안하였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었다. 향후 ERAHS의 주요임무는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3국간의 공동연구 추진이며, 연구결과의 보급·확산,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 등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 국가별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연차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제1회 ERAHS 국제 심포지엄은 중국 해남도³⁹⁾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39) 1차 실무회의때 까지만해도 중국 해남도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남도에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나 중국 국가 중요농업유산이 없어서 제1회 ERAHS 국제 콘퍼런스 개최이후에는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강소성 흥화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 시 간 | 프로그램 | |
|-------------|------|---|
| 10:00-10:30 | 개회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제주발전연구원장) ● 환영사(제주도 부지사) ● 환영사(완도군수) |
| 10:30-11:00 | 기조연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itional Agriculture and Development of GIAHS in Asia - 다케우치 부학장(유엔대학) |
| 11:00-12:00 | 주제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농업유산 사례발표 및 액션플랜 - 1 - 제주 밭담농업시스템과 액션플랜(강승진 박사) - 중국지역의 농업 유산과 액션 플랜(Dr. Liu Moucheng) - 중국지역의 농업 유산과 액션 플랜(Dr. He Lu) |
| 12:05-13:30 | 오찬 | |
| 13:30-15:00 | 주제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농업유산 사례발표 및 액션플랜 - 2 - 청산도 구들장 논시스템과 액션플랜(황길식 박사) - 사도지역의 농업 유산과 액션 플랜(와타나베 과장) - 노토지역의 농업 유산과 액션 플랜(카네다 실장) - 아소지역의 농업 유산과 액션 플랜(이즈노 참사) - 쿠니사키지역의 농업 유산과 액션 플랜(리키토쿠 심의감) |
| 15:00-15:20 | 휴식 | |
| 15:20-16:30 | 종합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모색 - 좌 장 : 윤원근(한국농어촌유산학회장) - 토론자 : 閔慶文박사(IGSNRR), 나가타 학술부장(UNU), 김상범박사(농촌진흥청), 박윤희박사(농어촌연구원), 유학열박사(충남발전연구원), 이용철교수(일본 사가대학) |

바. ERAHS(동아시아 농업유산 연구협의회) 1차 실무그룹회의(2013.10, 중국 북경)

2013년 8월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세미나 과정에서 청산도 선언을 통해 구체화된 ERAHS의 설립준비는 세미나 이후 각 국가의 중앙정부(농림부)의 후원을 받게 되고,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10월 북경 중국과학원에서 제1차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 meeting)를⁴⁰⁾ 개최하고 ERAHS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각 국가별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ERAHS를 통해 한·중·일 3국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확산과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청산도와 제주도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한 한·중·일 3국 전문가들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고, 조속한 등재를 위한 협조요청도 지속되었다. ERAHS의 구성원 중 핵심 멤버들이 FAO GIAHS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으로 다수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의 등재가 시급했던 우리나라로서는 ERAHS를 통해 FAO GIAHS 핵심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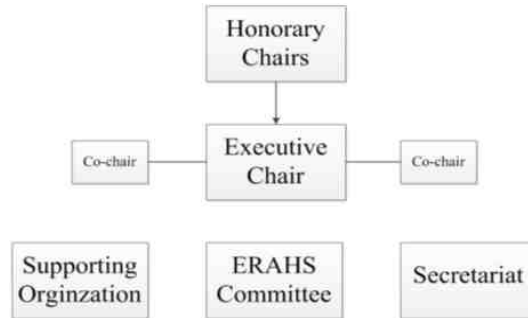
1차 실무그룹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농업유산 연구자들이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중요농업유산 제도를 확산하고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활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각 국가별 회장단과 사무국장을 선임하였다. 각 국가별로 중앙정부가 후원자로 참여하게 되어 순수 민간 차원의 성격보다는 어느 정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FAO 본부에서도 ERAHS의 설립과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고 중국 강소성 흥화시에서 개최된 제1차 ERAHS 국제 콘퍼런스에도 FAO 본부와 FAO 중국 지역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ERAHS를 통해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확산과 동아시아지역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핵심적인 주체로 역할하고자 하는 의지도 재차 표명되었다. FAO 본부에서 ERAHS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있었지만, 향후에도 아태지역의 GIAHS 확산과 GIAHS로 등재된 이후의 등재지역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40) 주최국인 중국은 농림성 담당공무원들과 GIAHS 학술위원회 위원장인 Li Wenhua 교수, 민칭웬(Min Qingwen) 교수 등이 참여했고, 일본에서는 유엔대학의 나가타 아키라(Nagata Akira)와 Liang, 가나자와대학의 나카무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은 한국농어촌유산학회장인 협성대 윤원근교수와 농어촌연구원 박윤희박사가 참석하였다.

ERAHS 1차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구성된 조직도와 각 국가별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 ERAHS 조직 구성도



○ ERAHS 명예회장단

- Li Wenhua, 중국과학원 교수, GIAHS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 Kazuhiko Takeuchi, UNU 부총장 ,GIAHS Scientific Committee 위원

○ ERAHS 회장단

- 한국 : 윤원근 교수(협성대,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회장)
- 중국 : Min Qingwen 교수(IGSNRR 학장)
- 일본 : Koji Nakamura 교수(가나자와대학)

○ ERAHS 운영위원회 구성 : 국가별 5명, FAO, UNOSD, UNU, INBAR 등 기관별 1명의 위원으로 구성

○ ERAHS 국가별 간사(사무국장)

- 한국 : 박윤희 박사(농어촌연구원)
- 중국 : YANYING BAI 박사(중국 과학원)
- 일본 : NAGATA AKIRA(유엔대학)

○ ERAHS 후원기관

- China Ministry of Agriculture
- Japan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Chinese Academy of Sciences
-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 United Nations Offi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OSD)
- China Agricultural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xchange

사. FAO GIAHS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2013.11.12~13, 태국 방콕)

2013년 5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개최된 FAO GIAHS 국제포럼에 우리나라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한 이후 FAO 관계자들은 한국 대표단이 향후에도 FAO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GIAHS의 확산과 상호 협력, 홍보에 참여해 주길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2013년 5월 30일 FAO GIAHS 국제포럼에서의 발표와 6월초 포럼 직후 방문한 FAO 관계자의 예기치 않은 현장실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됨에 따라 2013년 연내에 무난하게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9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예정이던 GIAHS 관련 세미나와 연계하여 청산도와 제주도의 GIAHS 인증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과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GIAHS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학술위원회를 병행개최해서 GIAHS 인증을 확정하는 방안을 두고 FAO와 농림축산식품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FAO 코디네이터로 마사히토 에노모토씨가 임명되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GIAHS 등재과정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로서는 연내 등재가 목표였던 상황이었으므로 GIAHS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청산도와 제주도의 농업유산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고 조속한 등재를 위해 FAO 관계자들과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일정과 추가적인 보완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GIAHS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는 코하프칸 의장, 메리 제인 기술담당관(Technical Official), 마사히토 에노모토 코디네이터(Coordinator), 히로유키 코누마(FAO 아태지역 부국장)등 FAO GIAHS 담당자와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부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몰디브, 몽고, 스리랑카, 피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국 정부대표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FAO본부의 GIAHS 담당자 등이 GIAHS 실행체계와 다양한 발전전략과 아젠다 등을 발표하고, GIAHS 등재기준 및 등재절차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 국가의 향후 GIAHS 등재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각 국가에서 GIAHS 등재를 위한 실무적인 안내와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미 GIAHS로 등재된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대표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소개와 보전관리계획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또한 참가한 국가별로 GIAHS 등재를 추진 중인 후보지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미 GIAHS로 등재된 국가와 현재 등재를 추진 중인 국가 간에 정보 교류와 협력 및 향후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와 확산을 위한 협의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FAO GIAHS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회의 주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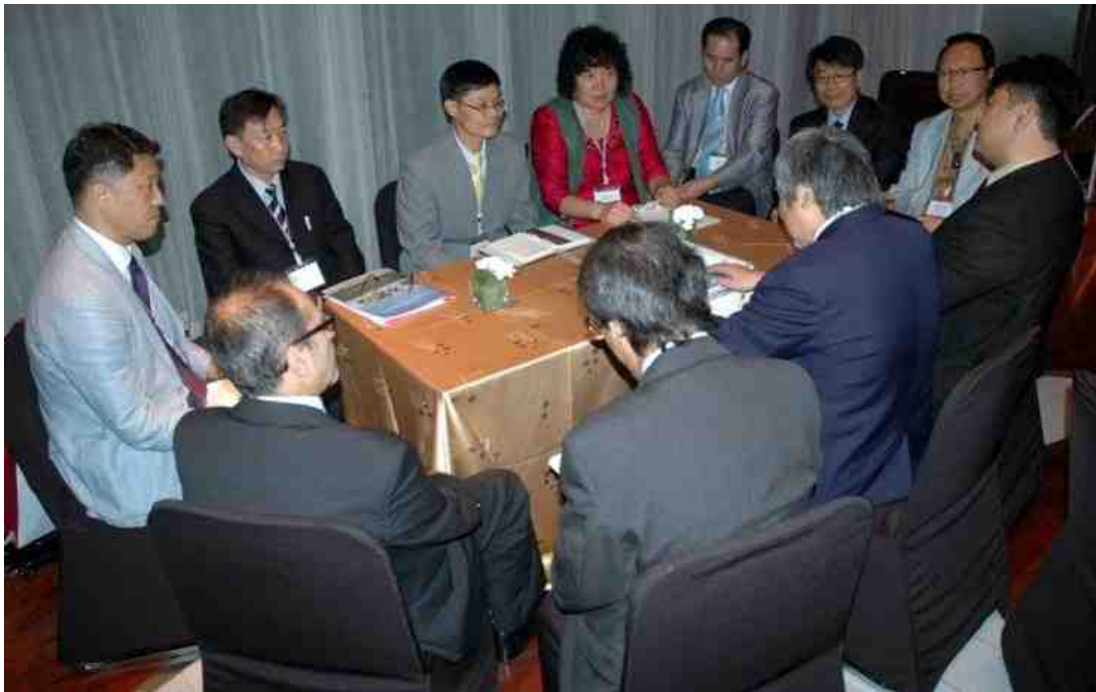
| 일 시 | | 내 용 |
|-----------------|---------------|-----------------------------|
| 2013. 11. 12(화) | 09:00 ~ 10:30 | 개회 및 GIAHS 설명 |
| | 11:00 ~ 12:30 | GIAHS 등재국 현황설명(중국, 일본) |
| | 14:00 ~ 17:00 | GIAHS 등재국 현황설명(필리핀, 인도, 기타) |
| | 17:00 ~ 17:30 | GIAHS 사무국 면담(우리나라 단독) |
| 2013. 11. 13(수) | 09:00 ~ 10:00 | GIAHS 인정을 위한 기준, 절차와 가이드라인 |
| | 10:30 ~ 13:00 | 참가국 농업유산 발표(우리나라 발표) |
| | 14:00 ~ 15:30 | 향후 발전방안 및 종합토의 |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18개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명이 대거 참석⁴¹⁾하였으며, 중국과 일본 등 이미 등재된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청산도와 제주도의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참가국들과의 발표내용과는 현격한 수준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조기 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41) 공식적인 정부대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민동명 사무관,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준비위원회 위원장 윤원근 협성대학교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준비위원회 위원인 농어촌연구원 박윤희 박사 3명이 참석하였으나, 청산도 2명과 제주도 대표단 4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대표단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대규모 대표단의 참석은 조기 등재를 추진하고 있었던 FAO 담당자측의 요청사항이기도 하였다.



FAO GIAHS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방콕, 2013.11.13.)



FAO 본부 및 아태지역 담당자들과 한국대표단과의 공식 면담(2013.11.12)

FAO GIAHS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 : 2명
 - 민동명(지역개발과 사무관)
 - 윤원근(등재준비위원회 위원장, 협성대학교 교수)
- 한국농어촌공사 : 1명
 - 박윤호(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 4명
 - 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유원희(제주 e-국제교류센터 원장), 김지은(한라일보 기자), 김지택(문화기획 폐송 대표)
- 완도군 : 2명
 - 박병수(친환경농업과 과장)
 - 황길식(명소 IMC 대표)

그러나 갑작스럽게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코디네이터가 교체되고 신임 코디네이터가 기존의 GIAHS 등재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였다. 신임 코디네이터는 농업유산 지역의 보전관리계획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두 지역에 대해서도 등재 신청서외에 별도의 보전관리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2013년 말까지 완료하는 목표는 어렵게 되었고 2014년에도 GIAHS 인증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공식적인 GIAHS 인증절차인 FAO GIAHS 국제포럼을 통해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임 코디네이터의 주장에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했다. FAO에서는 한국에서 2015년 차기 FAO GIAHS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인증을 받을 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고, FAO 내부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초 우리나라의 2013년 연내 GIAHS 인증을 약속했던 인사들과 신임 코디네이터 간에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자칫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그동안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조기 등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FAO 담당자와 비공식 채널을 가동할 수 있었다. 또한 협의를 통해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흑룡만리밭돌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해 기 제출된 등재인증요청서 이외에 보전관리계획서(Conservation Action Plan)를 보완하여 FAO GIAHS 담당자에게 추가 제출하기로 하고 2014년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 GIAHS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등재를 지원하겠다는 선에서 잠정적 합의를 이루고 워크숍을 마치게 되었다.

(3)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 결정과 등재기념 세미나

가.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 결정(2014.4.1)

청산도와 제주도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2014년 4월에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인정받게 된다. 2013년 초부터 FAO와의 긴밀한 협의와 FAO 주관 각종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로로 등재 필요성을 홍보한 결과였다. 당초의 목표였던 2013년 연내 등재는 이루지 못했지만,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되고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준비를 시작한지 1년 3개월만이었고 등재신청서를 최초로 제출했던 2013년 4월부터 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청산도와 제주도 두 곳이 동시에 등재하게 되었다.

2013년 4월에 등재신청서를 이메일로 최초로 제출한 후, 201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다시 한번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12월에 보전관리계획서(Conservation Action Plan)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2013년 5월 FAO GIAHS 국제포럼(일본 이시카와현) 발표와 2013년 11월의 FAO GIAHS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태국 방콕)에서의 발표 그리고 학술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서면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4월 1일에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 2014년 4월 4일 국내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을 행하고 2014년 4월 29일 FAO본부(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IAHS 집행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재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FAO의 관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종 등재의 결정과 등재인증의 공식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복잡한 과정과 중복되는 행사를 치루기도 하였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해당 지자체,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였다.

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념 세미나(2014.4.4, 한국 대전)

2014년 4월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된 이후, 어떠한 형태로 등재기념식을 치를 것인가를 두고 FAO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다.

FAO측에서는 2012년 중국이 대규모의 국가적 차원의 행사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길 원했고, 제주도와 완도군은 6월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대규모 행사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련 기관들간의 협의와 법적 제약,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협점으로 제시된 것이 학술적인 차원에서 한국농어촌 유산학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형태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청산도와 제주도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을 겸하는 행태로 세미나가 계획되고, FAO 담당 코디네이터의 초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하여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인증서를 전달하는 행태를 갖추었다.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 및 기념학술세미나 프로그램(2014.4.4.) ■

| 시 간 | 소요(분) | 내 용 | 비 고 |
|-------------|-------|----------------------------|---------|
| 10:30~10:50 | 20 | 등 록 | 사회자 |
| 10:50~10:55 | 5 | 귀빈 소개 | 유학열 박사 |
| 10:55~11:00 | 5 | 개회사 | 윤원근 학회장 |
| 11:00~11:10 | 10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경과 | 민동명 사무관 |
| 11:10~12:00 | 50 |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강연 | FAO담당자 |
| 12:00~13:00 | 60 | 점심식사 | 호텔 내 |
| 13:00~13:30 | 30 | 농업유산의 이해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흐름 | 박윤호 박사 |
| 13:30~14:00 | 30 | 장내정리 | |
| 14:00~15:00 | 60 | 등재 지정서 전달식 행사 | 농림축산식품부 |
| 15:00~15:15 | 15 | 장내 정리 | |
| 15:15~15:35 | 20 |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 액션플랜 | 강승진 박사 |
| 15:35~15:55 | 20 | 청산도 구들장 논의 농업유산 가치와 보전관리방안 | 황길식 소장 |
| 15:55~16:30 | 35 | 종합토론(질의응답) | 이병기 교수 |
| 16:30~ | | 폐회 | 윤원근 학회장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념 세미나는 농림축산식품부 민동명 사무관의 세계 중요농업 유산의 등재 추진경과보고와 FAO본부의 GIAHS 코디네이터인 마사히토 에노모토(Masahito Enomoto)가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농어촌연구원 박윤호 박사가 농업유산의 이해 및 세계농업유산의 흐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미나 중간에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지정서 전달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제주 발담의 농업시스템 액션플랜에 대한 강승진 박사의 사례발표와

청산도 구들장 논의 보전관리방안에 대한 황길식 박사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어 협성대학교 이병기 교수 주제로 건국대학교 김선주 교수, 부산대학교 이유직 교수, 배재대학교 최중희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농업유산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의 순으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념 세미나를 마쳤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과 FAO본부의 코디네이터, 김선우 제주도 부지사와 김종식 완도군수 등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마사히토 에노모토 FAO 코디네이터가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에게 전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주도 김선우 부지사와 완도군 김종식 군수에게 등재 지정서를 각각 전달하는 형식으로 등재지정서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2014.4.4)



제주 발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2014.4.4)

다. ERAHS 제1회 국제 콘퍼런스(2014.4.7~10, 중국 강소성 홍화시)

ERAHS 제1회 국제 콘퍼런스는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중국 강소성 홍화시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1차 실무회의 때 까지만 해도 중국 해남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해남도에는 세계 중요농업유산이나 중국 국가 중요농업유산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농업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되었다. 중국,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강소성 홍화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제1회 ERAHS 국제 콘퍼런스는 한국에서 한국농어촌유산학회를 중심으로 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약 1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대규모의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5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일본에서는 9편, 중국에서는 20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한·중·일 농업유산 관련 연구논문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사례연구를 주제로한 총 3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마지막날인 4월 10일(목)에는 제2차 실무그룹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실무회의에서는 ERAHS 발족이후 진행된 제1차 콘퍼런스의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2015년

2기 ERAHS 회장단은 1기 회장단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제2차 콘퍼런스 주최국인 일본에서 ERAHS 총괄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은 차기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1회 ERAHS 국제 콘퍼런스 프로그램

| | |
|--------------------------------|---|
| 4월 7일(월) : Registration | |
| 10:00-22:00 | Registration (Xinghua Tianbao Hua Yuan Hotel) |
| 4월 8일(화) : Conference | |
| 08:30 - 9:00 | Opening Ceremony Welcome Address by representative of Xinghua City Address by representative of FAO Address by representative of FAO GIAHS Secretariat Address by representative of MOA Address by representative of IGSNRR, CAS Address by representative of CAE Address by representative of ERAHS |
| 09:00 - 10:00 | Keynote Speaking Academician Li Wenhua Mr. Parviz Koohafkan Prof. Takeuchi Kazuhiko |
| 10:00-10:30 | Tea break and Photos |
| 10:30-12:30 | Session I: Ecosystem Service and Multifunction |
| 13:30-15:30 | Session II: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
| 15:30-15:50 | Tea break |
| 15:50-17:50 | Session III: Conservation & Management Approaches |
| 19:30-21:30 | Special I: Consultation of three GIAHS Candidate sites |
| 4월 9일(수) : Field Visit | |
| | Field Trip to Xinghua Duotian Agrosystem |
| 4월 10일(목) : Conference | |
| 08:30-12:00 | Session IV: Best Practices from GIAHS sites |
| 14:00-18:00 | The 2nd Working Group Meeting of ERAHS |

청산도와 제주도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되고 대전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이 끝난 직후에 제1회 ERAHS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된 관계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에게서 많은 축하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협조와 도움을 주었던 일본과 중국의 관계 전문가들과 FAO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FAO와 일본의 관계자들에게서 차기 2015년 FAO GIAHS 국제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받기도 하였다.



제1회 ERAHS 국제 콘퍼런스(2014.4.7)



제2차 ERAHS 실무그룹 회의(2014.4.10)

라. FAO GIAHS 집행위원회 참석(2014.4.28~29, FAO 본부 이탈리아 로마)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가 확정되고 난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상황으로 서둘러 청산도와 제주도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결정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등재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FAO 담당자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대표단은 FAO 본부에서 개최되는 GIAHS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미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된 청산도와 제주도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등재 지정서 전달식을 가지게 되었다.

FAO GIAHS 집행위원회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 : 1명
 - 민동명(지역개발과 사무관)
- 제주특별자치도 : 3명
 - 김충의(친환경농업과 과장)
 - 유원희(제주 e-국제교류센터 원장), 김환철(제주 영상동호인회 회장)
- 완도군 : 2명
 - 심만섭(친환경농업과 과장)
 - 황길식(명소 IMC 대표)

우리나라 대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민동명 사무관을 단장으로 해서 제주도 3명, 완도 2명의 담당자가 함께 하여 총 6명의 인원으로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GIAHS 등재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두 지역은 국내의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기 등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서면으로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국가단위의 별도의 등재 지정서 전달식을 한 상황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사실 2014년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개최된 GIAHS 집행위원회에서 최종발표와 심의를 통해 등재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로서는 1달 정도 앞당겨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결정짓고 국내 지자체의 관련 행사 등에 활용하였지만 결국은 사후적으로 GIAHS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AO 집행위원들에게 사후적으로 현황보고와 공식적인 등재 지정서를 다시 전달받는 성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의 집행위원회는 2013년 5월의 노트선언이후 GIAHS 등재를 확산하기로 공식화하여 우리나라의 2개소 등재에 이어 중국의 3개소와 이란의 1개소 등 4개 지역이 추가적으로 GIAHS 등재를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과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등재가 확정되는 회의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2곳을 포함해 2014년 4월 집행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재된 4곳 등 6곳에 대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식이 이번 집행위원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였다.



신규 GIAHS 등재 지정 지역 기념촬영(2014.4.29.)



신규 GIAHS 지역 발표(2014.4.29)

또한 이번 GIAHS 집행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확산을 위해 기 등재된 국가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후보지역 국가들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등재확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등재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GIAHS 집행위원회와 학술위원회의 활동상황과 최근의 정책동향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번 집행위원회 참석을 통해 FAO측에서는 우리나라가 2015년 FAO GIAHS 국제포럼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GIAHS의 확산을 위해 기 등재된 국가로서 인적, 물적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해 줄 것 등을 재차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FAO에 기여하는 만큼의 국제적인 활동의 강화에 대한 요청이 외부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2014년 상반기에 GIAHS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는 FAO 아태지역 본부에 파견근무를 가게 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업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익을 위해서 국제기구 진출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이번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과정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코디네이터는 물론 아태지역 본부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FAO본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장급 1명이 파견 나가 있는 정도여서 국제적인 동향과 관련 정보의 입수, 국제기구 본부 및 지역본부와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해 볼 때 국가적 위상에 부합되는 국제기구 및 관련 위원회에 우리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공무원,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2. 각 농업유산별 등재 추진과정

□ 청산도 구들장 논 등재 추진과정

(1) 청산도 주민들과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 공유하기

가.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유산적 가치 공유(2012. 4.14)

완도군은 2011년 말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추진해 온 청산도 구들장 논 기초연구 성과를 국가 중요농업유산 신청을 계기로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기 시작하여 일찌감치 구

들장 논의 지속적 보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하였다. 완도군에서는 구들장 논 연구와 국가 중요농업유산 신청 과정에서 경작농가뿐만 아니라 구들장 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들장 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주민간담회(2012. 4. 14)를 우선적으로 개최하였다. 그 결과 청산도 주민들은 구들장 논을 생계 수단이자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농업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전문가로서 구들장 논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산도 구들장 논 주민 간담회(2012.4.14)

구들장 논에 대한 지역 내 인식변화는 구들장 논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내발적 활동으로 이어졌다. 구들장 논 경작농가들은 자발적으로 구들장 논의 집중 분포하는 부흥·양지·상서리 3개 마을과 그 주변 중흥·청계리 2개 마을을 ‘친환경 유기농업 마을’로 만들겠다는 선포식(2012. 7. 17)을 청산면사무소에서 갖고 완도군과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렇듯 청산도 구들장 논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은 구들장 논의 국가 중요농업유산 신청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주민들과 행정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완도군에서는 친환경농업과를 중심으로 구들장 논의 세계 중요농업유산등재를 추진하였으며, 청산농협 등의 협조를 받았다⁴²⁾.

나. 청산도 주민들의 의견듣기, 지역의견교환회 개최(2012.12.12)

완도군에서는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선포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보다 실질적인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들장 논 조사연구는 물론 제안서 작성 과정과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다룬 지역의견교환회를 양지리 느린 섬 여행학교에서 개최(2012. 12. 12)하였다. 완도군에서는 지역의견교환회를 통해 해외 선진사례 견학결과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청산도 내에서 전승되어 오는 구들장 논 농경문화를 비롯해 구들장 논 의 조성시기, 조성방식과 특징 등을 지역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파악하였다.

지역의견교환회 이후, 청산면 행정담당자와 청산농협, 지역주민들은 구들장 논 연구팀과 함께 청산도 전역에 분포하는 구들장 논을 현장 조사하는 등 구들장 논 의 분포현황과 물리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구들장 논에 대한 선행연구나 기록된 문헌이 없어 정확한 사실파악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규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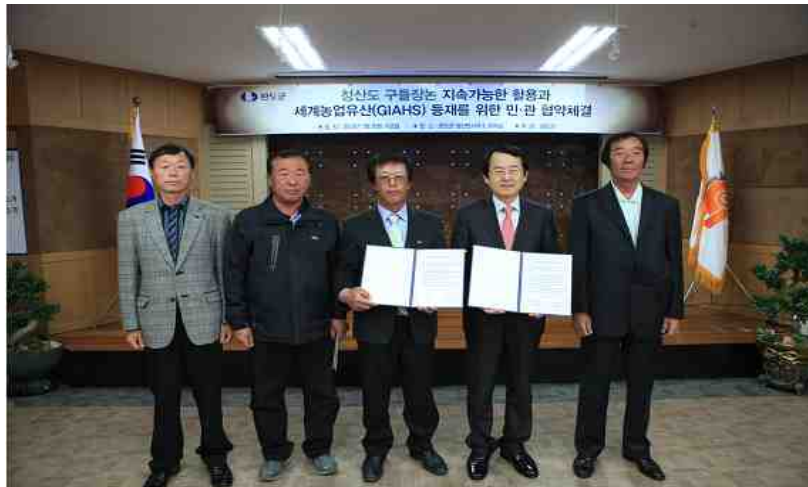


청산도 구들장 논 지역의견교환회(2012.12.12)

- 42) 완도군 친환경농업과 과장 박병수, 과장 심만섭, 계장 김창균, 계장 김용식 등이 행정을 맡아 진행하였다. 완도군 청산농협에서는 조합장 지복남, 전무 권경석 등이 유산조사를, 과장 유난희가 오너제도를 맡아 진행하였다.

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민·관 협약체결(2013.3.20)

2013년 1월 청산도 구들장 논이 지역주민과 행정의 노력에 의해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 이후, 완도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청산도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청산도 친환경 유기농업 마을 조성 추진협약에 참여한 5개 마을(부흥·양지·상서·중흥·청계리) 주민대표와 구들장 논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청산도 구들장 논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완도군과 주민협의회는 청산도 구들장 논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를 위해 주민협의회의 추진방향과 기능 및 역할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활동과 사업 추진과 정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완도군-청산도 구들장 논 주민협의회 간의 민·관 협약체결을 통해 약속하였다.



청산도 구들장 논 민·관 협약체결(2013.3.20)

(2)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가. 신청서 작성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는 국가 중요농업유산 신청시 작성했던 내용에 청산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구들장 논 추가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신청서 작성의 틀은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 제안 가이드라인(GIAHS Application_Guidelines)에서 제시하는 인증요소를 검토하여 만들었다. 특히 일본 사도와 노토의 신청서를 참고하여 청산도 구들장 논 신청서 작성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보전관리계획서(Conservation

Action Plan)부분은 일본 농업유산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산도 구들장 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작성하였다. 전체적인 신청서 작성의 일정과 작성내용에 대한 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성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하였고 위원회에서 FAO GIAHS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함께 진행하였다. 청산도 구들장 논 의 등재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작성 틀로 작성하였다.

■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 작성틀 ■

| 신청서 요약 |
|--|
| 신청기관, 협력단체, 대상지 위치, 대상지 접근방법, 농업유산의 전반적 개관, 농업유산의 가치,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적 체계 |
| 전통농업시스템 설명 I. 세계 중요농업유산 신청 특징 |
| 국내외적 중요성 1. 주민의 생계수단으로서 농업유산 2.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3. 농업유산의 지식체계 및 기술 4. 농업유산의 문화, 가치체계와 관련단체 5. 현저한 경관과 토지 및 수자원 관리 특징 |
| II. 청산도 구들장 논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특징 |
| 구들장 논과 관련된 전통사상과 문화 1. 농경문화에 기반한 청산도의 전통사상 2. 청산도의 생활양식이 담긴 전통문화 |
| III. 농업유산의 역사성 |
|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청산도의 역사적 맥락 1. 청산도의 역사적 맥락 2. 청산도 농업역사와 구들장 논 의 탄생 |
| IV. 농업유산의 현대적 의미 |
| 1. 지역경제, 농업소득 활성화 2. 청산도의 생물다양성 보전 3. 농업유산의 경관 가꾸기의 원칙과 기준 마련 |

| |
|--|
| <p>V. 농업유산의 위협요인과 도전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산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이, 구들장 논 휴경지의 지속적 증가 2. 청산도의 무분별한 개발 증가, 농업유산 보전·관리체계의 미비 3. 자치단체 수준의 보전관리 법제도 필요 |
| <p>VI. GIAHS 인정을 위한 실제적 고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GIAHS 인정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 2. GIAHS의 보전관리를 위한 잠재력과 기회 |
| <p>VII. 구들장 논 보전을 위한 동적 보전관리계획(Conservation Action Pla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산도 구들장 논 보전관리를 위한 비전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 보전관리 기본구상 / 농업유산 활용 추진전략 / 청산도 구들장 논 보전관리 및 활용 목표설정 2. 청산도 구들장 논 보전관리 및 활용 액션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 보전관리 체계 마련 / 농업유산 농업·생태기능 복원 / 농업유산 다원적자원 가치 활용 3. 농업유산의 연계협력 체계 4. 모니터링과 운영관리 |
| <p>첨부자료(SUGGESTED ANNEXES)</p> |



청산도 지역주민의 구들장 논 연구참여
(좌 - 청산농협, 우 - 故 김흥표 주민)

완도군은 국가 중요농업유산과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청산도 구들장 논 신청서의 국문초안을 1월말에 완성할 수 있었다. 신청서의 수정·보완은 5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5월 일본 세계 중요농업유산 국제포럼 개최 전에 신청서와 발표 자료를 FAO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하였다. 그 결과 처음 계획한 일정대로 5월에 맞춰 완도군은 제주도와 함께 FAO에 신청서 초안을 제출하였고 일본 국제포럼에서 전문가들과 논의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6월에 최종 제출하였다. 그 이후 12월에는 FAO의 요청에 의해 신청서의 농업유산 연계협력 체계, 보전관리 및 활용사업 내용을 보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산도 구들장 논 등재신청서 작성과정 중 준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검토내용 : 청산도 구들장 논 ■

| | |
|---|---|
|  | <p>[등재신청서 제출 준비 논의, 2013.1.21 / 농림축산식품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에서 요구하는 액션플랜을 추가 작성 필요 - 어떤 방식으로 농업유산의 가치를 부각시킬 것인지에 대한 선행검토 필요 - 청산도 구들장 논 단일자원과 함께 주변자원까지 포함시켜 신청서를 작성할 것 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  | <p>[완도현장 검토 및 세미나, 2013.1.29 / 완도군 청산면사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신청서의 제목, 기본방향 및 컨셉 등 작성 틀 검토 - 구들장 논 관련 경관의 유형, 마을과 경작지와의 맥락적 관계 파악 - 구들장 논과 주변 생태계의 기능,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구들장 논을 핵심자원으로 다루고 주변 연계자원을 포함시켜 작성 - 주민들이 돌을 다루는 '적석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필요 |
|  | <p>[국문신청서와 발표자료 검토, 2013.2.7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신청명칭 필요 - 구들장 논 형태와 관개시스템을 연결하고 독특한 지하암거 구조의 특징을 부각시켜 작성 - 기술적 측면에서 논·밭 겸용이 가능한 구들장 논 특성 설명 필요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

| | |
|---|--|
|  | <p>[제주현장 검토 및 세미나, 2013.2.28 / 제주발전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농업유산 전문가 참석, 일본 사례 발표 - 일본은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성에서 주최하고 보조로 유엔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자가 되어 추진 - 액션플랜에 부문별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체계 추가 보완 필요 - 국문신청서와 발표자료의 영문 작성 필요 |
|  | <p>[준비위원회 최종회의, 2013.3.16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들장 논과 돌담이 농업활동으로 이어진 과정설명 필요 - 청산도 구들장 논의 등재 범위(섬 전체/집중지역) 검토 필요 - 발표자료의 보전관리계획 부분은 설명력 부족, 보완 필요 - 발표자료에 사용된 전문용어의 영문표기 검토 필요 - 생물다양성 부분은 대상지 사례 이미지를 통한 설명 필요 |

나. FAO GIAHS 담당자 청산도 구들장 논 현장실사(2013.6.2~3)

완도군은 청산도 구들장 논을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2013년 5월 10일 FAO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담당자들이 현장실사를 위해 청산도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실사에는 FAO 코하프칸 의장, 메리 제인 기술담당관(Technical officer)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관계공무원과 농업유산 자문위원, 구들장 논보존 협의회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청산도 농업유산 지역을 방문한 관계자들은 구들장 논과 상서리 돌담, 긴꼬리투구새우 서식지, 고인돌, 당제, 초분 등 청산도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이 잘 어우러진 주요 경관을 관심 있게 둘러보고 청산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FAO 코하프칸 의장은 청산도 구들장 논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농업 관개시설을 갖춘 독특한 농법으로 그 가치가 높고, 구들장 논을 보전과 활용을 위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구들장 논이 휴경지 증가와 더불어 수로의 기능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구들장 논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는 주민 전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문화가 필요한 시스템임을 강조하였다. 세계 중요농업유산을 구들장 논에 국한시키지 말고 청산도 전체의 농경문화뿐만 아니라

어촌문화, 경관, 주민의 의식·생활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아우른다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FAO 담당자는 청산도 2013년 8월과 9월에 예정된 국내·외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세계 중요농업유산 과학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구들장 논의 신청서 수정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다.

(3) 청산도 구들장 논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포럼 및 워크숍

가. 구들장 논의 가치 재발견과 활용모색을 위한 세미나(2011.11.22, 한국 완도군)

완도군은 청산도 구들장 논의 새로운 가치를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실천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한국 다랑이 논 연구회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관계자를 청산도로 초청하여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앞서 청산도 생태문화관광 해설가 김미경씨의 안내로 완도군 청산면 양지리·상서리 일대를 답사했다. 답사를 통해 청산도 구들장 논의 특징인 구들과 통수로로 관찰했으며, 일부 구들장 논의 경우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보전관리 상태가 열악한 실정을 세미나 참석자들과 공유하였다. 현지답사 이후 청산면사무소로 장소를 옮겨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한국 다랑이 논 연구회에서는 구들장 논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였다⁴³⁾.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관계자들이 구들장 논의 특징과 활용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유 토론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청산도 구들장 논의는 지리산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일반 다랑이논과 달리 물의 이용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농어촌의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유·무형 자산을 발굴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이에 공감하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구들장 논의가 중요농업유산으로 등록되어 중요자원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 세미나는 구들장 논 연구가 보다 전문성을 갖고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산도 주민들의 구들장 논의에 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3) 충남발전연구원의 유학렬 박사는 ‘청산도 구들장 논의 특징과 가치’라는 주제로 구들장 논의 분포현황과 관계시스템을 설명하였고, 청산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주)명소IMC의 황길식 박사는 ‘청산도 구들장 논의 창조적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구들장 논의와 주변 주요자원을 연계한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구들장 논 현지답사 및 전문가 토론회(2011.11.22)

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어업 유산지정제도」관련 지자체·전문가 워크숍 (2013.11.7, 한국 완도군)

완도군은 청산면사무소에서 관련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전문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유산지정제도 관련 워크숍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신규로 도입한 농업유산제도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열린 토의를 가졌다. 첫째 날은 농림축산식품부 김경두 서기관의 ‘농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설명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발표⁴⁴⁾가 이어졌다. 둘째 날은 청산도 구들장 논 현지답사를 통해 일반 계단식 논(다랑이 논)과의 차별적 특징을 경험하게 하였다.

완도군은 청산도 구들장 논이 농업유산제도 선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인정을 통해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의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4) 농림축산식품부 김경두 서기관의 ‘농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설명을 시작으로, 농어촌연구원 박윤희 박사의 ‘농어업유산 지정기준 및 일본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사례’를 통해 농업유산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어, (주)명소IMC 황길식 박사의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유산 가치 및 향후 농업유산 지정 준비 계획’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농업유산 가치인식과 활용준비 주제발표(2012.11.7)

다. FAO GIAHS 국제포럼(2013.5.29~5.31, 일본 이시카와현)

FAO GIAHS 국제포럼에서 완도군의 경우, 당시 김종식 군수가 포럼의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서 청산도 구들장 논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청산도 구들장 논을 “약 400여년부터 농토가 협소하고 돌이 많은 청산도의 지형조건과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을 발전시켜 온 조상들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완도군수는 청산도 구들장 논이 독특한 농업시스템이 미래세대에 문화유산으로 계승되도록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해 줄 것을 역설하였다.

완도군은 국제포럼 참가를 통해 청산도 구들장 논이 가치와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일본, 중국 등 등재 국가의 농업유산 전문가로부터 청산도 구들장 논 신청서의 부문별 보완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국제포럼 참석 이후, 완도군수는 일본 가나자와 대학 나카무라 교수를 일본 현지에서 만나 청산도 구들장 논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구들장 논이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일본 사도, 노토, 아소 등 5개 도시와 청산도와의 교류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FAO GIAHS 국제포럼 완도군수 주제발표(2013.5.29)



일본 유엔대학 리양교수(좌) 및 시즈오카현청 담당자(우) 면담(2013.5.30)

라.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 워크숍(2013.8.25~28, 한국 제주도, 완도)

완도군은 청산도를 방문한 해외 전문가들에게 청산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슬로푸드 ‘청산도탕’을 제공하고 청산도의 숨은 곳곳을 탐방하며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소쟁기질, 해녀, 상서마을 돌담, 초분, 파시문화거리 등을 체험해보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등재된 구들장 논 현장을 워크숍 참석자들과 함께 방문하여 부흥리 유승표씨의 안내를 통해 구들장 논이 농업시스템과 그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고, 구들장 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산도 현장시찰을 마치고 청산면사무소에서 농업유산 전문가인 다케우치 교수가 특별 강연으로 “전통농업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사례를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였다. 강연에 이어 농업유산이 어떻게 보전·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워크숍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와 지역주민 간에 의견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들장 논 현장시찰 및 다케우치 교수 특별 강연(2013.8.27)

(4) 농업유산의 가치 회복과 확산을 위한 교류활동 전개

가. 청산도 구들장 논 오너제도 운영 (2012, 2014)

구들장 논 오너제도는 일본의 농업유산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오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구들장 논 농업유산 가치 회복과 경작농가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2012년 3월부터 양지리 구들장 논 경작농가, 청산농협, 완도군이 협력하여 오너제도 포스터와 신청서를 만들고 각종 미디어매체와 지역행사 등을 통해 홍보하였다. 그 결과 청산도 향우회원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1구좌 5만원의 기금을 받아 2012년 한해 전국적으로 총 108구좌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참여자에게는 2회에 걸쳐 구들장 논 쌀과 마늘장아찌를 배송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4월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기간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관광객에게 농업유산 구들장 논 보전에 참여해줄 것을 구들장 논 오너제도와 연계해 홍보하였다. 구들장 논 오너제도는 청산농협과 청산도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가 경작농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들장 논 오너제도 기금 농가 전달식 및 구들장 논 쌀 배송(2012)

나. 구들장 논 테마의 지역축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은 청산면 양중리의 ‘구들장 논 체험장’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청산도의 가을 축제 행사인 ‘청산휴가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시범 운영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단위 도시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가을걷이 체험 등이 있었으며, 2013년 10월 축제 때는 지역 청소년(청산초등학교, 청산중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구들장 논 경작 농가를 1일 교사로 참여시켜 구들장 논 의 전통 농법을 직접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들장 논 뿐만 아니라 청산도 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지역축제 연계 구들장 논 체험프로그램 운영(2010.10)

(5) 청산도 구들장 논 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청산도 구들장 논은 2013년 1월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 지정에 이어 2014년 4월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 완도군은 FAO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등재 지정서 전달식에서 제주도 밭담 농업시스템과 함께 등재 지정서를 전달 받고 지역주민들과 농업유산 등재의 기쁨을 나눴다.

완도군은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으로 FAO GIAHS 집행위원회(2014.4.28~29, FAO 본부 이탈리아 로마)에 참석하여 청산도 구들장 논 의 특징을 소개하고 향후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에서 청산도 구들장 논 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2014.4. 4)



FAO GIAHS 집행위원회(2014.4.29) 등재 지정서 전달

□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등재 추진과정

(1)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과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T/F팀 구성

제주 밭담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로소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⁴⁵⁾. 2012년 6월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4개의 농업유산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 밭담을 비롯하여 돌염전과 해녀문화(원담, 태우, 도대불, 불덕, 해신당, 나잠어업) 등 3개 유산을 신청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 1월 21일 제주 밭담을 국가 중요

45) 완도군 청산도보다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이 농업유산으로 가치를 인식한 것이 늦은 이유는 제주 밭담이 독자적인 농업유산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여타 제주의 돌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요소, 또는 그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왔다는 점도 자리하고 있다.

농업유산 제2호로 지정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제주 밭담의 국가 중요농업유산 명칭이 ‘제주 돌담 밭’으로 지정되는데, 이는 밭담 자체가 농업유산의 명칭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논의를 거친 끝에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밭담의 탄생배경과 기능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심의과정의 일면을 드러냈다는 측면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후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준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에 논의한 끝에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이란 이름으로 통일하되 경우에 따라 ‘제주 밭담’이라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제주 밭담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작업을 시작하였다. 신청작업의 총괄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가 맡았으며, 자료조사와 집필 등 실무작업은 제주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⁴⁶⁾가 진행하였다. 실무를 맡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등재신청서 제출 준비 논의(2013. 1. 21,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29일 완도군 청산면사무소에서 구들장 논 현장 방문과 함께 이루어진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는 FAO GIAHS 등재를 위한 자문회의를 겸한 자리였는데, 제주지역 담당자들은 잠정적인 목차만 세운 상태여서 청산도의 준비사항을 살펴보고 자문을 받았다.

등재신청서 마감이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던 만큼 제주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다. 일부 준비위원들 사이에서는 제주도는 다음 해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주도 관계자 등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에 곧바로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T/F팀이 꾸려졌다. 2013년 2월부터 등재 신청 시까지 운영하기로 한 T/F팀은, 총괄기획에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연구위원, 종합집필에 김지택 문화기획 테송 대표가 맡았으며 각 부문별 전문가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었다. T/F팀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46)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강승진 연구원(부장)이 총괄하였다.

■ 제주 밭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T/F팀 명단 ■

|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비 고 |
|----------------|---------|------|-------|---------------------------------|
| 총괄 | 제주발전연구원 | 연구위원 | 강 승 진 | |
| 총괄집필 | 문화기획 때송 | 대 표 | 김 지 택 | |
| 밭담 가치 및 역사/문화성 | 월 랑 초 교 | 교 사 | 강 성 기 | - 밭담 유산 가치 등 - 역사학, 문화적 가치 등 |
| 농업생산 | 제주대학교 | 교 수 | 현 해 남 | - 토양학적 접근 |
| 경제분야 | 제주대학교 | 교 수 | 고 성 보 | - 농업경제학적 접근 - 미래 가치 등 |
| 생태적 가치 | 생태교육연구소 | 소 장 | 현 원 학 | - 생태학적 접근 - 생물다양성 등 |
| 경관 가치 | 제주대학교 | 교 수 | 김 태 일 | - 경관 가치 - 건축학적 가치 등 |
| 사진 | 제주영상동인 | 회 장 | 김 환 철 | - 관련 사진 자료 등 |

한편, 대외적 요인에 의해 신청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신청서 작성 이외에 홍보, 국제 교류 등의 필요성에 따라 T/F팀이 증원되었는데, 제주대학교 김배성 교수, e-국제교육 지원센터 유원희 원장, 뭉치이벤트 김영훈 대표, 한라일보 강시영 부장과 김지은 기자 등 5명이다.

(2)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가. 신청서 작성

T/F팀에서는 먼저 신청서 집필계획을 수립하였다. 집필 기본방향으로는 크게 제주 밭담의 입체적인 소개, FAO 등재기준에 부합하는 제주 농업유산의 특성 강조,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 부각 등 3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 밭담의 입체적인 소개’ 부문에서는 제주 화산섬과 제주 밭담의 상관관계를 비롯하여 제주 밭담의 역사성과 농업적 기능, 문화·경관적 기능, 미래가치 등 다양한 측면을 입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타 지역 돌담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FAO 등재기준에 부합하는 제주 농업유산의 특성 강조’ 부문에서는 식량·생계수단의 확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 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 사회제도·문화습관, 경관이 수려한 토지이용, 특수한 토지·수자원 관리 등 제주 발달의 GIAHS 등재 사전·사후 특장점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 부각’ 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주민의 의지, 향후 보전·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FAO 본부의 현지 실사를 감안한 실질적인 관리·활용계획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집필 계획은 ‘FAO GIAHS 등재신청서 작성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였다.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부문별 자료수집과 함께 T/F팀원별 1차 집필이 이루어졌다. 집필계획에 따른 자료수집 및 집필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역사 및 현황

- 제주농업의 연원과 발달의 역사성
 - 화산섬 제주의 특성과 제주 발달의 탄생 등
- 문헌을 통해본 발달의 역사성
 - 문헌 기록 간 차별점 탐색(제주 발달의 다양성과 다기능 탐색)
- 제주의 돌문화 요약
 - 주요 유형별 보존 및 활용사례(돌문화공원 등)
 - 유네스코 3관왕과의 상관성
- 제주 발달의 현황
 - 유형, 길이, 농업 등 활용실태, 보존실태(위협요인 포함)

○ 농업시스템

- 제주도 일반현황과 산업 및 농업 특성
- 제주 발달의 기능
 - 화산섬 토양과의 상관관계
 - : 토지 개간 및 확장, 방풍, 비산 방지 등 기본기능
 - : 제주의 기후특성에 따른 제주 발달과 농산물 생육의 상관관계
 - 제주 발달과 관련된 농업기술 등 지식체계
 - 제주 발달의 토목공학적(물리적) 특성
- 제주 발달의 확장기능
 - ‘바령’ 등 농업생산기능

- 제주 밭담의 농업적, 경제적 가치 및 중장기적 활용방안
- 생물다양성
 - 제주 밭담과 생물다양성과의 상관관계
 - 제주 밭담의 토양 비산 방지 등 기본기능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존
 - 제주 밭담과 수로의 위치관계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존
 - 제주 밭담과 햇볕의 관계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존 등
 - 생물다양성 보존방안
- 문화·경관
 - 제주의 문화경관과 제주 밭담의 경관 특성
 - 제주 밭담의 경관 가치
 - 제주 밭담 경관의 보존·활용방안
- 미래가치 및 보존·관리·활용방안
 - 밭담의 다양한 미래가치
 - GIAHS 등재에 따른 다양한 효과 제시
 - GIAHS 등재에 대한 지자체 및 주민의 의지
 - 중장기적 보존·관리방안
 - 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활용방안 등 단계별 계획 제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초안 집필이 이루어졌으며 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초안을 종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 신청서는 T/F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등재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다시 보완하여 확정하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T/F팀에서는 GIAHS 등재신청서 요건에 따라 제주 밭담이 지니고 있는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드러냄은 물론, 향후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번역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진행한 뒤, 예정된 시일 안에 제출할 수 있었다. 한편, FAO GIAHS 위원회의 내부사정으로 신청서 접수 및 위원회 위원 전달 및 심의 등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에도 지속적인 수정·보완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FAO GIAHS 담당자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현장실사(2013.6.3~4)

FAO GIAHS 국제포럼(2013.5.29~5.31, 일본 이시카와현)을 마친 후, 코하프칸 의장과 메리 제인 기술담당관(Technical officer)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 중인 제주 밭담 현장 실사가 6월 3일부터 2일간 진행되었다. 이들은 제주시 조천~신흥~김녕~하도 일대 밭담과 원담, 불턱, 방사탑 등을 둘러본 뒤 “제주 밭담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GIAHS 등재를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하프칸 의장은 “제주 밭담의 경관은 매우 흥미진진하며 이용(경작), 규모, 매우 독특한 풍광, 독창성 면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극찬한 뒤 “앞으로 액션플랜을 통해 산업화와 기계화보다 제주 밭담의 지속적인 보전과 전통 농업문화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제주 밭담 현장 실사에 나선 코하프칸 의장 일행(2013.6.3)

(3) 제주 밭담의 가치확산을 위한 국내외 포럼 및 워크숍

가. FAO GIAHS 국제포럼(2013.5.29~5.31, 일본 이시카와현)

제주 밭담의 가치를 홍보하고 세계 중요농업유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3년 5월 29일부터 5월3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열린 GIAHS 국제포럼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는 제주도 관계자 2명과 T/F팀원 4명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세계 중요농

업유산 국제포럼에 앞서 5월 29일 열린 한중일 워크숍에서 제주는 제주 밭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일본 세계 중요농업유산 국제포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주제발표(2013.5.29)

나.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 워크숍(2013.8.25~28, 한국 제주도, 완도)

이 행사는 2013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중국 3명, 일본 18명, 국내 30명, 제주도 50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 워크숍은 일본 유엔대학 다케우치 카즈히코 부학장의 '전통농업과 GIAHS의 발전(Traditional Agriculture and Development of GIAHS)'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1부에서는 제주 밭담의 농업시스템과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보전관리계획서 발표, 중국의 2개 농업유산 보호사례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시스템과 보전관리계획서, 일본 4개 농업유산의 특성과 보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3부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열렸다.

이 국제워크숍을 통해 제주도는 그간 형성해온 아시아권 인적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음 날 이루어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제주 밭담의 농업유산 가치와 다각적인 활용 가능성 등을 홍보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제주 밭담 현장답사 과정에서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관 가치, 관광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지니고 있는 유산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중일 워크숍에서 제주 발담 주제발표 및 토론(2013.8.25)

다. FAO GIAHS 국제포럼(2013.10.5, 일본 오이타현)

2013년 10월 5일에는 일본 오이타현에서 열리는 FAO 주관 GIAHS 국제포럼에 제주 T/F팀 2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 참석한 목적은 농업유산과 관련한 국제동향 파악과 함께 포럼에 참가한 FAO 기술위원들에게 제주 발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과 향후 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문에 응한 FAO 기술위원들은 제주 발담의 농업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독특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향후 보전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보강하는 것이 원활한 등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일본 오이타현 세계 중요농업유산 심볼마크 개막식과 주요 참석자(2013.10.5)

(4) 제주 발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기획홍보사업

제주 발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기획홍보사업도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제주도 일원을 비롯하여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 워크숍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FAO 주관 GIAHS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이루어진 기획홍보사업은 한라일보 강시영 팀장을 중심으로 홍보기간 동안 ‘흑룡만리 제주 발담’을 테마로 12회의 기획기사와 함께 다양한 홍보기사가 실렸다. 기획기사에서는 제주 발담 현장 탐방, 제주 발담의 역사, 길이와 유형, 경관 가치, 세계 중요농업유산 국제동향 등과 함께 등재 가능성 등을 홍보함으로써 도내외 관심을 모았다.

또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의미와 함께 등재 이후에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써 도민들에게 발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짚어주고, 지역 경관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주 발담과 유사한 영국의 돌담을 둘러보고, 두 경관의 유사함 속에서 제주문화만의 차별성을 드러냄으로써 지역 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는 체계적으로 자연경관을 관리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 관리 방안과 함께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도 모색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가.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의 GIAHS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 T/F팀의 1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제주 발담은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이란 이름으로 2014년 4월 1일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차지하고 있던 제주도의 또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제주가 세계적으로 잇따라 조명된 데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인문분야에서 처음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은 것이다. 제주 선인들의 피땀 어린 제주 발담은 제주섬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의 소산이자, 제주농업을 지켜온 버팀목이다. 제주인의 손으로 삶을 개척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쌓아올린 발담은 독특한 전통농업 유산이자, 제주문화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제주 발담은 미래가치 또한 충분하다. 제주의 미학을 대표하는 제주 발담은 미래농업을 지켜내는 파수꾼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농촌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 발담을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해나가며 다각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제주 발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일자는 공식적으로 2013년 4월 1일이다. 그에 따른 등재 지정서 전달식을 4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세미나를 겸해 이루어진 이날 행사는 FAO GIAHS 사무국 마사히토 에노모토 코디네이터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에게 등재 지정서를 전달하고 장관이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동필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제주 발담농업시스템과 청산도 구들장 논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결정으로 농촌이 새롭게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특히 제주 발담은 바람과 동물을 막고 수분을 지켜주는 등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낸 제주인의 개척정신과 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평가하고 “이렇게 손으로 쌓은 발담이 2만2000km가 넘는다니 조상들의 노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극찬하였다. 이 장관은 이어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는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오랜 기간 일구어온 우리 농촌의 농업적 전통이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는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농촌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해 공급하는 식량생산기지가 아니라 창조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융복합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발굴된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붕 없는 박물관'(에코뮤지엄)의 조성과 같은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FAO 마사히토 에노모토 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제주 발담농업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등재는 시작에 불과한 단계이며,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관리방안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조가 지속되길 희망한다.”라고 당부하였다.

김선우 부지사는 답사를 통해 “제주 발담을 비롯해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잘 가꾸고 보존함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단하게 찾아낼 것”이라며 “FAO와 한국의 중앙정부에서도 세계 중요농업유산 제주 발담이 가치에 걸맞게 보존·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2014.4.4)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을 마친 다음날인 5일 FAO 마사히토 에노모토 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 발담 현장답사에 나섰다. 조천읍 신흥리와 하도리 일대 발담을 둘러보고 “발담을 쌓아 강한 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을 지켜내고 농업을 이어온 제주사람들의 지혜에 놀랐다. 오랜 세월 제주농업을 지켜온 발담은 사람들이 이뤄낸 역사”라며 농업유산으로서의 발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주 발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제주 발담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실행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FAO가 2~3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민들이 발담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농민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사히토 에노모토 코디네이터(왼쪽 두 번째)의 발담 현장답사(2014.4.5)

한편, 등재 지정서 공식 수령을 위해 FAO GIAHS 사무국이 자리하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 4월 29일 방문하였다. GIAHS 집행위원회 연례회의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김충희 과장과 T/F팀원 2명이 동행하여 등재 지정서를 공식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제주 발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작업은 마무리되었다⁴⁷⁾.



이탈리아 로마 GIAHS 집행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제주 발담 발표(좌)와 공식 등재 지정서 수령(우)(2014.4.29.)

47)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이후 개최된 한·일 국제워크숍(2014. 10. 6~ 8,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 T/F팀 3명이 참가하여 세계 중요농업유산 제주 발담의 홍보에 나서는 한편, 세계농업유산 각국 현황과 연구동향 공유, 한·일 농업유산에 관한 우수 사례 공유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기도 하였다.

나. 등재에 따른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제주 발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앞둔 2013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13 - 52호) 하고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국가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제2조),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신청(제3~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5~11조), 연구기관의 설치 및 주민참여(제12~17조) 등이다⁴⁸⁾.

3. 관계기관 활동

(1)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한국농어촌유산학회는 농업유산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도입하는 초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 다랑이 논 연구회는 한국농어촌유산학회의 전신으로서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대해 소개하고 농업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 다랑이 논 연구회 회원이 주축이 되고 농업유산에 관심 있는 전문가, 공무원, 학생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농어촌유산학회가 2013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동년 2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유산학회로 대법원에 법인 등록을 마쳐 정식 설립되었다. 한국농어촌유산학회는 농어촌유산의 발굴, 보전 및 관리 방안에 대한 학술활동과 현장 지원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가. 학술적 지원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창립을 기념하는 의미로 2013년 4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와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윤원근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경두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 농업유산의 도입과 정책방향,’ 황길식 대표(명소IMC)의

48) 부록 5번 참조

‘한국농업유산 사례,’ 유학열 박사·이영옥 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학회 창립을 더욱 빛내 주기 위해 센가 유타로 명예교수(동경농공대학)의 ‘일본의 문화적 경관 보존과 활용’이라는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와 특별강연 후에는 이병기 부학회장(협성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자와 심포지엄 참석자간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선주 교수(건국대), 김정희 과장(농림축산식품부), 김태곤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승진 박사(제주발전연구원), 노정호 단장(한국농어촌공사 기획기술지원단)이 참석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농어촌유산학회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농업유산 발굴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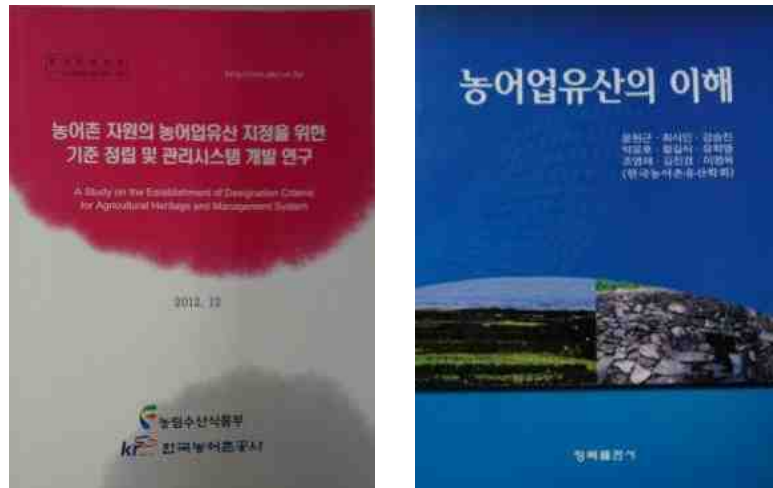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창립기념 세미나(2013.4.18)

한국농어촌유산학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술지(학회지)는 아직 발간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학회 회원들 간의 협력에 의해 도서와 논문 등을 발간·게재해 왔다. 현재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청산도 구들장 논을 대상으로 한 논문인 ‘청산도 구들장 논 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2012, 조영재 외)’가 한국농촌계획학회에 게재되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2013 농업전망대회에서 윤원근·최식인 교수가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발굴과 보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를 통해서 농업유산의 중요성이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농업유산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로 ‘농어촌 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를 학회 회원 8명이 공동 참여하여 2012년 12월에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또한 전술한 정책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

중심으로 2014년 1월에 ‘농어업유산의 이해(청목출판사)’를 출판하였는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연구결과물

이밖에도 ‘韓國靑山島における棚田と観光(2014, 유학열)’이라는 주제로 일본 다량이 논학회지에 게재 하였고, ‘청산도 구들장 논외 관속식물상 및 생활형(2014, 박홍철·오충현)’이라는 테마로 한국환경생태학회에 발표하였다. 또한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Heritage System in South Korea (2014, 백승석)’이라는 논문을 중국의 Journal of Resources and Ecology에 게재하는 등 각종 학술 대회에 학회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다.

나. 농업유산과 관련된 행사지원

①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워크숍(2013.8.25~28)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 확산과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연계·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일 농업유산 워크숍이 2013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서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제주발전연구원, 청산도구들장 논협의회가 공동 개최하였으며 한국농촌진흥청, 농어촌연구원,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유엔 대학(일본)이 공동 주관한 행사이다.

② 일본 다랑이 논 학회 국가 중요농업유산 탐방(2013.10.11~13)

일본에는 다랑이 논을 연구하고 보전·계승 활동을 지원하는 ‘일본 다랑이 논 학회’가 있는데, 이전부터 한국농어촌유산학회의 전신인 한국 다랑이 논 연구회와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 한국농어촌유산학회에서는 일본 다랑이 논 학회장을 비롯하여 몇 분을 한국에 초청하여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역을 견학할 계획을 세웠고, 일본 다랑이 논 학회도 한국 농업유산 지역을 탐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2013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청산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일본다랑이논학회에서는 센가 유타로 학회장(동경농공대학 명예교수), 나가시마 미네히로(와세다대학 명예교수, 前학회장), 다카키 히로아키(학회 이사) 3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농어촌유산학회에는 윤원근 학회장, 강승진 이사, 황길식 이사, 유학열 이사가 전 일정 동행하였다.

10월 11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집결하여 세계자연유산센터, 녹차단지 등을 견학하고 늦은 오후 제주항에서 선박편으로 전남 완도로 이동하여 완도에서 숙박을 하였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완도항에서 선박을 이용, 청산도로 이동하여 상서리, 부흥리 일원의 국가 중요농업유산인 구들장 논을 견학하고 농업유산의 가치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본 다랑이 논 학회 회원들은 청산도 구들장 논의 농업토목학적 측면에서 무척 감명을 받았으며, 일본에도 유사한 구조의 다랑이 논은 있지만 통수로의 구조, 논 만드는 방법 등에 있어서는 청산도 구들장 논이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같은 날 저녁 완도로 돌아온 후 제주로 이동하였다.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밭담을 견학하고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주 밭담의 과학적인 축조 방법과 오랜 기간 동안 보전·계승되어 왔다는 점에 농업유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일본다랑이논학회 회원 한국 방문 (2013.10.12.)

③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념 세미나(2014.4.4)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완도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제주도 밭담이 2014년 4월 1일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기념 세미나가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주최로 2014년 4월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FAO 농업유산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기념 세미나 (2014.4.4)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단계부터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까지 관련 제도 마련, 유산 자원 발굴, 대내외적 홍보 등 적극적 지원활동을 해왔다. 농업유산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일등공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 국가 중요농업유산 관련 지원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침이 2012년 3월 3일에 내려졌으며, 방침에 따른 첫 움직임은 농어업유산자원 지정관리에 관한 연구였다. 2012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어업유산자원 지정관리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함께 동년 11월에 연구를 완료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의 기본 틀을 만들 수 있었다. 2012년 12월에 농업유산제도 지자체 워크숍을 완도 청산도에서 개최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박윤호박사와 백승석 계장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정 농촌개발처장은 농업유산 심의위원 당연직으로 위촉(2013년~14년)되어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 현장조사 참여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2015년~2016년은 농업유산 심의위원 당연직으로 김상열 농촌개발처장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은 2013년 6월 청산도 구들장 논을 직접 방문하여 농업유산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고,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도 적극적 지원을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2013년 7월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주관하였다.



청산도 구들장 논 방문(2013.6)

나. 세계 중요농업유산 관련 지원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 제2호에 지정된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을 세계 중요농업유산 으로 등재되기 위한 첫 움직임이었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준비위원회에 한국농어촌공사 노정호 단장, 백승석 계장, 이두형 계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해왔다. 등재준비위원회는 2013년 1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동년 3월 16일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INWEPF 농업유산 국제 세미나가 2013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농어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 4월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정서 전달식을 주관하였다. 등재 지정서 전달식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선우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김종식 완도 군수, 마사히토 에노모토 FAO GIAHS 코디네이터,

한국농어촌공사 심좌근 이사, 윤원근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학회장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다.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관련 지원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자원의 보전관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여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이란 신규 사업을 만들어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신규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였다.

2013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에게 2013년, 2014년에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그 중 제주 밭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일부 위탁받아 농업유산보전관리계획 및 사업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에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 중요농업유산인 구례 산수유 농업, 담양 대나무밭에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농업유산보전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중간점검(2014.3.20)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중간점검(2014.12.3)

(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국립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농업유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술적 교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한·중·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가. 농업·농촌유산 보전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2013.3.4)

농업·농촌유산의 보전과 관리기술에 대한 학술적 교류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한·중·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주최로 2013년 3월 4일 한·중·일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는 한·중·일 농업유산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공무원 등 약 120명이 참석하였다.

농촌진흥청 농업도서관 1층 농경회의실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한·중·일 3개국에서 총 4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범 박사의 한국 농업·농촌유산의 현황과 지원 제도, 명소IMC 황길식 대표의 한국 농업유산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일본측에서는 나가타 아키라(Nagata Akira) 유엔대학 학술부장의 일본의 농업·농촌유산과 지원제도, 중국 측에서는 Liang Luohui 유엔대학 학술연구관으로부터 중국의 농업·농촌유산과 지원제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은 농업유산에 대한 시각을 시스템적 접근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

으며 농업유산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3개 국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3개 국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지정토론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 이응철 일본 사가대학 교수, 신용광 한국농수산대학 교수가 맡아주었다.

김정희 지역개발과장은 농업유산 선정기준에 농촌의 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산을 포함하는 농업시스템으로 발전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중·일 3개국은 국가차원에서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이런 의미해서 오늘의 워크숍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하였다. 오충현 교수는 농업생태계 유지에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농업생물다양성 보전이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응철 교수는 한국의 농업유산에 대한 시각을 학술적 관점(농업생물다양성), GIAHS 관점(농업다양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신용광 교수는 스토리텔링을 포함하는 농업·농촌유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농업·농촌유산 보전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2013.3.4)

나. 농업유산 한·일 공동 워크숍(2014.10. 7, 한국 강원도 평창)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각국 현황과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의 농업유산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유엔대학이 공동으로 농업유산 한·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2014년 10월 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생물다양성 협약 제 12회 당사국회의(CBD-COP12)와 연계하여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었는데,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전통농업체계가 가지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위협요소를 잘 인지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 워크숍이었다.

워크숍은 한·일 양국에서 총 5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다케우치 가즈히코 유엔대학 교수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전통적 농업체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마사히토 에노모토 FAO GIAHS 코디네이터의 “세계 중요농업유산과 생물다양성”, 김상범 국립농업과학원 박사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전통농업과 농업환경 보전”, 호리하타 마사즈미 이시카와현 농림수산부장의 “일본 노토의 사토야마사또우미(里山里海)의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주 밭담시스템의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발표를 끝으로 주제발표는 마무리 되었다.

뒤이어 토론에서는 주제발표자와 관련 전문가, 일반 참석자들 간의 자유 토론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와 전통농업,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기여와 향후 계획, 전통농업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해당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또한 FAO에서는 세계 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역할, 일본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홍보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농업유산 한·일 공동 워크숍(2014.10.7.)

5장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5장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1절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내용

1.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도입배경 및 목적

자유무역체제 시행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확산되면서 농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농산물 생산에 대한 경쟁력 저하로 인해 농업 1차, 2차, 3차 산업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요구와 농촌 자체를 볼거리 제공과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함으로써 농촌이 지닌 유·무형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자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은 농업지역으로 식량공급 및 생산 활동의 기능을 가진 경제활동장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생물다양성 유지)과 환경편익 제공, 농촌경관 제공, 농촌(지역)사회와 전통문화 유지·계승, 경지보전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교육·여가·관광자원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장소로서의 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다양한 농촌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과 계획,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농촌 개발정책과 계획은 1960년대 농촌지역의 생산 기반에서 삶의 기반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마을단위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 정주생활권 중심의 농촌지역종합개발 등 공간개발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농촌의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화된 시설 개발이 중점

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과 계획은 농촌 본연의 모습과 기능은 물론 독창적 특성이 변형되거나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농촌지역이 지닌 다원적 잠재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보전·활용하고, 적합한 공간개발방식을 융합하여 지역의 고유성 및 특화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문화유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정책적 개선방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화를 구현하는 개발계획 등을 지원하고 있는 유럽농촌문화유산가이드(European Rural Heritage Guide)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FAO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및 국내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과 연계한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은 농촌지역에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고유한 전통문화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활용함으로써 다원적 가치증진과 농촌다움을 유지하여 지역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의 개념 및 내용

(1)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의 개념

가. 농촌의 다원적 자원의 정의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⁴⁹⁾에 따르면 농촌의 다원적 자원이란 농촌에 소재하면서 식량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제공, 전통문화의 보전, 환경·생태계 유지, 국민 정서의 순환, 보건휴양과 학습·체험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발현하는 자원을 말한다. 이에 농촌의 다원적 자원이란 농촌의 지역사회·공간적 범위 안에서 농산업, 인문사회, 환경, 경관, 관광·휴양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관성을 지닌 가치 있는 유·무형의 활용 가능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의 개념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촌의 다원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며 농업유산제도와 연계된 사업이다. 그러므로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은 농업유산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원적 자원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9)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 2012.12.6. 제정 (행정규칙)

즉, 지역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적응과정을 통해서 진화해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만한 가치 있는 농업(활동) 시스템과 이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 농촌의 경관⁵⁰⁾을 중심으로 한 보전관리와 이용 중심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의 근거법령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근거법령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이 해당된다. 법령의 항목은 전통문화계승과 농촌 경관 보전 등에 대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의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주요 내용 |
|-------------------|--|
| 농어업식품기본법 제45조 | <p>(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어업 문화, 유물, 전통 농법·어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어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
| 농림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 | <p>(농어촌 경관의 보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0) 윤원근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p.61

| 근거법령 | 주요 내용 |
|------------|--|
| 농어촌정비법 제5조 | <p>(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p> <p>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p> <p>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의 내용

가.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지역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의 대상지역은 농촌 다원적 자원 및 농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농업유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소재 마을 또는 행정구역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농업유산지정 지역 중 지역행복생활권에 해당되는 지역은 우선적인 선정대상이 되며 최근 3년 내 유사한 사업⁵¹⁾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곳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사업지원내용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의 지원내용은 지원요건, 지원형태, 사업 기간 및 지원 한도, 주요 사업내용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항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요건은 예비계획서를 수립(연구용역 또는 자체 계획수립)하고 주민협의회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한 시·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51) 유사한 사업이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사업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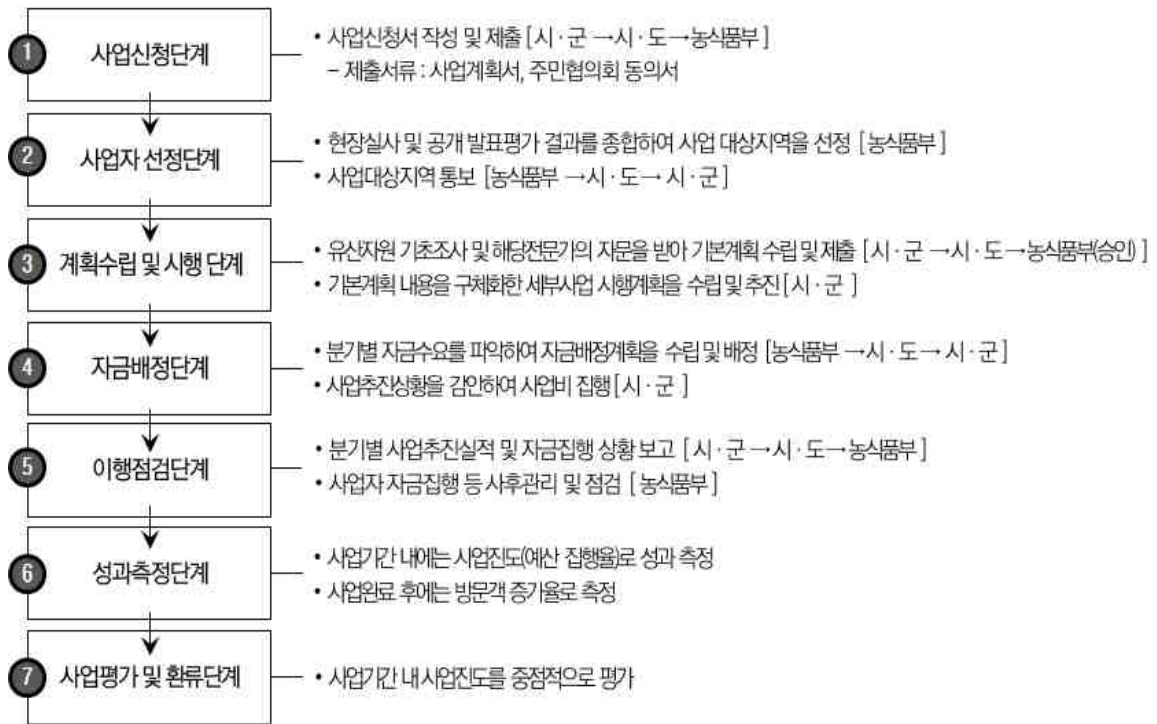
둘째, 지원형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국고)을 기반으로 하며 국고보조 범위가 70%에 해당된다. 셋째, 사업 기간과 지원 한도는 유사 자원 지정 지역 1개소 당 3년간 1,050백만 원(국비 기준)을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정비개발, 환경개선, 가치제고 등 3가지 분야로 구분되며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지원내용

| 분야 | 사업내용 | 사업 세부 항목(예시) |
|------|-----------------------------|-------------------------------------|
| 정비개발 | 기획설계 |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
| | 자료조사 | 경관영향평가, 자원지표조사, 전통자료 수집 등 |
| | 자원정비 |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농법·생태 등) |
| | |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접근로 정비 등 |
| 부지구입 |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 |
| 환경개선 | 환경정비 | 디자인 농업, 경관조성, 폐가 등 혐오 시설물 철거 등 |
| | 자원보호 | 농로 전신주 지중화,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등 |
| | 가치향상 |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등 |
| 가치제고 | 부대시설 | 접근로, 조망대, 포토 스팟 간판, 휴게소, 조명, CCTV 등 |
| | 가치창조 |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
| | 연계소득 | 소규모 특산물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축제장 등 |

나.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시행 과정

사업신청단계에서 사업계획서와 주민협의회 동의서를 제출하며, 선정단계에서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다음 해당 지자체는 유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와 해당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배정한다. 이행점검단계로 분기별 사업추진실적과 자금 집행 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사업기간내에 사업진도로 성과를 측정한다.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시행 과정

2절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추진과정

1. 추진경과

(1)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사업계획서 검토(2013. 5.15)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대상인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시에서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사업추진의 기틀 마련과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까지의 준비여건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회의내용은 농업유산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종합적 계획수립,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전까지의 소프트웨어사업 위주의 추진, 농업유산에 대한 지속적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전문 인력 배치 필요 등에 대한 논의였다.



농촌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사업계획서 검토(2013. 5.15)

(2)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중간보고(2014.3.20)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발담에 대한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사업지역 간의 정보교류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를 해당 지자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각각의 사업지구의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 및 사업진행률이며 추가적으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3)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종합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서 검토(2014.8.12)

보다 발전적인 사업추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완도 청산도와 제주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구례와 담양의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한 발표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는 구례와 담양이 향후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주요 검토내용은 제주도 발담과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의 보전관리 및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보완 사항과 구례 산수유 농업 및 담양 대나무밭의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서 검토(2014.8.12)

(4)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기본계획서 승인 검토(2014.8.26)

완도 청산도와 제주도의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승인하였다. 보전 및 유지관리, 주민참여,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세부사업 시행계획수립 시 반영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2.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종합계획 수립

(1) 청산도 구들장 논 종합계획⁵²⁾

가.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기본계획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의 추진목표에 부합하도록 구들장 논 분포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청산도 구들장 논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크게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립되었다. 첫째, 구들장 논이 국제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발전·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농업유산의 물리적 보전관리 개념에서 나아가 농업경관, 문화, 체험 및 교류 등 농업유산의 창조적 활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농업소득 향상, 문화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청산도 구들장 논 ‘보호와 보전’을 위한 제도적 측면과 ‘유지와 관리’를 위한 활용적 측면의 세부전략을 구상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구상된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 시스템의 가치와 기능의 전승을 위하여 제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전략별·단계별 사업 추진 목표와 우선사업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유산으로서 청산도 구들장 논 가치와 보전관리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함으로써 실효성과 실천성이 있는 농업유산 보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청산도 구들장 논 다원적 가치를 유지·계승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전관리 체계와 지원제도에 기반하여 구들장 논 다원적 가치를 보전·활용하고 교류·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① 청산도 구들장 논 분포현황 조사 및 DB 구축

구들장 논 분포현황 조사는 2014년 1월에서 8월까지 이루어졌는데, 광역적 범위의 사전 분포조사와 구체적인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한 현장 실측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사전 분포조사는 과업 초기에 구들장 논 특징이 완도군 내 청산면을 제외한

52) 종합계획 안에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기본계획’과 ‘구들장 논 지표 및 자원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소IMC(황길식 대표)에서 연구를 총괄하였다.

타 지역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서면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산면 내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 실측조사는 청산도 주민 증언에 의한 구들장 논 분포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시행하여 구들장 논 의 구성요소와 물리적 특징, 연속 관개구조를 파악하였다. 특히 연속관개구조가 나타나는 곳은 물리적 구조에 대한 실측조사(GPS 및 실측장비 이용)를 실시하였다.



구들장 논 주민동행조사(좌), 현장 실측조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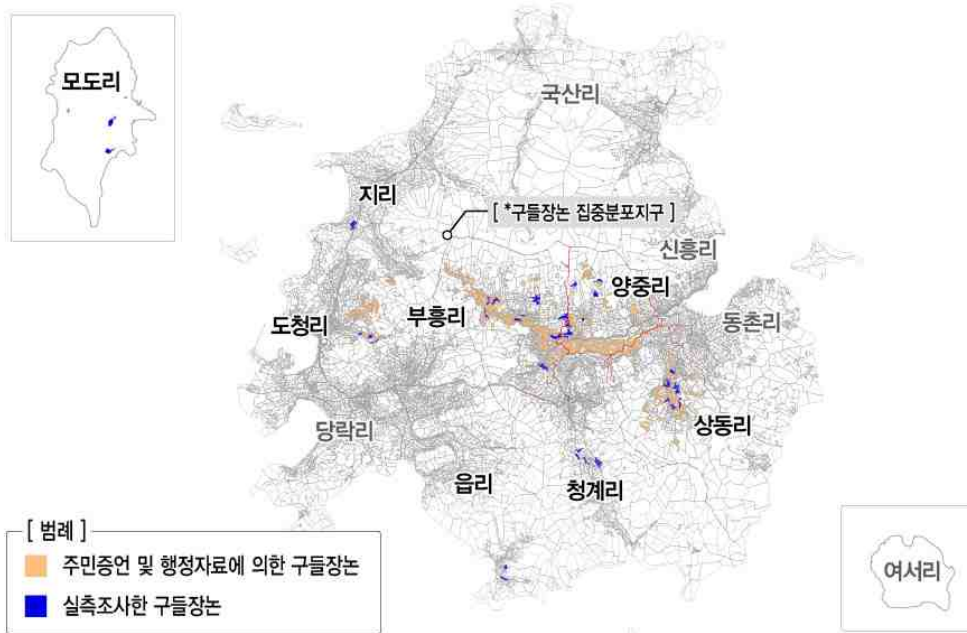
그 결과, 청산도 구들장 논은 산림과 마을 경계부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며 총 8개 법정리⁵³⁾, 895필지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면적은 약 652,828m²이었으며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구들장 논은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에 집중분포하고 있었다. 집중분포지역에는 연속관개구조가 육안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해당되는 84개필지, 면적 74,705m²의 구들장 논은 현장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세부항목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부흥리는 산간지형에 의한 전통방식의 지표 관개수로가 확인되었으며, 양중리는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에 개보수된 형태의 지표 관개수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상동리의 경우 연결한 2개 이상의 통수로나 배수기능의 통수로 등 상대적으로 많은 통수로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각 마을의 지형과 자연환경 조건에 따라 물리적 형태와 구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53)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청계리, 지리, 도청리, 읍리, 모도리가 해당한다.

청산도 구들장 논 분포현황 조사결과(2014.8)⁵⁴⁾

| 법정리 | 필지 수 | 면 적 | | | 특별보전 관리구역 | 실 측 | | |
|-----|------|----------------|------|-------|--------------|------|----------------|-----|
| | | m ² | ha | 비율(%) | | 필지 수 | m ² | ha |
| 부흥리 | 338 | 237,044 | 23.7 | 36.3 | 21개 필지 | 28 | 29,402 | 2.9 |
| 양중리 | 207 | 165,667 | 16.6 | 25.4 | 6개 필지 | 12 | 11,459 | 1.1 |
| 상동리 | 174 | 127,605 | 12.8 | 19.5 | 9개 필지 | 20 | 14,642 | 1.5 |
| 청계리 | 82 | 58,716 | 5.9 | 9.0 | | 8 | 6,632 | 0.7 |
| 읍 리 | 6 | 1,939 | 0.2 | 0.3 | | 2 | 1,939 | 0.2 |
| 지 리 | 5 | 3,819 | 0.4 | 0.6 | | 5 | 3,819 | 0.4 |
| 도청리 | 67 | 50,487 | 5.0 | 7.7 | | 3 | 2,877 | 0.3 |
| 모도리 | 16 | 7,551 | 0.8 | 1.2 | | 6 | 3,935 | 0.4 |
| 합 계 | 895 | 652,828 | 65.3 | 100.0 | 36개 필지 | 84 | 74,705 | 7.5 |



청산도 구들장 논 분포현황 종합 결과

54) 청산도 구들장 논 보전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조사기간 내 추진한 주민증언조사 및 실측조사에 의한 구들장 논 분포현황 결과를 종합하였다.

② 구들장 논 개념정의

청산도 구들장 논은 일반 계단식 논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자세히 비교해보면 논을 조성하는 방식과 물을 다루는 관개 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반영하여 청산도 구들장 논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단식 논(다랭이 논)에 관한 연구 자료와 문헌을 검토하고 중국(국립과학원 민칭웬 교수)과 일본(다랭이논학회)의 농업유산 전문가와 단체에 구들장 논의 특징에 관해서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청산도 구들장 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 청산도 구들장 논의 구성요소 및 개념정의 ■

청산도 구들장 논은 경사가 심한 지형에 인위적으로 구들을 놓아 논의 기초를 쌓고 흙을 다져서 만든 논으로 상부 논으로부터 집수된 물을 암거(수로)를 통해 하부 논에 배수함으로써 부족한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연속관개구조의 논을 말한다.



돌로 다져 만든 기반층



벽면부 석축



통수로



보조수로(셋돌)

③ 청산도 구들장 논 보전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 구들장 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체계 및 제도 마련·운영

구들장 논의 물리·환경적 보호와 가치 보전을 위해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들장 논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세부 보전관리체계와 지원제도를 구상하였다. 구상된 모든 보전관리 체계와 제도는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와 담당행정관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한 후, 지원대상과 범위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 구들장 논 보전관리체계 및 지원제도 ■

| 구 분 | 주요내용 | 비 고 |
|----------------------|--------------------------------|--------------|
| ① 구들장 논 보전관리 체계 마련 | 1. 구들장 논 보전관리 기본원칙과 활용 기준 마련 | 보전상태에 따른 활용 |
| | 2. 구들장 논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 | 보전관리활동 지원 |
| | 3. 구들장 논 보전관리를 위한 지구/구역 지정 | 분포지역 현장실사 |
| ② 구들장 논 보전관리 지원제도 운영 | 1. 구들장 논 경작활동 지원방안 마련 | 휴경지 복원 및 활용 |
| | 2. 구들장 논 보전관리 전담 인력 배정 및 운영 | 보전관리 실효성 제고 |
| | 3. 구들장 논 분포현황 및 특징 DB 구축/운영 | 구들장 논 조사 체계화 |

• 구들장 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구들장 논의 다원적 가치 활용측면에서 농업유산인 구들장 논은 청산도의 자연과 생태, 농업 전통과 문화, 주민의 삶이 조화된 하나의 유기체로서 구들장 논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함께 조화롭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들장 논을 대표적인 형태와 구조,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양종리 구들장 논체험장을 정비하고, 구들장 논 주변의 자연 및 마을경관, 유희자원과 시설 등을 연계 활용하여 구들장 논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구들장 논 오너제도를 통해 구들장 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도시민들이 농업유산 보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구들장 논을 농업유산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증장기적 관점에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구들장 논을 가치 전승을 위한 주민, 행정, 관계 전문가가 협력하는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를 중심으로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리더 그룹의 내발적 역량을 강화하는 휴먼웨어 사업을 제시하였다. 구들장 논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된 탐방 프로그램, 오너제도, 보존협의회 구성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은 농업유산의 가치창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 구들장 논 보전관리 실행방안 ■

| 구 분 | 주요사업 | 비 고 |
|------------|---|----------------------|
| ① 하드웨어 부문 | ① 구들장 논 체험장 정비 - ‘구들장 논 열린 박물관’ ② 구들장 논 탐방로 정비 | 농업유산의 기초기반/공공성 강화 |
| ② 소프트웨어 부문 | ③ 구들장 논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④ 구들장 논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⑤ 구들장 논 오너제도 운영 | 농업유산의 다원적 가치 활용 |
| ③ 휴먼웨어 부문 | ⑥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⑦ 구들장 논 보전관리 지역역량강화 사업 | 농업유산활동의 주민참여 제고 |

나. 구들장 논 지표 및 자원조사

구들장 논 지표 및 자원조사는 청산도 구들장 논이 농업유산으로서 체계적인 물리적 보전과 관리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가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들장 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조사방식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 증언 그리고 자료 수집을 토대로 한 현장실사가 중심이 되었다. 지표조사는 구들장 논 시굴조사와 생태환경조사를 진행하였고 시굴조사의 경우, 지층 형태 및 구조, 관개, 토양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내부구조를 파악하였다. 생태환경조사의 경우, 구들장 논과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을 조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알아보고 생태적 보전관리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자원조사는 구들장 논과 전통농경문화 관련 유·무형 자원조사를 통해 인문·사회적 자원을 발굴하였다.

① 지표조사

• 구들장 논 시굴조사

구들장 논 시굴조사는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의 감독과 지역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참관 하에 문화재 시굴조사 전문기관과 농업 관개배수 및 토양성분조사 전문연구팀을 위촉하여 실시하였다⁵⁵⁾. 시굴조사 대상지는 구들장 논 분포현황 조사 결과 집중분포지역인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중 통수로와 수직 수구로 구들장 논의 연속 관개구조가 육안으로 나타나고 논 소유주와 협의가 가능하며 시굴 장비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였다.

55) 시굴조사 전문기관인 우리문화재 연구원(이진주 부장, 장순자 과장, 고용수 과장), 농업 관개 배수 및 토양성분조사 전문가로 전남대학교 윤광식 교수 연구팀이 총괄하였다.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양중리 426-1번지(소유주 김광신씨), 부흥리 942번지(소유주 채충기씨)로 총 2회의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추진방식은 우선적으로 논 소유주와 함께 대상지를 답사하여 시굴지점과 구간을 논의한 뒤 실질적인 시굴일정을 정하였다. 실질적인 시굴조사는 구들장 논의 수직단면과 층위구조, 통수로의 수평구조에 대한 관찰조사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시굴작업 후 복원작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구들장 논은 인위적인 인력으로 돌을 쌓고 지하관개수로인 통수로를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방수기능을 하는 붉은색 점토층과 함께 복토함으로써 농토를 개간한 독특한 형태의 계단식 논임을 규명할 수 있는 수평적 암거형수로와 수직적 층위구조, 토양물성에 대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구들장 논 1차·2차 시굴조사(2014.4.22 / 2014.7.4)

• 구들장 논 생태환경조사

구들장 논 생태환경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 생물다양성 정밀조사를 위해 동물생태조사와 식물생태조사로 구분하여 2014년 6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였다⁵⁶⁾. 조사범위는 연속관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의 구들장 논과 그 주변, 비교지역으로는 청계리의 일반 계단식 논과 그 주변으로 설정하였다. 생태환경조사 결과, 구들장 논과 일반 계단식 논은 흡사한 토지피복 형태이지만 통수로, 석축 등 구들장 논이 가진 독특한 물리적 구조에 따른 새로운 생육환경 조성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구들장 논 고유의 물리적 특성과 그 주변 환경을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56) 동물생태조사는 생태보전연구소 김명철 박사 연구팀이 식물생태조사는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 연구팀이 총괄하였다.



구들장 논 동물생태(좌), 식물생태(우) 현장조사

② 자원조사

자원조사는 문헌고증과 주민면담, 방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관련 문헌자료가 부족하여 지역주민 대상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적 특징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 구들장 논 농업 및 관개관리 기술조사

청산도는 수량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적 기후환경으로 인해 하부채움석과 인위적인 복토로 형성된 구들장 논에서 농사를 짓는 특색 있는 전통농법과 관개관리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구들장 논 의 전통농법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비배관리, 작부체계, 경운작업, 농기구, 협력 공동체 등이다. 비배관리는 용탈이 심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조한 풀과 분뇨를 섞은 퇴비를 연중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읍순(자귀나무 어린잎)을 비료로 사용한 특징이 있다. 작부체계의 경우 1년 1작과 벼의 후작으로 보리를 재배하는 1년 2작으로 구분된다. 구들장 논 의 경운작업은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 쟁기질 종류가 다양하고 횡수도 많은 편이다. 특히 토층이 얇기 때문에 정교한 경운기술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일반 농기구와 차별화된 농구를 사용하였다. 구들장 논 농가들 사이의 특징적인 농업공동체 활동은 ‘소언두’라는 소(牛) 품앗이 제도이다. 이는 제한된 기간 내에 많은 횡수의 논갈이를 해야 하는 구들장 논 의 경운작업에 따른 협동노동 형식이였다.

구들장 논 의 관개관리기술은 소규모 수리시설인 ‘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였으며, 보 인근 경작지에 순차적으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보 주변 경작자 5~6명씩으로 구성된 수리계를 만들었으며 그 구성원을 ‘보작인’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수자원 관리 운영시스템은 점차 개별 지향적 농업사회로의 변화와 휴경지가 증가하면서 사라지고 있다.



구들장 논 전통 쟁기모습(좌), 보를 관리하는 보작인(우)

• 청산도의 유·무형 농업문화 자원조사

청산도는 과거부터 전통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생활양식이 형성되었으며, 식량생산의 중요한 수단인 구들장 논은 농업활동의 안정과 기우에 대한 염원이었다. 또한 쌀이 귀한 지역이었지만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쌀을 이용한 전통사상이나 풍습 등과 관련한 농업생활문화가 현재까지 전승되어 왔다.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전통문화 활동으로는 유생들이 공부한 서당이었던 부흥리의 승모사에서 현재 음력 3월 3일에 지역 유림들이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조상 섬김과 마을의 안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와 당제는 각 마을에서 시기별로 지내고 있다. 개별적인 풍습으로는 농사의 풍년과 후손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곡신을 모시는 ‘칠성’과 ‘지앙’이 전해지고 있다.

구들장 논의 고된 농업활동과 함께 해온 농민들의 농요가 전해져왔다. 구들장 논 농요는 “...서마지기 논배미는 반달같이도 심어졌네...”라는 구들장 논 외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풀을 뽑을 때, 밭을 맬 때, 추수를 할 때 등 농사짓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노랫말과 곡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이 선창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다함께 후창하는 방식으로 소리가 맞으면 흥에 겨워 노동의 효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청산도 송모사 전통제례(좌), 전통신앙 관련 주민면담(우)

다. 구들장 논 농업유산의 가치창조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① 구들장 논 전통농업 전수 주민교육 운영

구들장 논 전통농업 전수 주민교육은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 농업유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구들장 논을 지속적 보전·계승을 위해 역량교육 2회, 전수교육 2회로 구성하여 ‘청산도 구들장 논 학교’를 운영하였다.

• 청산도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 교육

보존협의회 교육은 구들장 논을 실질적인 보전·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에 대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우선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 준비과정 중 구성된 구들장 논 주민협의회를 재정비함으로써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내발적 참여의지를 도모하였다. 또한 구들장 논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화되고 있는 청산도 구들장 논 관련 지식과 정보를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구들장 논 지역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산도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 구성 준비 회의에서는 조직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보존협의회 구성은 실제로 구들장 논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 중심으로 참여하고 구들장 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흥리, 양지리, 상서리 중심으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기타 주민들은 이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체적으로 완도군(청산면사무소)과 연구팀에서 제안한 조직구성(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동의했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청산도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 구성 준비 회의(2014.4.1)

• 청산도 생태문화관광해설가 구들장 논 교육

현재 활동 중인 청산도 생태문화관광해설가를 대상으로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청산도 구들장 논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교육하여, 이들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들장 논 방문객들에게 유익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양지리 구들장 논체험장 조성이후, 양중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구들장 논 해설 프로그램을 청산도 구들장 논 탐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산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 해설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산도 관광해설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해설 기법을 숙지하고 있는 관광해설가들이 구들장 논에 대하여 해설할 때, 관광객들에게 전달해야 할 구들장 논 기본개념과 생성 배경, 역할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해설가들이 개별적으로 구들장 논을 연구하고 해설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들장 논 관련 교재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구들장 논 해설가 교육 사전 준비 및 해설가 교육(2014.4.1.)

• 구들장 논 전통농업 전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산도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와 지역주민들이 구들장 논 의 물리적 구조와 특징에 대한 이해와 구들장 논 의 조성방식, 층위구조 등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돕기 위해 시굴조사 시기에 맞춰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2014. 7. 4)하였다.

구들장 논 시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⁵⁷⁾들로부터 지금까지 추측해왔던 구들장 논 의 조성 방식과 위아래 논 간의 관개시스템에 대해 시굴된 구들장 논을 관찰하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듯 현장학습을 통해 기존 논 소유주와 기타 경작농기들의 증언에만 의존했던 구들장 논 지식체계를 전문가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객관화할 수 있었다.

현장학습에 이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등재 이후까지 청산도 구들장 논 연구와 활동과정을 되돌아보고 지역주민들이 1일 강사로 참여하여 구들장 논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열린강좌를 양지리 느린섬여행학교에서 가졌다.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들장 논 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점점 휴경화되고 있는 구들장 논 보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부흥리의 유승표 주민과 양지리의 임화규 주민을 1일 강사로 초청하여 구들장 논에 대한 경험과 2년여 동안 구들장 논 연구를 행정,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서 느낀 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이러한 열린강좌 운영을 통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까지의 행정-주민-전문가 상호연계 협력 과정을 돌아보고, 명목상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건강한 농업유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구들장 논 시굴 참관 교육(2014.7.4) 및 열린 강좌(2014.7.17.)

57) 우리문화재연구소의 이진주 부장과 전남대학교의 윤광식 교수가 참여하였다.

② 농업유산 홍보 및 교류활동 프로그램 운영

농업유산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청산도 구들장 논의 지속적 보전·계승 활동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민과 농어업 관련단체를 초청하여 농업유산 활용 가치창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구들장 논 도시민교류 - 즐거운 청산도 구들장 논 학교

구들장 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농경문화체험을 실시하여 “동참”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구들장 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들장 논 오너제도 참여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민교류 이벤트를 2회 운영하였다. 최근 구매력 확대로 유통단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향력 높은 소비자 커뮤니티(아이쿱생협)를 초청하여 구들장 논 모내기체험과 풍경그리기, 슬로길 걷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어, 전국 각지의 도시민을 청산도로 초청하여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구들장 논 의미와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구들장 논 생태체험과 농경문화체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단위 규모의 아이쿱생협 연합회 조직과의 연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구들장 논 오너제도 홍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구들장 논 홍보이벤트 - 농업유산보전 캠페인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역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완도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40명을 초청하여 슬로시티 청산도의 농업유산 지역을 탐방하였다. 또한 구들장 논에서 진행한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구들장 논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자발적으로 구들장 논 전승과 보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이쿱 생협과 함께하는 즐거운 청산도 구들장 논 학교(2014.6.22.)



완도고등학교 초청 구들장 논 홍보이벤트(2014.8.15)



도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청산도 구들장 논 학교(2014.8.16.)

③ 완도군 공직자들의 구들장 논 복원활동

청산도 구들장 논 농가들이 고령화되면서 경작을 포기함에 따라 세계 중요농업유산인 구들장 논이 휴경지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도군 공무원들이 직접 복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완도군청 친환경농업과와 청산면사무소 직원 30여 명은 상서마을 앞 휴경지 구들장 논 330㎡에 모심기 작업을 실시(2014. 7. 17)하였고, 6개월 동안 직접 관리했던 직원들은 콤바인 대신 전통방식인 낫질로 벼를 수확(2014. 11. 5)하였다. 이곳에서 40kg 들이 벼 2가마를 수확했으며 건조 후 떡을 만들어 지역 내 불우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안도군 공직자들의 구들장 논 복원활동(2014.7.17 / 11.5)

(2)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종합계획⁵⁸⁾

제주 밭담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2014년 8월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 밭담 보전·관리·활용의 철학과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 기본과제, 핵심전략과 실천과제 등을 입체적으로 도출하였다.

이 종합계획에서는 제주 밭담 보전지역 지정방안을 제시한 후, 장·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기사업으로는 제주 밭담 복원·정비와 탐방코스 조성, 체험테마공원 조성, 제주 밭담축제 등 홍보·기획사업, 밭담 장인 발굴·지정 등이 제시되었다. 중장기사업으로는 제주 밭담관리사업단 구성·운영, 친환경농업 확대, 제주 밭담 특화브랜드 창출 및 농산업 확대, 제주 밭담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제주세계 중요농업유산교육관 건립, 제주 밭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가. 제주 밭담 보전지역의 지정 및 자원조사

① 제주 밭담의 가치

제주 밭담은 제주지역 밭농업시스템의 핵심요소로서 밭담 자체가 제주도 전통 농업시스템의 중요한 축이다. 제주지역의 토양특성과 사시사철 불어대는 바람 등 기후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시스템이 제주 밭담인 것이다.

58)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제주의 바람은 토양 속의 수분 증발을 활발하게 하여 씨앗의 발아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토양 환경에서는 초본류 식물들이 자라나기 어렵고 유기물의 토양화 과정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은 표토의 비산을 불려와 파종한 씨앗을 겉으로 드러내버리기도 하고, 자라나는 작물들을 쓰러뜨려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토양 유실의 원인이 된다. 화산회토의 ‘뜬 땅’이 대부분이다 보니 ‘된 땅’에 비해 비에 의한 휩쓸림이 더욱 심한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의 농업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토양을 보존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농사의 성패에 직결된다. 한반도부와 농법이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경작지에 밭담을 두른 것도 그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의 밭담은 강한 바람을 막아내고 표토의 비산과 토양의 유실을 방지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을 도우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마소의 농경지 침입을 막아줌은 물론, 농경지 경계표지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이 가지는 가치는 크게 6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밭담은 화산섬 제주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밭담의 재료인 돌들이 농경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돌들이 지천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제주에 돌이 많다는 사실은 화산활동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둘째, 밭담은 주민들이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강한 바람의 영향에 적응한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요소이다. 대부분 농경지의 경작과정에서 나온 돌들을 활용하여 밭담을 쌓음으로써 바람의 영향을 감소시켜 작물의 생육을 도왔다. 셋째, 밭담은 시간적으로 1천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성과 함께 경지정리사업의 영향 속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현시점에서 농경지의 보호는 물론, 경계선 기능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넷째, 밭담은 고도에 따라 다양한 암석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해안가에서는 ‘떡돌’을 이용한 밭담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중산간지역의 밭담은 이 지역이 오랜 기간 목장으로 활용되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밭으로 사용하게 된 역사적 사실로 인해 이 지역 밭담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밭담은 제주지역의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가령 산방산 주변의 밭담은 제주에서도 드문 조면암으로 형성되었고, 신양리 밭담은 퇴적암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밭담 자체가 각 지역의 지질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리적 요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섯째, 밭담은 농경지의 경계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특정지구의 토지이용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제주 밭담의 이 같은 가치 외에도 다양한 현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제주 밭담은 제주의 미학을 대표하는 자원이기도 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삶의 역사라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의의도 지니고 있다. 또한, 제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함께 제주 미래관광의 핵심코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등 미래가치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환경의 변화로 제주 밭담도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제주 밭담은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농업활동과 함께 그 생명력도 이어오고 있지만, 근래 들어 밭담의 모습은 1968년에 제주 최초로 경운기 기술교육 수료식과 함께 등장한 농업의 기계화와 과학영농의 도입, 그리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재배작물과 도시화, 돌 가공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그 변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농업의 기계화는 밭담에서의 기계사용을 불편하게 하였고, 특히 곡선형태의 밭담은 기계의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의 몇몇 지역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경지정리사업은 정형화되지 못한 경지 형태를 장방형으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경작지 주변 밭담도 제거하여 농민들이 기계로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비닐하우스에서의 농업활동은 밭담이 소유지 경계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기능을 사라지게 하였다. 감귤산업의 정착도 제주지역 농업환경의 변화의 주요인으로 밭담의 훼손에 영향을 미쳐왔다. 도시화의 확산도 제주 밭담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 밭담의 모습은 도시화와 함께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많은 도시지역 시설이 기존의 농업지역에도 들어서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심 내외의 도로 시설 등은 밭담들을 사라지게 하였고, 농업지역에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밭담들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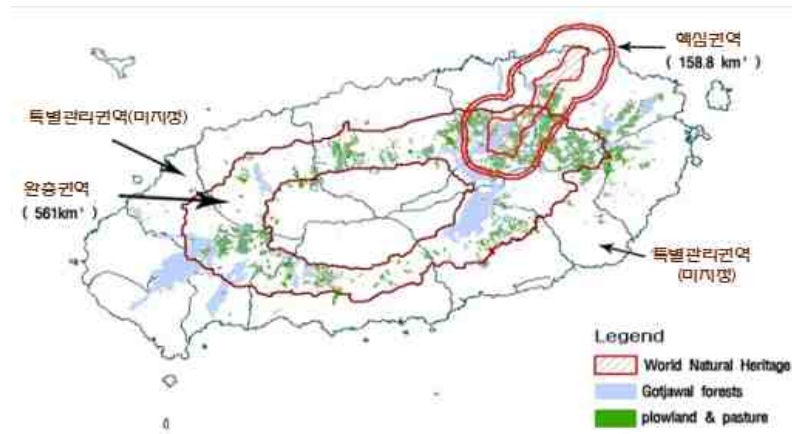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현재까지도 밭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경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경작지 경계의 밭담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차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제주의 여타 돌문화와는 달리 그 기능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큰 농업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도 제주의 농민들은 밭담이 작물재배에 있어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등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제주 밭담의 다양한 가치를 유지·발전시킴으로써 제주 농업은 물론, 관광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주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구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② 제주 밭담 보전지역 지정

제주 밭담 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기준 설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제주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전과 함께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과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고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로 하였다. 이를 전제로 제주 밭담 보전지역 지정기준은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주변에 다양한 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특히 곳자왈지역과의 관련성), 현행법에 의해 경관이 관리되고 있거나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구, 생물권보전지구, 세계지질공원 지구와 연계될 수 있는 지역, 보전과 아울러 향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하였다⁵⁹⁾.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 가운데 세계자연유산지구를 핵심권역, 중산간 지대를 완충권역으로 하며, 기타 지역 가운데 특별관리권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핵심권역은 세계자연유산 핵심지구로서 대부분 공유지로서 관리가 용이하고 지구관리계획에 의해 친환경농업 등이 이루어지므로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에 용이하다. 5개 농촌마을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블랙농업특구 지정 등 다양한 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완충권역은 중산간 지대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보전에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별관리권역은 해안에서 중산간 지대에 이르는 지역 가운데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의 집중도와 경관이 우수한 군락지를 특별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 권역은 위에서 언급한 제주 밭담 우수관리지구 지정기준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주민의 제주 밭담 보전 의지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우수관리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59) 이 같은 기준과 함께 아래의 제주 밭담 관리지표를 고려하여 그 보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최종 지정은 공모를 통하여 주민들이 제주 밭담 보존·관리 의지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제주 발담 보전지역 권역 구분 】

사업도 권역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1단계사업으로 핵심 권역 내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제주 발담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통한 성공모델을 창출해냄으로써 향후 여타 특별관리권역 내에서 우수관리지구 지정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발담이 집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완충지역에서는 발담의 보존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2단계에는 지정공모를 통하여 제주 발담우수관리지구를 1차로 2~3곳을 추가 지정하여 기본적인 보전·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차별화된 활용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3단계에는 공모를 통하여 제주 발담우수관리지구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단, 우수관리지구 지정에 앞서 제주 발담 유형별 자원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해당 자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발담 자원이 함께 보전·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③ 제주 발담 자원조사 실시

- 핵심권역 농촌마을 인문자원조사 실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중심으로 6개 농촌마을이 포함되는 지역을 핵심권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발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발담 자원조사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한달 동안 3인 1개조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세계 중요농업유산 제주 발담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인문자원 조사를 위해 6개 마을별(조천읍 선흘1리, 선흘2리, 구좌읍 김녕리, 월정리, 행원리, 덕천

리)로 현장취재와 주민인터뷰를 병행하여 사진촬영과 녹취를 병행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밭담 유형(외담, 접담 등)과 권역별(해안, 중산간 등) 조성형태와 권역별 밭담 조성시기(초지 또는 목장지대 개간을 통한 밭담 조성 시기 등)에 대한 역사성, 밭담 쌓는 방식, 석공 현존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밭담·돌담 쌓기 관련 스토리, 주요 재배 밭작물 변천과 현황, 축산과의 관계, 밭에 주로 자라나는 잡초, 과거와 현재 거름 방법, 인근 마을과의 밭담 관련 차별성 (높이, 쌓는 방식 등)과 기타 돌문화에 관한 내용도 조사하였다.



제주 밭담 핵심지역 마을 현장조사(선흘리, 김녕리)



제주 밭담 핵심지역 마을 현장조사(덕천리, 월정리)



제주 발담 핵심지역 마을 현장조사(행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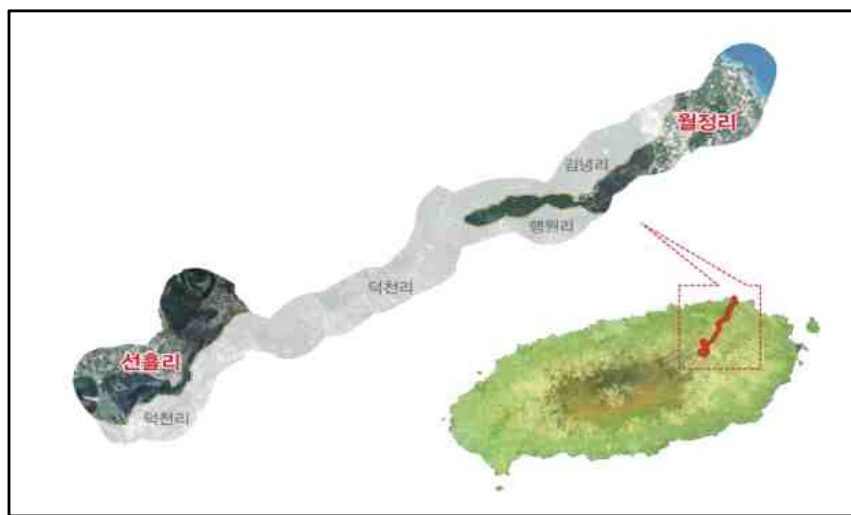
- 제주 발담 핵심지역 자원 전수조사

핵심지역 제주 발담 자원조사는 제주 발담이 가지는 가치를 재인식하고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DB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핵심지역인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발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제주 발담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원(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원)이며 조사내용은 발담 현장사진, 유형별 분류, 길이, 높이 등이며, 조사방법으로는 발담 실측시 발담 길이와 높이를 알 수 있도록 측량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측점별로 길이, 높이, 특성과 형태, 현장 상세사진이 포함된 현황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총길이(연장)는 128.69km로 조사되었으며, 리별 발담길이는 월정리 99.98km, 김녕리 13.90km, 덕천리 8.71km, 선흘리 5.51km, 행원리 0.59km 순으로 조사되었다. 발담의 폭은 외담 15~50cm, 겹담 30~100cm이며, 발담의 높이는 외담 0.3~2.6cm, 겹담 0.3~2.5cm로 조사되었다.

월정리, 김녕리, 행원리는 바닷가 특성상 밭이 모래밭으로 되어 있었으며, 재배되는 작물은 무, 당근, 파, 쪽파 등 이었다. 덕천리, 선흘리는 한라산인근으로 밭이 흙으로 되어 있었으며, 재배되는 작물은 감자, 감귤 등이었다. 또한 밭담 주변으로 보이는 특이사항은 설덕, 빌레, 머들, 머드레 등이 있었으며, 일부 밭은 수로를 설치하여 물빠짐이 잘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밭담의 높이 실측은 밭담의 높이가 높은 부지에서 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나의 변에 1개의 지점을 선택하여 높이와 유형을 분리하여 적용하고 수치지형도와 지적 현황도에 밭담의 유형(TYPE)별 높이 등을 현장 조사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원조사를 실시한 제주 밭담 핵심지역】

나. 보전 및 활용계획

① 단기계획

단기계획은 제주 밭담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업부문은 크게 정비개발, 환경개선, 가치제고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제주 밭담을 복원·정비하고 탐방코스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제주 밭담 복원·정비사업은 제주 밭담 탐방코스 내 훼손된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1,500m 범위이다. 이 사업은 탐방코스 내 국·공유지와 사유지 현황과약을 통해 복원과 정비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테마공원 인근지역의 경우, 사유지보다 공유지가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테마공원 조성지로서 인근 주변 밭담정비 또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원형자원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라 복원·정비를

실시하며, 권역 내 발달 장인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테마공원과 탐방코스 구성을 연계하기 위한 유형별 발달 조성 가능성과 적정 대상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탐방코스 조성사업은 기존 농로와 마을안길을 경유하는 탐방로 조성함으로써 제주 발달과 어우러진 농촌마을의 경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전통가옥과 해변 등 문화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도록 코스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관광, 농촌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탐방로 조성은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을 경유하기보다 되도록 대로변과 가깝고 해안경관과 제주 발달, 제주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올레길 등과 연계하는 코스선택으로 접근성을 향상하고 홍보의 용이성을 도모하였다. 각 코스는 각각의 코스별로 특색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코스로 아우를 수 있도록 계획하여, 탐방객의 선택에 따라 완주 또는 코스별로 선택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해나가기로 하였다.

■ 사업부문별 세부사업 ■

| 분야 | 사업내용 | 세부사업 |
|------|------|---|
| 정비개발 | 기획설계 | 제주 발달 보전관리종합계획 수립 |
| | 자료조사 | 핵심(시범)지구 내 제주 발달 자원조사 - 주민·전문가 생태환경 조사활동 |
| | 자원정비 | 제주 발달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 - 제주 발달 시범지역 경관 조성 |
| 환경개선 | 환경정비 | 체험테마공원 조성 |
| 가치제고 | 가치창조 | 제주 발달 홍보·기획 - 주민활동·유산보전위원회 활동 지원 - 스토리텔링 및 스토리북 발간 - 제주돌문화 아카데미 운영 - 농업유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제주 발달 상표등록 및 관리 - 농업유산 국내·외 홍보활동 |
| | | 제주 발달축제 |
| | | 석공장인 발굴·지정 |
| |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관련 학술행사 추진 |
| | | 농어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추진 - 홍보활동 사업 - 선진사례 조사 |

체험테마공원 입지는 핵심권역 시범지구로 설정된 제주시 구좌읍 일원으로 하며, 5,948㎡의 규모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체험테마공원에는 제주 발달의 다양한 유형 등 홍보시설을 구축하며, 탐방코스를 조성함에 있어 김녕, 월정, 행원 3개 마을의 문화와 자연 경관, 제주 발달을 감상할 수 있도록 코스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핵심지구와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으로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발달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관람·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테마공원과 탐방코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관광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 발달정보시설 제작과 적절한 위치에 해설을 담은 안내시설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제주 발달 홍보·기획사업은 주민참여, 유산보전관리위원회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해안가 3개 마을 중 핵심 추진마을을 선정하여 이 마을을 중심으로 발달 지역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비하는 것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조례에 의해 구성하는 유산보전관리위원회의 초기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주 돌문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제주 발달과 제주의 돌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의 폭을 넓혀나감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발달 해설사 양성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스토리텔링과 스토리북 제작 발간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제주 발달의 탄생배경과 역사, 관련된 다양한 농경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CI, BI 개발과 친환경농작물의 상표사용 등을 위한 기본 매뉴얼도 제작함으로써 제주 발달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홍보 팸플릿 제작, 국가 중요농업유산과 세계 중요농업유산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핵심권역 인근에 돌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제작·전시하는 자치단체 운영시설과 민간 운영시설을 연계하여 돌문화와 제주 발달의 홍보효과를 올리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상가지역과 각종시설 연계, 유산보전관리위원회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스토리텔링 개발 등 유산보전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제주 발달축제는 제주 발달 시험지구 내 탐방코스과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행사에는 제주 발달 사진전, 지역주민의 발달에 관한 해설 청취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며, 발달 쌓기, 돌 공예품 개발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계 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발달의 우수성과 농업·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관광객과 농업관계자, 지역주민이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하며, 가능한 발담장인을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제주 발담과 돌문화 가치 확산을 바탕으로 제주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국가 중요농업유산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발담의 체계적인 축조 기술과 경작기술 등에 대한 문헌자료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발담 축조에 대한 발담장인을 지정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제주 발담의 농업문화를 전승할 필요가 있다. 발담을 쌓는 전문 석공들의 고령화로 기술전수가 여의치 않아 발담 축조 기술을 복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발담 쌓기 기술은 지역마다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석공들 사이에서도 기술적 교류가 없어 이를 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가칭)제주 특별자치도 발담장인연합회 구성을 지원하여 이 같은 전승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한편, 지역에 돌담 축조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 모임을 활성화로 추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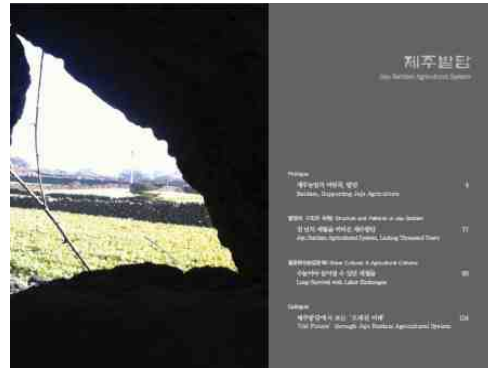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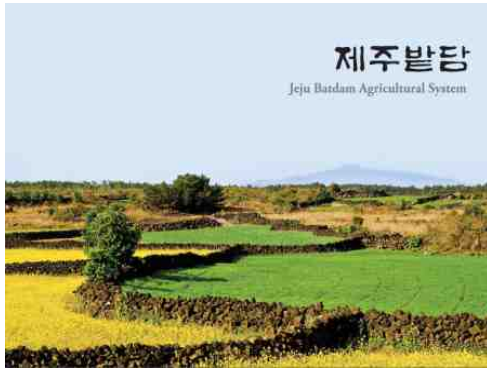
② 중장기계획

중장기계획으로는 제주 발담 데이터베이스구축, 우수관리지구 단계별 확대, 경관보전 직불제 확대, 제주 발담관리사업단 구성, 제주세계 중요농업유산교육관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 발담 특화브랜드 창출과 농산업 확대, 친환경농업의 단계적 확대, 제주 발담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발담 재발견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별 경관협약 체결, 향토문화예술 진흥지원 및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성과평가체계 구축과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제주 발담 가치 회복과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① 세계 중요농업유산 제주 발담 홍보용 도록 제작

제주 발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록 ‘제주 발담’을 제작·발간하였다. 125쪽 분량의 도록에는 사진 97점을 실었는데, 발담의 구조와 유형, 제주의 돌문화와 농업문화 등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전경들을 담았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해설을 가미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영문 번역을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제주 발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⁰⁾.



제주 밭담 홍보를 위해 제작발간한 도록

② 제주 밭담 사진 전시회 개최

- 제주 밭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념 사진 전시회(2014. 4.7~11)

2013년 1월에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2014년 4월 1일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확정에 따른 기념 사진전이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제주도청 로비에서 열렸다. 지역 사진작가들의 작품 35종이 전시되어 제주 밭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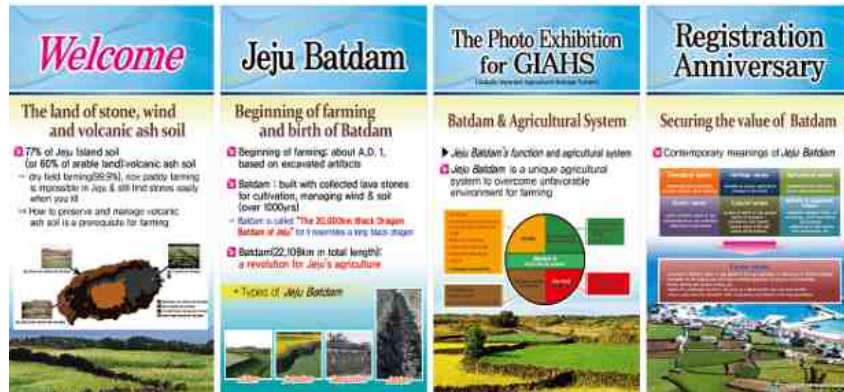


제주 밭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념 사진 전시회(2014.4.7.~11)

- 60) 도록 제작에는 사진작가 서재철, 제주영상동인회 김환철, 이창훈, 임성복, 전문규와 이미지팩토리(Image Factory)가 사진을 제공했으며, 총괄기획은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연구위원, 구성·집필은 문소연, 김지택, 오홍석, 번역은 유원희가 각각 맡았다.

- 세계토양학회 개최시 제주 밭담 홍보 동영상 방영 및 사진전(2014.6.8~14)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국내외 홍보를 위해 2014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토양학회 행사장에서 제주 밭담 동영상 방영과 30종의 제주 밭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세계토양학회 개최 시 제주 밭담 홍보 동영상 방영 및 사진전(2014.6.8~14)

- 탐라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제주 밭담 사진전 개최(2014. 9.18~25)

제53회 탐라문화제가 열리는 데 맞춰, 2014년 9월 18일부터 일주일간 행사장에 ‘제주 세계문화유산관’을 설치하고 제주 밭담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탐라문화제 행사시 제주 발담 사진 전시(2014.9.18.~25)

• 2014 서귀포 국제 감귤 박람회시 사진전 개최(2014.11.13~20)

2014 서귀포 국제감귤 박람회 개최시에도 제주 발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전을 열었다. 11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서귀포농업기술원 감귤홍보관 2층 로비에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30점의 제주 발담 경관사진과 함께 제주 발담 관련 배너를 게시하여 축제 참가자들에게 제주 발담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역사와 가치를 홍보하였다.



2014 서귀포 국제 감귤 박람회(Pre) 행사시 제주 발담 사진 전시(2014.11.13.~20)

③ 제주 발담 보존·활용 관련 기획물 지방일간지 집중 연재

제주 발담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과 홍보업무를 공동 수행해오던 한라일보에서는 등재 후에도 제주 발담의 보존과 활용 관련 기획물을 연재하였다. 2013년 초부터 특별취재팀을 꾸려 기획기사 '흑룡만리 제주 발담'을 연재해 온 바 있는 한라일보에서는 향후 제주 발담의 체계적인 보존과 적절한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⁶¹⁾.

④ 제주MBC 제주 밭담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제주MBC(대표이사 사장 최진용)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 제주 밭담’(연출 김연화, 촬영 김기호)이 제작되어 2014년 11월 24일 방영되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최근 제주 밭담이 농업용 기계의 사용을 불편하게 하고 토지 측량 등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바람을 이겨낸 제주 밭담의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돌담을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보전되어야 할 농업문화로 보호·관리하고 있는 영국의 돌담 정책을 살피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짚어보기도 하였다.

61)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주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기획기사에 큰 관심을 보여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2013년 12월 농업유산 발굴과 농촌경관 보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라일보사는 제주 밭담 관련 기획기사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4 지역신문 콘퍼런스’에서 기획보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2014년 4월에는 제주 밭담 관련 기획물이 한국기자협회 제283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특별취재팀 강시영·강경민·김지은 기자가 수상하기도 하였다.

6장

농업유산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6장

농업유산제도 발전방향

1. 국가중요농업유산발굴시스템의 보완

현재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발굴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심의·지정하겠다는 공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의거 해당 지역의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발굴과 제안서의 작성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유산의 신청과 지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전남도의 경우에는 유산 발굴 및 심의와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 4개 중에서 3개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소 생소하고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산에 대한 발굴이 미진하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12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농업유산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특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유산의 발굴과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념과 가치평가 기준이 충분히 녹아들어가야 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력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발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현재의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발굴 및 가치평가의 과정에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가치평가를 통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관련 학회 등의 전문가 집단의 학제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유산을 전반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유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굴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일부 지정기준의 탄력적 검토

FAO는 2012년 10월 이후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식량과 생활의 안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지식 및 기술체계, 문화·가치체계와 사회조직, 경관·토지 및 수자원의 관리라는 5가지의 기준이 그것이다. 농업유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 무엇보다도 유산자체가 세계적으로 보전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5가지의 가치평가 기준이외에도 역사성과 대표성이라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국가농업유산의 지정은 보전할 만한 가치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역사성이라는 기준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 농업유산이 보전할 만한 가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년이라는 역사성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사례에서 보면, 보전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하면 역사성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중에서 사도섬은 “따오기와 공생하는 사도섬만들기”라는 테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일본의 사도섬에서는 멸종된 따오기를 복원하고, 따오기를 사도섬의 전역으로 날려 보내면서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는 농촌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습지와 어도 및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농약을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시행함으로써 따오기의 안전한 먹이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농업시스템이나 경관의 관점이 아니라, 세계농업유산이 지향하고자 하는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FAO는 역사성 보다는 이 시스템이 후세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하여 더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FAO가 2012년 말경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의 기준을 재검토하면서 역사성이라는 기준보다는 유산의 가치자체를 평가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한 결과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전승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면 역사성이라는 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3. 국가중요농업유산 잠재지역(Potential sites)의 도입과 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유산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유산에 대하여는 유산심사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통보하고 있다.

현재의 결정방식은 신청한 농업유산이 당해 연도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심사에서 유산으로 지정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 우선,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지 또는 전혀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될 수 없는 지역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유산지역을 차후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으로 재신청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서는 어떤 내용을 보완하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없다. 또는 포기해야 하는 지역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사과정에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다음해에 재차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산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할 경우에는, 농업유산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 국가농업유산 잠재(후보)지역, 국가중요농업유산 비해당지역이라는 3가지의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농업유산잠재지역으로 결정할 경우, 동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제안서를 보완하면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가농업유산지역으로 부적합한 곳은 국가농업유산이 될 수 없는 곳이라는 명확한 이유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제도 모두 잠재지역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4. 농림어업복합형 유산의 발굴과 협력체제

세계중요농업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농업, 임업, 어업유산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은 취락의 뒤쪽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농지가 있는 배산임수의 형태가 일반적이고, 어촌지역에서는 산지, 농지, 해안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업유산을 발굴할 경우 농업, 어업, 임업이라는 부문별 접근도 해야 하나, 부문을 종합하고 통합하는 접근을 통하여 농림어업복합형 유산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림어업복합형 유산의 경우 지정규모도 상당히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규모를 보면 다수의 경우가 점적인 지정보다는 면적인 지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우리나라보다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면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은 농업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농촌공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특히 농림, 어업, 임업과 관련된 복합유산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정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산림, 농업, 어업이 연결되어 있는 유산지역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유산을 발굴하고 유산의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농업유산지역중에서 구니사키 반도지역의 경우, 참나무 숲이 있는 산지와 그 아래의 1200여개의 작은 연못(저수지)을 활용하면서, 아래의 농지시스템과 연계시키는 농업, 임업과 어업이 종합화된 유산지역(Kunisaki Peninsula Usa Integrated Forestry, Agriculture and Fisheries System)을 발굴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지역으로 등재시킨바 있다.

현 정부의 출범이후 해양수산부가 다시 창설됨에 따라, 농어업유산은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두 개의 부처가 별도 관리를 통하여 유산을 발굴 및 지정하고,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농촌과 어촌의 지역발

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업 및 어업시스템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유산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산의 발굴과 관리를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 주축이 되는 유산이 농업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어업이 주축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된다. 농업유산의 지정 시에 어업부문을 완전히 분리한다든지, 또는 반대의 경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GIAHS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FAO에 등재신청을 같이 해야 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농업유산의 개념 속에 어업유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유산적인 성격과 어업유산적인 성격이 공존하는 유산이 다수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유산을 발굴하고 심의 및 지정할 때에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는 두 개의 부처가 서로 협력하는 협력사업과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추가등재를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제주도의 밭담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시킨 바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은 매 2년마다 포럼의 개최지에서 제안서가 발표되고 심의 및 등재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지정을 위한 노력을 보다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한 결과 등재지역이 많다. 우리나라도 2014년 2개 지역에 대한 등재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고유한 농업유산을 발굴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FAO는 2013년까지 GIAHS 사이트를 25개 지정한 바 있으나, 2014년 말 현재 31개로 늘렸다. 이것은 FAO의 정책이 노토반도의 선언⁶²⁾에 입각하여 GIAHS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62) 2013년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중요농업유산 포럼에서 노토반도선언이 있었으며, GIAHS가 향후 지향해야 할 4가지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GIAHS 현장의 적극적인 추가지정, 둘째, 농업유산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활동에 대한 지원, 셋째, 저개발국가의 GIAHS후보지역의 등재지원, 넷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GIAHS현장의 자매결연 또는 다른 기구와 협력체계의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가 지정한 결과이다. 2013년까지 GIAHS사이트는 주로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이트를 아프리카나 유럽등의 타 대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리고 GIAHS 사이트를 양적으로 다수 늘려서 위상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장래에는 UNESCO처럼 관리체계 또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잘 수집해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련된 국제회의의 참여와 교류를 통해서 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2013년에 발족된 바 있는 한중일 농업유산연구회(ERAHS)에 전문가의 참여와 한국에서의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한중일간의 국제교류의 증진도 차후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보전과 활용을 지향하는 농촌개발정책시스템의 구축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보전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개발의 사업은 매우 드물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사업이 보전과 활용을 지향하는 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근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방식에 있어서 그나마 문화복지형이라는 마을개발방식이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보전과 활용을 표방하는 사업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지향점으로서 농업유산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보전을 위주로 하는 개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농업유산의 가치인 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 경관, 전통 지식과 기술 등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현재의 농촌개발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있어서 유용한 방안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이른바 지붕 없는 박물관 방식(Eco-museum)의 개념을 적용하여, 농업유산이 있는 지역을 에코뮤지엄 센터와 위성으로 구분하고, 보전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는 새로운 정책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유산에 대한 재발견과 원리의 적용을

통하여 현재의 농촌개발사업의 목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정체성이 있는 농촌공간을 재창조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지역의 정체성은 전통적인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국토공간이 이미 난개발이 되어 있고, 정체성이 상실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농업유산이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와 문화에 기반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7.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관리시스템의 보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액의 보조금을 3년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의거 농업유산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기단계에 있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 농업유산이 취지에 알맞게 지속적으로 보전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노력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잘못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우수관리 사례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유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은 근본적으로 유산의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주민공동체)과 관련 단체의 활동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의 많은 나라의 세계문화유산에는 주민들이 유산으로 지정된 건물 내부에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으며, 정부가 요구하는 보전과 활용의 기준을 잘 수용하면서 세계문화유산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유산지역의 주민과 유산을 보전하고 지켜나가는 주민단체나 조직들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로 자생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여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마다 2개씩의 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업유산의 개수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별적인 유산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한국 전체의 농업유산의 관리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서 GIAHS-JAPAN 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의 세계농업유산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과 향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 농업유산은 아직 2개에 불과하지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를 위한 대비 및 현재의 국가농업유산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한국국가농업유산 네트워크(KIAHS-KOREA)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록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 ①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현황
- ② 농업유산 활용사례
- 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 ④ 농업유산 지정관리기준(고시)
- ⑤ 제주도 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조례
- ⑥ 사업추진 일지
- ⑦ 농업유산 관련 신문기사
- ⑧ 상표등록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현황

세계 중요농업유산은 현재(2015년 1월) 전 세계적으로 6개 대륙의 13개국에 31개소가 등재되었다. 대부분이 식량생산을 위해 지리적 환경을 극복한 사례로, 전통적인 재배·관개시스템 등의 농업분야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유목 등의 목축업과 농림업, 농목업 등이 복합된 형태도 지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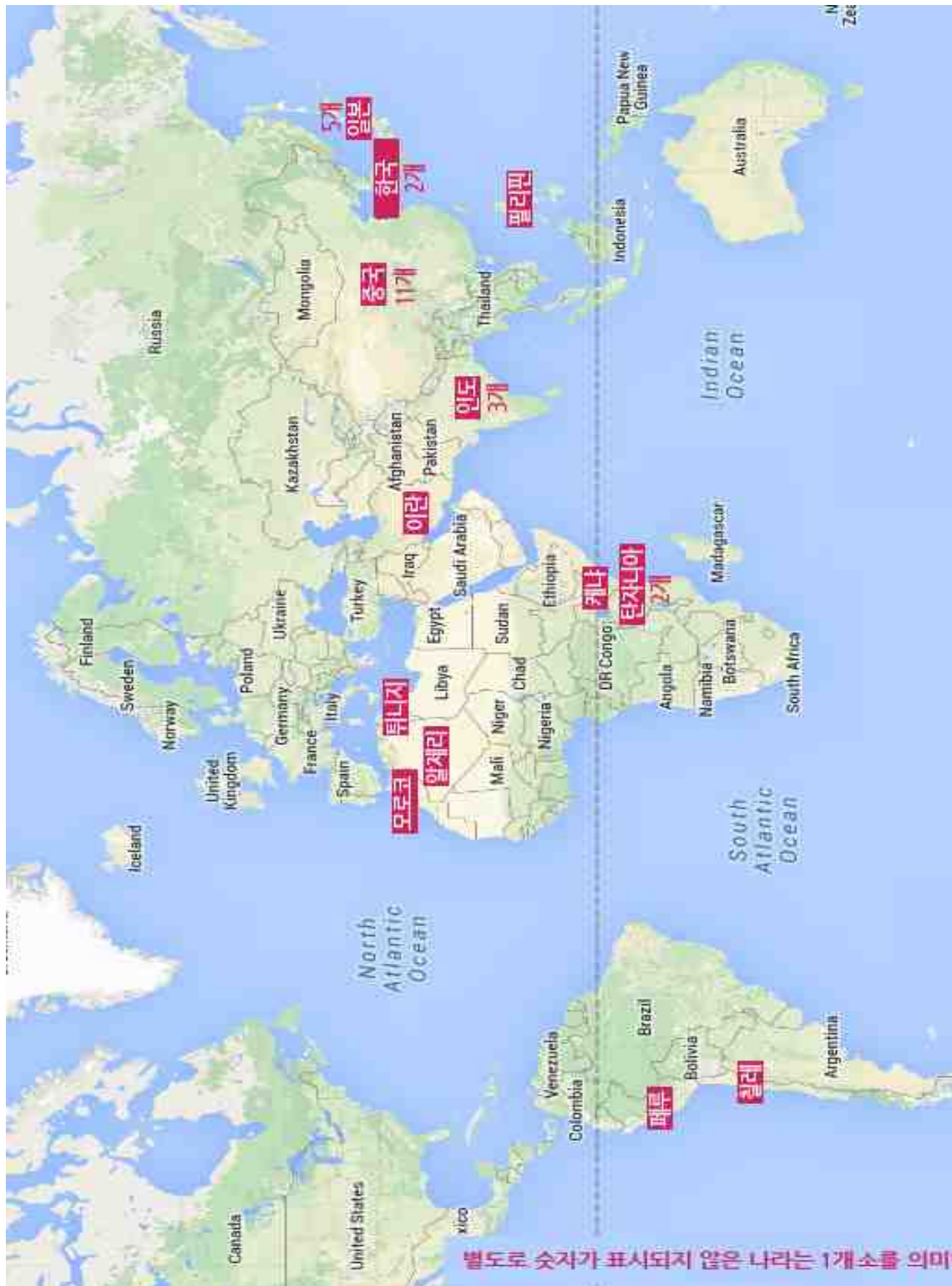
나라별로 등재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중국 11개소, 일본 5개소 순으로 가장 많이 등재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제주도 밭담 농업시스템과 청산도 구들장 논 2개소가 등재되었다.

세계 중요농업유산이 최초로 등재된 시점은 2005년으로 중국의 ‘Rice Fish Culture’가 등재되었으며, 이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재 개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재된 나라별 유산 면적을 살펴보면, 최소 49ha(중국 도시농업유산 - 산후아 포도정원)에서 최대 2,702,000ha(인도 코라푸트의 전통농업시스템)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 외 FAO는 전세계적으로 세계 중요농업유산 후보지를 91개소로 목록화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 지정 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 세계 중요농업유산 나라별 등재현황 ■

| 번호 | 나라 | 개수 | 비율(%) | 평균면적(ha) |
|----|------|----|-------|----------|
| 1 | 알제리 | 1 | 3.2 | 1,700 |
| 2 | 칠레 | 1 | 3.2 | 10,616 |
| 3 | 중국 | 11 | 35.4 | 132,430 |
| 4 | 인도 | 3 | 10 | 919,166 |
| 5 | 이란 | 1 | 3.2 | 4,65,000 |
| 6 | 일본 | 5 | 16.2 | 102,735 |
| 7 | 케냐 | 1 | 3.2 | 93,148 |
| 8 | 모로코 | 1 | 3.2 | 2,156 |
| 9 | 페루 | 1 | 3.2 | 30,798 |
| 10 | 필리핀 | 1 | 3.2 | 68,416 |
| 11 | 한국 | 2 | 6.4 | 29,230 |
| 12 | 탄자니아 | 2 | 6.4 | 52,584 |
| 13 | 튀니지 | 1 | 3.2 | 700 |
| 계 | | 31 | 100 | |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지 위치표시

■ 세계 중요농업유산의 등재현황(2015.1 현재) ■

| 나라 | | 명칭 | 등재년도 | 면적(ha) | 특징 | 분야 |
|----|------------|-----------------------------------|------|---------|--|----|
| 1 | 알제리 | 가웃(Ghout) 시스템:마그레브(Maghreb)의 오아시스 | 2011 | 1,700 | - 물확보와 기후후조절을 위한 3단계 시스템(야자, 관목과 과목, 땅에서 수확하는 작물)과 지하 관개시스템으로, 거친 알제리지역 환경에 대응 | 농업 |
| 2 | 칠레 | 칠로에 농업 | 2011 | 10,616 | - 칠레 남쪽에 위치한 칠로에 섬은 생물 다양성 보호 구역이며 감자 200종, 딸기, 마늘 등을 생산하는 지역임 - 들판올타리와 인접한 숲은 꽃가루 매개자와 해충천적을 지원함 | 농업 |
| 3 | 중국 (11) | 쌀-물고기농업(Rice Fish Culture) | 2005 | 461 | - Longxian 마을의 최대 농산물은 쌀과 물고기, 차임 - 농부들은 논에 벼를 가꾸고 논에 물고기를 길러, 쌀-물고기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인 영양분 공급을 가능하게 함 | 농업 |
| 4 | | 와니안(Wannian) 전통 논농업 | 2010 | 200 | - Wannian는 쌀재배의 기원지 중의 한 곳으로 Wannian 전통 쌀은 야생 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농업 |
| 5 | | 하니(Hani) 계단식 논 | 2010 | 70,000 | - 하니 계단식 논은 공간구조는 토양과 물보존, 토양침식 조절, 마을 보호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 | 농업 |
| 6 | | 둥(Dong's) 쌀-물고기-오리 시스템 | 2011 | - | - 지역성과 민족성이 드러나는 오리농법으로 벼 재배(물고기 양식 병행) | 농업 |
| 7 | | 푸얼시(Pu'er) 전통차 농업시스템 | 2012 | 187,000 | - 푸얼시(Pu'er)의 차재배지는 숲 안에 위치해 있어 인공적인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임 - 차숲은 기후조절, 물보존, 토양보호 등의 기능을 함 | 농업 |
| 8 | | 아우한(Aohan) 건조지역 농업시스템 | 2012 | 829,400 | - 아우한(Aohan) Banner는 건조지역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돌 돌러 등을 사용해서 토양을 압축하여 수분 보유 능력을 증가시키는 전통적인 방식과 건조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작물 보유 | 농업 |
| 9 | | 쿠아이지산(Kuaijishan) 고대 중국 비자나무 | 2013 | 40,200 | - 중국 비자나무는 풍부한 물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토양침식 방지 뿐만 아니라 견과류·약·오일 등의 높은 경제적 상품가치의 제품을 제공 | 임업 |
| 10 | | 도시농업유산 - 산후아(Xuanhua) 포도정원 | 2013 | 49 | - 산후아(Xuanhua) 전통 포도밭 시스템은 토양과 물을 보존하고 강한 바람으로부터 포도덩굴을 보호하는 전형적인 갈매기 형태 방식임 | 농업 |

(표계속)

| 나라 | 명칭 | 등재년도 | 면적(ha) | 특징 | 분야 | |
|----|---|-------------------------------|-------------------------|---|---|----|
| 11 | 지에시안(Jiaxian) 전통적인 중국 Date 정원 | 2014 | 2.4/324 (site/total) | -지에시안(Jiaxian)의 대추나무 시배지 | 농업 | |
| 12 | 홍화 두오시안(Xinghua Duotian) 농업시스템 | 2014 | - | (홈페이지 상에 내용 미기재) | 농업 | |
| 13 | 푸저우(Fuzhou)의 차스민과 차농업 시스템 | 2014 | 329,100 | - 차스민과 차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데, 푸저우(Fuzhou)의 다양한 미기후로 인해 차스민과 차나무의 수직적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 농업 | |
| 14 | 샤프란 문화유산 | 2011 | 5,500 | - 샤프란의 전통적 재배 방법 고수 - 카슈미르 계곡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샤프란 재배지 경관 | 농업 | |
| 15 | 인도 (3) | 코라프트(Koraput)의 전통농업시스템 | 2012 | 2,702,000 | - 옥수수, 녹두, 겨자, 참깨, 땅콩 등의 주요 농작물 재배 및 벼 재배 | 농업 |
| 16 | 쿠타나드(Kuttanad)의 해수면 농업시스템 | 2013 | 50,000 | - 해수면아래에서 논경작하는 시스템 - 고지대, 습지, 검은 석탄으로 묻힌 땅 등이 경작지에 해당 | 농업 | |
| 17 | 이란 | 카냐트(Qanat) 관개농업유산시스템 | 2014 | 465,000 | - 카냐트(Qanat) 관개시스템은 건조 및 반 건조지역의 물을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수층의 지하터널을 이 용한 물 확보 | 농업 |
| 18 | 노도의 사토야마와 사투미 | 2011 | 186,600 | - 독특한 일본 전통 농촌의 농업시스템 으로 지역민들은 계단식 논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관개용수로 사용함 - 고지대의 저수지는 육식조류 및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임 | 농업 | |
| 19 | 일본 (5) | 일본 따오기와 조화를 이룬 사도의 사토야마 | 2011 | 85,500 | - 계단식 논과 멸종위기종 일본 따오기의 서식지 제공 | 농업 |
| 20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아소(Aso) 초원 관리 | 2013 | 107,900 | - 화산토양과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여 논과 밭 개간 - 방목을 위한 목초지 조성 | 복합: 농목 업 | |
| 21 | 시즈오카(Shizuoka)의 전통적 tea-grass 통합시스템 | 2013 | 1,300 | - 초원이 차의 뿌리를 덮어줌으로써 차의 품질 향상에 기여 | 농업 | |

(표계속)

| 나라 | 명칭 | 등재년도 | 면적(ha) | 특징 | 분야 |
|----|---|------|-------------------------|---|------------------|
| 22 | 쿠니사키반도 우사(Kunisaki Peninsula Usa) 통합 농업·임업·어업시스템 | 2013 | 132,375 | - 참나무와 관개연못과의 연결시스템을 통해 농업과 임업 생산이 가능하게 함 | 복합 : 농림 어업 |
| 23 | 케냐 올도니오노키(Oldonyon yokie)와 올케리(Olkeri) 마사이 목축민 유산 | 2011 | 93,148 | - 마사이족 목축시스템은 동물종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 목축업 문화와 함께 진화된 경관 보유 및 우수와 고기 등의 식량 제공 | 목축 업 |
| 24 | 모로코 아틀라스산맥의 오아시스 시스템 | 2011 | 2,156 | - 혼합농업(작물과 나무), 윤작 등은 적박한 아틀라스 산맥의 환경에서 식량 확보 및 지하수 유지 가능 | 농업 |
| 25 | 페루 안데스산맥의 농업 | 2011 | 30,798 | - 감자 원산지의 중심지로 잉카문명 문화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제공 및 농업기술 보존 - 물관리를 통한 기후조절 및 울타리를 통한 병해충 관리 등 | 농업 |
| 26 | 필리핀 이푸가오(Ifugao) 계단식 논 | 2011 | 68,416 | - 2000년 된 유기농 계단식 논 - 1995년 세계문화유산의 생활문화유산 으로 등록 | 농업 |
| 27 | 한국 (2) 제주 발담 농업시스템 | 2014 | 54,190 | - 화산섬인 제주의 발담은 돌담을 설치 하여 토양소실과 바람을 막고 아름 다운 자연경관을 연출함 | 농업 |
| 28 | 구들장 계단식 논의 전통적인 관개관리 시스템 | 2014 | 5/4,270 (site/total) | - 구들장 논은 돌을 쌓아 만들어진 지하배수로 - 효과적으로 논이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 관개 및 배수 수로를 조성 | 농업 |
| 29 | 탄자니 아 (2) 엔가레세로(Engaresero) 마사이 목축민 유산 지역 | 2011 | 104,550 | - 마사이 목축 시스템은 고기, 우유, 옥수수, 털과 가죽 등을 제공하여 지역의 식생활을 보장 | 목축 |
| 30 | 심부예 주 키암바(Shimbwe Juu Kihamba)의 농림업 유산 지역 | 2011 | 619 | - 농림업시스템인 관개운하와 연못은 아프리카에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연중 다양한 작물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에도 기여 | 복합 : 농림 업 |
| 31 | 튀니지 가프(Gafsa)의 오아시스 | 2011 | 700 | - 물확보와 미기후조절을 위한 3단계 시스템(야자, 관목과 과목, 땅에서 수확하는 작물) - 물과 양분사용의 효율성과 병해충 조절을 위한 종간-종내 상호작용 관리 등 | 농업 |

자료출처 : [http://www.fao.org/giahs/giahs-sites/en/\(2015.02.09.\)](http://www.fao.org/giahs/giahs-sites/en/(2015.02.09.))

세계 중요농업유산 후보지

| 나 라 | | 명 칭 |
|-------|--------|---|
| 1 | 아제르바이잔 | 고대농업시스템 |
| 2 | (5) | 플로팅정원 |
| 3 | | 꽃재배 |
| 4 | | 전통적인 쌀 재배시스템 |
| 5 | | 조흠(Jhom) 재배시스템 |
| 6 | | 쌀 물고기 시스템 |
| 7 | 브라질 | 블랙지구(Terra preta) |
| 8 | (3) | 유목 / 목축시스템 |
| 9 | | 계단식 재배 시스템 |
| 10 | | 속시(Sokshing) 농림업 시스템 |
| 11 | (2) | 양코르와트(Angkor Wat) 쌀 시스템 |
| 12 | | 북동부 지역의 원주민 농업 시스템 |
| 13-32 | 중국 | 20개의 국가 중요농업유산시스템 (NIAHS) |
| 33 | 콜롬비아 | 콩 재배시스템 |
| 34 | (5) | 카카오 재배시스템 |
| 35 | | 아보카도 과수원-물 수확 |
| 36 | | El Ajá Shuar |
| 37 | | 맹그로브(Manglar) 사람들 |
| 38 | | 디나(Andina) 농장 |
| 39 | 이집트 | 시와(Siwa) 오아시스 |
| 40 | (2) | 게디오(Gedeo) 농림업 시스템 |
| 41 | | 콘소(Konso) 농림업과 문화경관 |
| 42 | 프랑스 | 와야나족(Wayana)의 농업 시스템 |
| 43 | 피지 | 근채작물시스템 |
| 44 | 기니 | 타파드(Tapade) 재배시스템 |
| 45 | (10) | 그랜드 애니컷댐(Grand Anicut)의 농업 시스템 |
| 46 | | 아파타니족(Apatani)의 쌀 물고기 시스템 |
| 47 | | 카타마란(Catamaran, 쌍둥선) 어업 시스템 |
| 48 | | 히말라야 다즐링(홍차) 재배시스템 |
| 49 | | 코란가나두 시부우(Koranganadu Silvo) 방목 시스템 |
| 50 | | 라다크(Ladakh) 농업 시스템 |
| 51 | | 부족의 농업 시스템 |
| 52 | | 타르 사막 라자스탄(Thar desert Rajasthan)의 목축업 시스템 |
| 53 | | 시킴주(Sikkim) 히말라야 농업 |
| 54 | | 소피나 베타스(Soppina Bettas) 시스템 |
| 55 | (5) | 사우자나(Saujana) 농업 유산 |
| 56 | | 트라이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 발리족(Balinese) 시스템 |
| 57 | | 자바족(Javanese) 계단식 논 |
| 58 | | 어업시스템 |
| 59 | | 임업시스템 |

(표계속)

| 나 라 | | 명 칭 |
|-----|----------------|--|
| 60 | 이라크 | 마쉬 아랍인(Marsh Arabs)의 습지 농업 |
| 61 | 이란 (3) | 퀴시콰이(Qashqai) 유목목축업(nomadic pastoralism) |
| 62 | | 이스타반(Estahbanat) 강우에만 의존하는 무화과 시스템 |
| 63 | | 카나트(Qanat) 관개시스템과 정원 |
| 64 | 이탈리아 | 남부지역의 레몬정원 |
| 65 | 마다가스카르 | 마나나라(Mananara) 계단식 논과 농림업 |
| 66 | 말리(공화국) | 서 아프리카 사헬(Sahelian) 범람원 농업 |
| 67 | 몰디브 | 피요어리(Fiyoary) 토란 - 사초 농림업 |
| 68 | 멕시코 | 치남파(Chinampa) 농업시스템 |
| 69 | (2) | 전통적인 메소어메리카(Meso American) 밀파(Milpa) |
| 70 | 몽골 | 가축 방목 시스템 |
| 71 | 네덜란드 | 해안 간척지 시스템(Polder systems) |
| 72 | 네팔 | 왈파라시(Nwalparasi) 통합 농업시스템 |
| 73 | 루마니아 | 움직이는 목축시스템 |
| 74 | 러시아 | 우데지(Udege) 숲 관리 |
| 75 | (2) | 시베리아 북극지역의 전통적인 순록 방목 |
| 76 | 슬로바키아 | 카르파이아산맥(Carpathians)의 전통적인 농업생태계 |
| 77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림포포강(Limpopo) 사탕수수-필 밀렛 재배시스템 |
| 78 | 스페인 | 아나나(Añana) 제염소 골짜기 |
| 79 | 스리랑카 | 탱크 시스템 |
| 80 | (2) | 위위(Wewe) 관개시스템 |
| 81 | 태국 | 묵다한(Mukdahan) 전통시스템 |
| 82 | (2) | 매홍손(Mae Hong Son)티크나무(Teak)임업 시스템 |
| 83 | 터키 (6) | 쌀 생산시스템 |
| 84 | | 천연염료와 제직시스템 |
| 85 | | 전통적인 치즈생산시스템 |
| 86 | | 무화과(Fig) 생산시스템 |
| 87 | | 포도 생산시스템 |
| 88 | | 올리브 생산시스템 |
| 89 | 미국 | 리틀 콜로라도 강 유역, 애리조나 |
| 90 | 바누아투(공화국) | 태평양제도 토란 기반의 흙가든 |
| 91 | 베트남 | 돈 반(Don van) 고원시스템 |

자료출처 : [http://www.fao.org/giahs/giahs-sites/en/\(2015.02.09.\)](http://www.fao.org/giahs/giahs-sites/en/(2015.02.09.))

② 농업유산 활용사례

1. 노도반도의 사토야마와 사투미(일본)

(1) 개요

2011년 6월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노도반도 스즈시의 계단식 논은 1770년대 도쿠가와 가문의 명으로 쌀의 생산량을 늘려야 했지만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 해변의 산비탈을 깎아 만든 것이다. 3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기 때문에 논 곳곳에 우물을 만들어 물을 가둬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현재는 396 농가가 4만51㎡의 계단식 논에서 4t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논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계를 쓸 수 없어 모를 손으로 심는다.

(2) 활용

노도반도 스즈시 지역이 GIAHS로 등재된 이후, 이시카와 현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논을 보존하기 위해 농사를 지을 사람을 찾는 작업이었다. 현청은 대학과 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해 놓고 있는 논을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300여개 단체가 계단식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다. 땅 주인은 이들로부터 일년에 2만엔(한화 24만원 가량)을 받고, 평상시에 물 관리를 해주고 있다. 벼를 심고, 수확하는 것은 온전히 외지인들의 몫이다. 또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NPO, 정부, 지역주민 등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즈시 내 방치되고 있는 논 습지 250개 정도를 생물의 서식처로 운영할 계획과 함께 운영 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청은 이 지역을 그린투어리즘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농가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여 농가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에도시대 말기에 지어진 옛 민가를 식당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관광객에게 토속음식을 제공하는 등 농가건물을 활용한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직파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현재 55ha 경작지에서 생산된 쌀을 브랜드화 하였다. 이것은 옛 농법인 친환경 직파농법을 활용하여 사라졌던 물방개와 같은 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복원과 이러한 생물을 브랜드화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은 쌀이 좋은 가격에 판매되는 모습을 지켜본 인근 마을의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현청에 따르면 노도반도 인근 8개 마을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1개 마을이 추가로 친

환경 농업에 동참하였다.

현청은 겨울에 계단식 논둑에 3만개의 전구를 설치해 불을 밝히는 ‘빛의 축제’를 열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해 농업 전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자원봉사와 농업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한 뒤, 노도반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농협은 노도반도 농가와 소비자를 일대일로 연결시켜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쿠니사키반도 우사지역 상수리림과 저수지의 순환농업(일본)

(1) 개요

2013년 5월 쿠니사키반도 우사지역의 6개 시정촌(분고타카다시, 기츠키시, 우사시, 쿠니사키시, 히메시마무라, 히지마치)의 “상수리나무 숲과 저수지가 연계된 쿠니사키반도·우사의 순환농업시스템”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면적은 약 1,323.75km²이며 온대 습윤기후에 속한다. 중앙부의 용암원정구에서 방사상으로 능선이 뻗고, 그 사이의 깊은 계곡은 가파르고 직선의 하천이 흐르는 반도와 그 북서부에 펼쳐진 평지를 이용하여 논밭과 산림을 운영해온 농업유산이다. 이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180,752명이며, 농림어업 종사자는 약 14,842명으로 추정된다.

쿠니사키반도 우사지역의 특징적인 농림수산업 시스템은 상수리나무가 표고버섯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원을 공급하고, 원목 표고버섯이라는 식품을 만들어 산림의 신진대사와 수자원을 보호한다. 버섯은 영양이나 약효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고, 경지가 한정된 지역에서는 영양, 생활보장 면에서 큰 공헌을 한다. 버섯 재배는 바이오매스를 분해하여 생태계의 영양 순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표고버섯의 원목 재배는 일본의 오랜 농업 시스템이며, 많은 일본 농가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이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은 품질이 좋은 원목이 계속 생기는 삼림에 의존하고 있다. 쿠니사키반도 우사지역은 경지가 한정되어 있는 지역의 상수리나무를 이용한 전통 표고버섯 재배시스템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은 빗물이 침투하기 쉬운 화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물”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입지 조건 하에, 표고버섯 재배로 사용하는 원목과 빨감용으로 사용되는 상수리나무를 활발하게 야산에 심어 수자원을 보호해 왔다. 상수리나무는 벌채해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트고 약 15년이면 재생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원목 표고버섯 재

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특징은 “호다바”에서 품질 좋은 원목 표고버섯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목 표고버섯 재배는 삼림 자원으로 식품을 창출함으로써 경작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식량생산과 생계 수단의 선택을 넓혀서 세계적인 식품안전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상수리나무 벌채와 재생이 반복되면서 상수리나무 숲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삼림의 공익적 기능 발휘에 기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약 1,200개의 소규모 저수지가 축조됐으며 그 주변에는 저수지의 물을 보호하는 상수리나무 숲이 곳곳에 있는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상수리나무 숲, 그 옆 못에서 공급되는 물은 “시치토우이”라는 논농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농림어가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에 의해 목재나 물과 같은 자원의 순환시스템이 유지되어 농림수산업을 진흥하면서 다양한 생물이 보전되고 있다.

(2) 활용

쿠니사키반도 우사지역 상수리림과 저수지의 순환농업은 등재가 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등재 이후 지역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다른 세계 중요농업유산인 아소지역과 교류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역 주민들 중 여성을 중심으로 특산물 교류를 진행하여 세계 중요농업유산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개발과 판매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 마스크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다다미를 만드는 재료, 버섯에 대한 구매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보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며, 버섯채취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수리림과 저수지를 연계하는 워킹루트 운영,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도시락 개발과 판매 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보전관리 활동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역민의 자긍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향후 사라지고 있는 축제를 부활시키고 버섯 채취 체험, 다다미 원료(시찌오)에 대한 자료관 견학 등 세계 중요농업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을 더욱더 확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진협의회는 품목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세계 중요농업유산 지역브랜드 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3. 아소초원유지와 지속적 농업시스템(일본)

(1) 개요

아소의 초원은 일본 큐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쿠마모토현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의 중앙 화구 언덕과 칼데라 주변에 퍼져있다.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아소 지역은 총면적 1,079km²이며, 인구는 약 67,000여 명이며, 이중 농림어업종사자수는 약 5,700여 명이다. 아소산은 동서 18km, 남북 25km의 세계 최대의 칼데라를 형성하고 있고, 칼데라 전체가 아소쿠주 국립공원으로 등재됨과 동시에 일본 지오파크(geopark)로도 인정받았다. 이러한 화산성 토양이나 지리적 조건이 반드시 농경에 적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고랭지의 화산성 토양을 논·밭으로 개량하고, 또 목축지로 이용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벼나 노지 야채, 시설 원예, 축산 등 다양한 농사를 짓게 되었다. 칼데라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경관은 화산 활동이나 하천의 범람에 의한 자연의 작용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인간이 농업 활동으로 화전·방목·채초를 계속 해옴으로써 유지되었다. 이런 농업 활동에 의해 광대한 「반자연초원」이 생겨났고, 수많은 희귀 초원성 동식물도 생육·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아소지역은 초원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농법, 농촌 문화를 계승하면서 독특한 생물다양성이나 농촌 풍경이 보전되어 있는 귀중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원은 마을마다 공동 관리되어 우마의 방목장이 되고, 풀이 우마의 사료나 마구간의 두엄으로 퇴비를 생산하고, 다시 논밭에 투입되는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풀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소 지역 농업의 큰 특징이다. 초원, 숲, 논에 의해 고품질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 구마모토지역의 생수로 활용되고 있다.

(2) 활용

아소초원유지와 지속적 농업시스템은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 밖에 안되어 정확한 경제적 성과는 조사된바 없으나,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문의나 현지시찰을 위한 방문이 증가되고 있으며 니싼 자동차회사에서 전기자동차를 무료로 아소지역 7개 시에 각 1대씩 지원하는 등 기업이 제품을 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초지와 숲의 보전을 위하여 학생들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야생초지의 조사나 농업과 임업의 특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아소 농업유산을 방문할 수 있는 코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치할 예정이다.

4. 소치밀코 치남파 농법(멕시코)

(1) 개요

멕시코 소치밀코 지역의 치남파 농법은 아직까지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다. 소치밀코지역은 100%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구 2,000만의 거대도시 멕시코 시티의 허파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1519년 스페인이 침략하기 이전, 아즈텍 문명에서는 치남파 농법 방식으로 농지를 확대하였으나, 스페인 침공이후 치남파 농법지역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사라졌으나, 소치밀코 지역은 현재까지 치남파 농법을 가장 잘 보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소치밀코지역은 200km에 달하는 수로(1-5m)가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친환경 농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지역의 철저한 보존을 위해서 외부인은 농지 구입이 불가능하며 내부 농민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유네스코에서도 소치밀코 지역을 물, 환경, 건축의 제한 등 반드시 보전할 지역으로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기본적인 건축이 불허되며, 단층 목조형식의 농가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다.

멕시코 분지는 강우도 불규칙하고, 서리 피해도 발생하며, 땅심도 부족하여 농사짓는 데에는 제약도 많은데, 치남파라고 불리는 인공의 ‘물위 채소밭’이 1년에 3모작으로 작물을 생산하여 고도의 도시가 소비하는 식량의 절반에서 2/3를 생산하였다. 치남파는 멕시코 분지 안의 강을 수원으로 하는 남쪽의 담수호 소치밀코(Xochimilco)와 찰코(Chalco) 호수, 중앙부에 있는 테스코코 호수, 염분을 함유한 북쪽의 줘판고(Zumpango)와 살토칸(Xaltocan) 호수 등의 얇은 소택지에서 행해지던 고대 농법이다. 치남파의 생산성 수준은 아즈텍족이 소부족에서 강대한 부족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며, 아르밀라(Armillas, 1971)는 치남파가 10만 명을 부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치남파 농업이 언제 탄생하여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거의 알 수 없다. 아즈텍 전기(1150~1350) 이전에는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즈텍의 농업이 기원전 1400년경 무렵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연구자도 있다. 1세기의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은 25만 명의 인구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그 식량을 제공한 것이 치남파농법이었고, 똑같은 농법이 유카탄반도의 저지대, 수리남의 습지대, 페루와 볼리비아의 티티카카 호수에서도 발견되고 있기에 그 기원이 아즈텍족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치남파는 둘레의 습지와 얇은 호수에서 진흙을 퍼서 둘레의 물높이보다 0.5~0.7m 높이고,

너비 2.5~10m, 길이 20~40m, 가장 길게는 100m의 ‘인공 섬’을 쌓아 올려, 그 위에 섞어짓기를 행한 농법이다. 그리고 토루의 옆쪽에는 나뭇가지와 버드나무(아후에조테스)를 심어서 강하게 만들었고, 고고학과 민족지학의 자료를 통해, 치남파에서 어떠한 건설 기술이 쓰이고, 어떠한 농법이 이루어지며, 어떤 작물이 재배되었는지도 밝혀졌다.

(2) 활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산등재 이후, 치남파 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 구입 등을 위해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으며 apr시코의 국립대학인 우남대 등과 협력하여 치남파 농법이 이루어지는 수로의 외래어종 퇴치 등 소치밀코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소치밀코의 치남파 농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어 멕시코 시티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 등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협동조합 형태의 지역 시민단체에서 생산자인 농민들과 소비자 직거래를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치남파 농법의 보전이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직접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농민들 스스로 시험재배 등을 통해 치남파 농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농민들 사이의 불신으로 치남파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인허가와 교육 등 진입장벽이 있는 상태이므로 치남파 농민들은 폐쇄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치남파 농민들이 폐쇄사회로 정부와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어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정에서도 농민들과의 협력은 없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후보로 신청한 상태로 판단된다. 다만 연구(대학), 생산(농민), 정부(멕시코시티 시청) 3개팀의 형태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5. 트라스카라주 밀파농법(멕시코)

(1) 개요

밀파농법 역시 치남파 농법과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정부와 농민들간의 신뢰부족과 협력 미비로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농업 체계’라고 FAO가 인정한 것이 밀파(Milpa)라는 농법으로 밀파농법은 지금까지 인류가 창조한 농법 가운데에서도 가장 성공한 발명품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멕시코의 밀파농법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농법으로 농업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큰 유산 자원이므로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와 이후 세계적인 관광자

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밀파농법은 높은 이랑이나 둑 위에서 사이짓기하는 작물의 김매기나 수확을 손으로 하기에 원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도 수확량이 높다. 밀파의 옥수수밭에 필적할 만큼 생산적이고, 또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거의 볼 수 없다.

밀파가 생태농업적으로 우수한 점은 첫째는 옥수수의 단작 재배와 비교하여 2ha 이하의 좁은 면적으로도 다양한 식용작물을 재배하여 전체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밀파는 ‘세 자매’라고도 불리는 옥수수·리마콩·호박을 사이짓기하는 특징이 있다. 옥수수, 콩, 호박을 사이짓기하여 콩과 식물의 질소 고정 능력으로 자연히 땅심이 개선되기에 화학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화전 농법의 돌려짓기는 식생이 자연스레 갱신되듯이, 2년 재배에 8년을 묵히는 기간이나 식생의 2차 재생을 고려한다. 묵히는 기간을 짧게 줄이지 않고 이 돌려짓기가 이어지는 한, 이 체계는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 둘째는 병충해에 강한 점이다. 다양한 작물을 사이짓기하는 것으로 병충해의 생물적 방제력을 높여, 농약은 최소한도만 쓴다. 셋째는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밀파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부산물이나 풀을 가금류나 소에게 먹이는데, 이를 사료로 주기에 제초제가 필요없다. 넷째는 양질의 식재료를 자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밀파가 자급용 식량이나 사료작물만이 아니라, 건설자재, 빨감, 양봉용 2차 식생이나 수렵하는 동물과, 농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재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밀파에서는 긴 휴한기가 있는데, 그 휴한지가 들새나 작은 포유류의 서식지가 되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숲 관리와 함께 자급용 수렵에 좋은 생태계를 만든다.

(2) 활용

관광수입이 많은 멕시코에서 농업유산은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업유산의 생산 작물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며, 국내외 교류활동(체험 및 축제, 유산보존운동)이나, 농업유산의 관광적 활용을 위한 유산투어, 공정여행, 농업학습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향후 농업유산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또한 밀파 농법은 홍수의 위험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며, 토양침식을 막고, 기후를 제어하는 가능성도 있다.

6. 레몬가든(이탈리아)

(1) 개요

레몬가든(Lemon Gardens)은 이탈리아 남부 소렌티노 반도에서 지형적 상황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농업경관을 형성한 사례로, 처음에는 레몬 나무의 가지를 지붕모양으로 형성하여 고밀도로 재배하였는데 높은 습도가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짚으로 만들어진 피골라 시스템을 도입하여 레몬을 재배하였다. 이런 전통적인 기술은 플라스틱 그물로 대체되어 재배방식이 전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레몬은 주로 언덕과 바다 사이에 좁은 계곡에 형성된 테라스 지형에서 재배되고 있다. 가파른 경사지형으로 레몬 재배를 통해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토양을 보존하고 경사지까지 활용하여 농경 면적을 확대할 수 있었다.

(2) 활용

레몬, 테라스, 피골라, 방풍림, 돌벽 등의 전통적인 농업의 시스템은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레몬 경작과 생산을 통해서 수세기에 걸쳐 보존되고 있다. 소렌티노 지방에서 생산된 레몬은 높은 품질로 레몬 켈로(lemoncello : 레몬 酒)의 생산을 위한 재료로 쓰여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레몬가든(Lemon Gardens) 유산의 특별한 재배 방식을 보존하고, 재배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7. 소금밸리(스페인)

(1) 개요

소금밸리는 아직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소금밸리의 유산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2013년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5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보존하며 옛 방식 그대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세시대부터 지켜온 생산시설의 모습은 이 지역만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가치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소금밸리의 인구는 180명 정도이며, 면적은 120ha정도, 가장 활성화 되었을 때는 560ha였다. 모든 시설은 개인소유로 시청(마을)과 동반자로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소금밸리에 첫 번째 사람들이 정착한 것은 6,500년 전부터로 경사지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주거지를 방어하기 위해 마을을 형성하였다. 6,500년 전부터 소금은 생산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물을 데워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생산방식은 로마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수로 및 테라스를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여 빠르게는 2일 만에 소금을 생산하였다. 생산시설은 대부분 교체하지 않았으며 특히 목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금이 스며들어 해충이 살지못하게 만들어 썩지 않아 현재 대부분의 목재는 과거의 나무들이다.

소금물은 상부에 위치한 소금 우물(온천물이 솟아오르듯 땅 밑에서 소금물이 솟아오름)에서 1초당 2.4리터 정도의 소금물이 솟아나고 있다. 이러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보통 10명~15명 정도 투입되며, 생산되는 소금 중 최상의 소금은 수로를 따라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소금이다. 이곳 소금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보다 더 많은 양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쁜 성분이 전혀 없어 좋은 소금이라 평가 받고 있다.

소금 생산 방식에는 바닥면의 소재를 기준으로 황토, 돌, 시멘트, 대리석 네가지 방법이 있으며 수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가장 많이 생산할 때는 2560개 정도의 테라스에서 생산되었다. 나무수로는 3km 정도이고 우물은 800개 정도인데 소금 생산 후 남은 소금물은 전기 생산 공장에 열을 식히는데 사용되며 또한 여기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겨울철 제설용 소금(염화칼슘)으로 사용된다.

(2) 활용

소금밸리는 단순히 소금을 만드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유산 개발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창출되고 소외되고 쇠퇴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속적인 소금생산을 위해 정부는 마을의 수익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마을의 수익이 향상되어 현재 수익의 30% 정도는 소금 수출, 입장료 수익, 제품 판매 등이 차지하고 있다. 향후 미용쪽 제품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정부 지원 없이 마을 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㉓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기반시설·가공시설·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생물다양성
2. 무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기술·전통지식·농업문화·사회조직

제2조의3(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4(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 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해당 농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농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6(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변경·취소 심사를 할 때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7(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2제4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조사·복원 및 환경 정비 등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 및 농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

| 구 분 | 항 목 | 세부 기준 |
|------------------------------|---|---|
| 농업 자원의 가치성 |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 활동이 가능할 것 |
| |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
| |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 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
| |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 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 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
| |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 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
| |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
|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 농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 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8. 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개월 |
| 신청대상 | 명칭 | 대상지역(면적) | |
| | 특징 | | |
| 신청자 | 시·군·구명 | 담당자 | |
| | 연락처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 제2항 에 따라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 1. 농·어업자원 설명서 2. 농·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농·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농·어업자원 설명서

| |
|---|
| <p><요 약></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청기관2. 협력단체3. 대상지 위치(면적)4. 대상지 접근방법 |
| <p>I. 역사성</p> |
| <p>II. 특징</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농산물·수산물 생산 및 주민생계수단으로서의 기능2. 농·어업자원의 지식체계 및 기술3. 농·어업자원의 문화, 가치체계와 관련단체4. 현저한 경관과 토지 및 수자원관리 특징5.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기능 |
| <p>III. 농·어업자원의 현대적 의미</p> |
| <p>IV. 농·어업자원 위협요인과 도전과제</p> |
| <p>V.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p> |
| <p>VI.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 사회, 환경적 영향</p>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 8. 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의 [] 변경 [] 취소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 대상 | 유산의 명칭 | 유산 대상지역(면적) | |
| | 유산의 특징 | | |
| (변경·취소) 신청내용 및 사유 |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3항,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의 ([] 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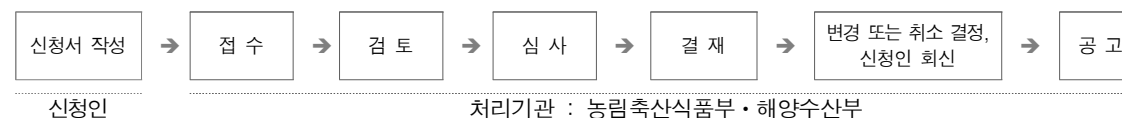
신청인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 1.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 8. 4.>

(앞 쪽)

제 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서

1. 유산의 명칭
2. 유산 지정지역
3. 관리기관

상기 농·어업자원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4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43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을 말한다.
3.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4.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FAO에 등재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제4조(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동의서) ① 규칙 제2조의4 및 제2조의5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변경·취소 신청서에 첨부하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민 동의서는 국가농업유산 지정 대상지역(행정리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1/2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주민 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당 1인으로 산정한다)
2. 주민협의체 동의서는 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의 2/3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

유산의 소유자와 유산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주민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시장·군수가 정한다.

제6조(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번호 등)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번호는 지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지정일시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명칭은 지역명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특성이나 형태 등을 붙여서 사용하며, 농업유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지역명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소재하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강·해역이나 마을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명명 할 수 있다.

제3장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제7조(농업유산 자문위원회 구성) ① 규칙 제2조의6 제2항 규정에 따라 농업유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장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장

3.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장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농업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직무)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절차·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활용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수당과 여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한 자문위원에 대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업무협조) 위원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자문과 관련하여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

제13조(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주체)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주민협의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리할 경우에 시장·군수는 주민협의체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유산의 복원 및 수리) ①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복원·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복원 및 수리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유산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을 것
2. 유산은 일률적인 복원·수리를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새로운 재료·부재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
4. 유산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과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할 것

제15조(유산의 활용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나 농촌의 활성화 또는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
2. 현상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멸실시키지 말 것
3. 국가 및 지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것
4.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있을 것

제16조(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현상 파악과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국가중요농업유산의 실태조사)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년 1회 이상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훼손여부
2.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환경 등 주변의 변화상태
3. 안내판, 경고판 등 각종 보호 및 홍보 시설물의 상태

4. 기타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8조(조사결과 조치) ① 시장·군수는 실태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그 밖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

②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현상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의 기록) 시장·군수는 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조사, 수리, 복원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제20조(신청대상) 국가중요농업유산 중에서 세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신청서류 제출)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증빙자료
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계획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 등은 자료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가 제2항의 보완 요청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등재신청서 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신청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 적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등재신청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신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보급
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제공
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전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상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자료수집
2.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연구
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제반자료 작성 및 보완
4. 기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유산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등재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② 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자료를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기존 고시에 의하여 위촉된 심의위원은 개정된 고시에 의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인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19조 관련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기록부

| | |
|-----------------------------|--|
| 농업유산 (지역) | |
| 보전 상태 | |
| 활용 사항 | |
| 조치 사항 | |
| 협의 사항 (주민협의체, 관련기관 등) | |
| 특이사항 | |

※ 관련 사진 첨부(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전후를 촬영)

실태조사 일자 : 년 월 일

실태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제21조 관련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 요약정보

- ① 농업 유산시스템의 이름/제목(지역명)
- ② 청구 단체/기구, 관련기구(정부, 지역, 기관단체 등)
- ③ 주요 도시나 수도의 접근성
- ④ 유산지역의 면적
- ⑤ 농업 생태계 구역
- ⑥ 지형적 특성
- ⑦ 기후유형, 인구수
- ⑧ 주요 생업
- ⑨ 인종, 토착민 인구수
- ⑩ 농업유산시스템의 요약정보(200~300자)

□ 농업유산시스템 설명

I. 제안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의 특성

1. 식량과 생계 확보
2.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3. 지식체계 및 기술
4. 문화·가치체계와 관련단체
5. 현저한 경관과 토지 및 수자원 관리특징

II. 그 외에 농업시스템 관리와 관련있는 사회·문화적 특징

III. 역사적 관련성

IV. 현재의 타당성

V. 위협과 도전

VI. 실용적인 고려

VII.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의 동적보존계획

부록 : ① 농업유산지역의 위치도 ② 농업생물다양성의 리스트
③ 농업유산 및 지역의 역사적·고고학적 기술 ④ 유산관련 사진

㉔ 제주도 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국가 및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 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 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 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 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유산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 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농어업유산의 날 및 세계유산 주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7. 국가농어업유산 이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유산의 심의
9.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업유산 등록 및 관리 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의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행정,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농어업유산지구 주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⑤ 간사는 제주자치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및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을 위한 자료관리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보조)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을 지원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사업추진 일지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1.07.04 | 농어촌지역정책포럼(KREI)에서 농어업유산제도의 필요성 제기 |
| 2011.07-2011.10 | 농어업유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기관·전문가 의견수렴 |
| 2011.12.19 |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오감경관 종합대책에서 농어업유산제도 제안 |
| 2012.02.22 | 농어업유산 기준정립 및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시작 |
| 2012.03.30 | 농어업유산제도 도입 |
| 2012.04.27 | 농어업유산 신청 접수(64건) |
| 2012.05.18 | 농어업유산자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
| 2012.09.18-2013.09.25 | 농어업유산지정 해외사례조사(멕시코) |
| 2012.10-2012.11 | 농어업유산자원 서류심사(64건) 및 현장실사(20건) |
| 2012.12.06 | 농어업 유산자원 지정관리기준 제정·고시 |
| 2012.12.31 |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16명) |
| 2013.01.02 | 농어업유산 신규예산 확정(1,150백만원) |
| 2013.01.10 | 제1차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심의 13건) |
| 2013.01.16 | 국가중요 농어업유산 1, 2호 공고(관보게재) |
| 2013.01.21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윤원근 협성대학교 교수) |
| 2013.02.27-2013.02.28 | 일본 유엔대학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한국 제주도, 완도) |
| 2013.05 | 농어업유산제도 발전방안수립(장관방침) |
| 2013.05.29-2013.05.31 | FAO GIAHS 국제포럼(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국가유산 2개소 프레젠테이션 |
| 2013.06.02-2013.06.06 | FAO GIAHS 전문가 국가유산 2개소 현장실사(FAO GIAHS 담당자, 국제농업유산기금대표 2인) |
| 2013.06.17 | 이동필장관 FAO 사무총장 면담 |
| 2013.06.19 | 이동필 장관 FAO총회 기조연설(국가 중요농업유산 2개소 소개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협력 요청) |
| 2013.06.19-2013.06.20 | INWEPF 농업유산 국제세미나(한국 농어촌공사) |
| 2013.06.28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 최종접수 |
| 2013.07.02 | 농업유산제도 관련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전북 장수군 장수읍 한국농업연구소) |
| 2013.08.25-2013.08.28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한중일 워크숍 개최(한국 제주도, 완도) |
| 2013.10.01 | 경관사진공모(특별공모분야-국가 중요농업유산)전 수상작 발표 |
| 2013.10.28 | 제1회 ERAHS 워킹그룹회의(중국 베이징) |
| 2013.11.02-2013.11.03 | FAO GIAHS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태국 방콕) |
| 2013.11.29 | 제2차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 |
| 2013.12.16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유산의 보전관리계획 보완제출 |
| 2014.01-2014.03 | FAO 집행위원회 신청서 검토 |
| 2014.02.13 | 제2차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개최(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 |
| 2014.03.03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서류심사결과 심의위원의 이의가 없음을 통보 |
| 2014.04.01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결정 |
| 2014.04.04 |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기념 세미나 및 지정서 전달식 개최(한국 대전) |
| 2014.04.07-2014.04.10 | ERAHS 제1회 국제컨퍼런스(중국 강소성 홍화시) |
| 2014.04.28-2014.04.29 | FAO GIAHS 집행위원회 참석(이탈리아 로마) |
| 2014.06.10 | 농업유산심의위원회 국가 중요농업유산 3호(구례 산수유 농업), 4호(담양 대나무밭) 지정 |

7 농업유산 관련 신문기사

| 일시 | 내용 | 신문사 |
|------------|---|--------|
| 2012.04.05 | 전통 농업/경관유산 지정된다-정부, 보전/전수제도 마련 | 국민일보 |
| 2012.04.09 | 농어업 유산 관광자원화 추진 | 전남일보 |
| 2012.06.05 | 세계농업유산등록 위한 조례제정 필요 | 한라일보 |
| 2012.07.02 | 완도 구들장 논 농어업유산 된다 | 전남일보 |
| 2012.12.05 | 제주 밭돌담, 돌엽전, 나장어업, 국가유산 후보에 | 동아일보 |
| 2013.01.22 |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유산 1호 지정 | 전남일보 |
| 2013.01.23 |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국가농업유산 제1호 됐다. | 경향신문 |
| 2013.01.31 | 구들장 논 세계유산등재 전무가들 발 벗고 나섰다. | 광주일보 |
| 2013.03.25 | 완도, 구들장 논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하기로 | 한국일보 |
| 2013.05.30 |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 중요농업유산 신청 | 한국일보 |
| 2013.05.31 | 완도 구들장 논 세계농업유산 등재 '한걸음' | 한겨레 |
| 2013.06.05 |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 등재 보인다 | 동아일보 |
| 2013.06.05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주 밭담, 농업유산 등재할 가치 | 한겨레 |
| 2013.06.19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세계 식량안보 위해 적극 역할' | 문화일보 |
| 2013.07.02 | 농업 그대로 보존해야 진정한 의미의 세계유산 | 광주일보 |
| 2013.08.28 |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농업유산 등재 한중일 농업유산전문가들 함께 나선다. | 광주일보 |
| 2013.09.04 | 동아 농업유산 연대협의체 창설 | 무등일보 |
| 2013.11.15 |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유산 등재 워크숍 | 무등일보 |
| 2013.12.24 | 산수유 시목지/계단 차밭 전남 농어업유산에 | 전남일보 |
| 2013.12.25 | 1000년 역사 구례 산수유 시목지, 전남 중요농어업유산 1호로 지정 | 동아일보 |
| 2014.02.03 |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등재 | 헤럴드경제 |
| 2014.04.03 |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 됐다 | 한국일보 |
| 2014.04.04 |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에 국내 첫등재 | 서울신문 |
| 2014.04.04 | 이동필 농림 "밭담, 제주인 개척정신 지혜에 감탄" | 한라일보 |
| 2014.04.04 | 정부 '세계농업유산 에코뮤지엄 조성' | 한라일보 |
| 2014.04.04 | 농식품부, 대전서 세계농업유산 지정서 전달식 개최 | 위클리오늘 |
| 2014.04.07 | 세계농업유산, 농도 전남의 활력소 삼아야 | 광주일보 |
| 2014.04.07 |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선포식 12일 개최 | 뉴스웨이 |
| 2014.04.07 |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밭담 | 한라일보 |
| 2014.04.09 | 농업유산, 발굴보존노력과 함께 활용도 높여야 | 농민신문 |
| 2014.04.10 | 우리나라 농업유산 가치 세계가 인정 | 전업농신문 |
| 2014.04.13 | 구들장 논 세계농업유산 등재선포 | 뉴시스 |
| 2014.04.14 | [전문가의 눈-윤원근]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와 농촌발전 | 농민신문 |
| 2014.04.18 | 제주 밭담' 세계농업유산과 농업의 중요성 | 한라일보 |
| 2014.06.25 | 산수유 농업, 대나무밭 농업유산 지정 | 한국일보 |
| 2014.06.26 | 구례 산수유 농업, 담양 대나무밭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 | 광주일보 |
| 2014.06.27 | [사진]담양대나무밭 국가 중요농업유산에 | 중앙일보 |
| 2014.07.02 | 전북도 국가농어업유산지정 추진, 관광체험 자원으로 연계 | 전북도민일보 |
| 2014.07.03 | 전북 농어업자원 '국가유산'추진 | 전북일보 |
| 2014.07.03 | 농어업유산 왜 중요한가 | 새전북신문 |

(표계속)

| 일 시 | 내 용 | 신문사 |
|------------|--------------------------------|-------|
| 2014.07.03 | 농어업유산 제도적 지원체계 강화해야 | 무등일보 |
| 2014.07.07 | 전발연, 중요농어업유산 활용 농어업경제 활성화 견인해야 | 뉴스웨이 |
| 2014.07.09 | 세계농업유산 구들장 논 지켜주세요 | 농민신문 |
| 2014.10.06 | 세계 농업유산 등재위한 한·일공동워크숍 | 경기일보 |
| 2014.10.13 | 세계 중요농업유산 한·일 공동 워크숍 개최 | 전업농신문 |
| 2014.10.31 | 농업유산 예산지원 확대 및 관리강화입법 시동 | 중부매일 |
| 2014.11.12 | 세계유산 '구들장 논'벼수확 | 농민신문 |

8 상표등록

상표출원공고 42-2014-0059210



(190) 대한민국특허청(KR)
상표공보

(260) 공고번호 42-2014-0059210
(442) 공고일자 2014년07월01일

(511) 분류 00(10판)
(210) 출원번호 42-2013-0000315
(220) 출원일자 2013년07월04일

(731) 출원인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0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740) 대리인
오종근

담당실사관 : 이익희

(511)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00 류

1. 전통적 경관, 토지 및, 수자원의 관리업무 2. 생태시스템의 복원 및 보전기술에 관한 업무 3. 농어업유산에 대한 지정, 관리 및, 보전 업무 4. 경관 및 전통문화의 보전, 환경생태계의 유지, 국민정서의 순화, 보전휴양과 학습체험기회 제공업무 5. 동식물, 미생물과 그들이 담고있는 유전자 및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생물 종, 생물유전자, 생태계의 보전, 유지교육 및, 연구업무,

상표에 대한 설명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로고와 문자로 구성되며, 농업유산을 이미지화 하면서 약간의 색채를 결합시킨 업무 표장 상표

상표결본



국가중요농업유산

상표출원공고 40-2014-0007776



(190) 대한민국특허청(KR)
상표공보

(260) 공고번호 40-2014-0007776
(442) 공고일자 2014년01월24일

(511) 분류 16(10판)
(210) 출원번호 40-2013-0044222
(220) 출원일자 2013년07월04일

(731) 출원인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0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740) 대리인

오종근

담당심사관 : 윤종필

(511)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16 류

교육관련 서적, 교육관련 정기간행물, 교육 매뉴얼, 교육지도 안내서, 콤팩트,

상표에 대한 설명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토고와 문자로 구성되어, 농업유산을 이미지화 하면서 약간의 색채를 결합시킨 업무 표장 상표

상표견본



국가중요농업유산



(190) 대한민국특허청(KR)
상표공보

(260) 공고번호 40-2014-0007777
(442) 공고일자 2014년01월24일

(511) 분류 30(10판)
(210) 출원번호 40-2013-0044232
(220) 출원일자 2013년07월04일

(731) 출원인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740) 대리인
오종근

담당심사관 : 윤종필

(511)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30 류

곡물(알아한것), 곡물가공식품, 곡물조제품, 가공한 곡물,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도정한 곡물, 부침용 곡물가루,

상표에 대한 설명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토고와 문자로 구성되어, 농업유산을 이미지화하면서 약간의 색채를 결합시킨 업무표장 상표

상표견본



국가중요농업유산

상표출원공고 40-2014-0037613



(190) 대한민국특허청(KR)
상표공보

(260) 공고번호 40-2014-0037613
(442) 공고일자 2014년04월25일

(511) 분류 31(10판)
(210) 출원번호 40-2013-0044237
(220) 출원일자 2013년07월04일

(731) 출원인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740) 대리인

오종근

담당심사관 : 이영권

(511)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제 31 류

곡물종자, 식물종자, 살아있는 식물,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 동물용 곡물가루, 미가공 곡물, 미가공 곡물종자, 과일 및 채소용 종자, 과일용 종자,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천연식물 및 생화.

상표에 대한 설명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로고와 문자로 구성오디어, 농업유산을 이미지화하면서 약간의 색채를 결합시킨 상표.

상표견본



국가중요농업유산